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4차



2022 개정 교육과정, 직업교육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2022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따른
직업교육 교육과정 현실 점검 및 개선 방안 모색

|일 시| 2021년 8월 13일(금) 15시

|장 소| 온라인  zoom (중) 토론회
 유튜브 강민정TV로 생중계 합니다.

|주 최| 국회의원 강민정(열린민주당)

|발제자| 이찬주 | 안동대학교 교수
김경엽 |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이수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민서 |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
(주)아진산업 |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윤강우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



온라인
방청객·토론자
모집

|문의| 강민정의원실 02-784-2477

목 차

인 사 말

강 민 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발 제

1. 특성화고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위한 학생 인식 설문조사 분석
이 찬 주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2. 직업계고 교사가 바라본 현재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 경 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토 론

1. 우리나라 직업교육 교육과정 문제와 개선 방안
이 수 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2. 직업계고 학생이 바라본 직업교육 교육과정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진 민 서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
3.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육성 프로그램 현황 및 현장실습 개선 방안
(주)아진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4. 202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방향
윤 강 우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

인사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강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 인식 설문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여 주신 안동대학교 이찬주 교수님, 직업교육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함께 발제를 준비하여주신 김경엽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토론을 준비하여 주신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진민서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분,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인 (주)아진산업, 윤강우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님, 그리고 토론회에 함께 하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수능과 대입 등 대학 진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주요 교육 이슈들은 올해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입에서 정시의 비중이 늘었는지 혹은 수시의 비중이 늘었는지, 모의평가나 수능의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당연히 진학 교육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진학 교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대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왔습니다.

우리 교육이 대학진학 교육 중심인 풍토에서 직업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와 반성 속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기업으로 실습을 나가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반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한 뒤에야 기능대회 메달 따기에 내몰려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어려움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 이외에도 직업계고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토로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취업의 직격탄을 맞아 졸업 후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목소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이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생님의 문제 제기 등 새로운 시대에 우리 직업교육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했지만, 그 논의의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 우리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2022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맞춰 직업교육 교육과정 현실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앞서 전국 1,248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위한 학생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토론자로 직업교육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과 선생님, 교육부, 그리고 현장실습 기업 등 직업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만큼, 부디 오늘 토론회의 논의가 우리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어느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만드는 데 든든한 초석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강민정

발 제 1

**특성화고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위한
학생 인식 설문조사 분석**

이 찬 주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결과보고서

특성화고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위한 학생 인식 설문조사

2021년 08월 02일

과제 책임자	성명	이찬주	전화번호	
	소속	안동대학교	핸드폰	
	직위	교수	이메일	



국립안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조사의 개요	1
1. 조사의 목적	1
2. 조사 절차 및 개요	1
3. 조사 방법	3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5
II. 설문 조사 결과	6
1. 일반적 현황	6
2. 학교 전반적 특성	7
3. 수업 운영 및 과목 편성	19
4. 진로지도 관련	?
참고문헌	52
부록	53

표 목 차

<표 1> 특성화고 소재지 및 계열별 학교 수, 학생 수 현황	2
<표 2> 표집 대상 : 권역별 지역 및 계열별 학교 수	3
<표 3> 조사 도구 영역별 문항 내용	4
<표 4> 설문 조사 응답자 현황	6
<표 5> B1. 학교 만족도 결과	7
<표 6> B1. 학교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7
<표 7> B1a. 학교에 불만족 이유 빈도분석 결과	8
<표 8> B2. 학교에 요청 사항 빈도분석 결과	9
<표 9> B3. 학교생활 어려움 빈도분석 결과	11
<표 10> B4.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 결과	12
<표 11> B4.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 빈도분석 결과	12
<표 12> B4a. 전공(학과)과 맞지 않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13
<표 13> B5. 학생 참여 권리 보장 결과	14
<표 14> B5. 학생 참여 권리 보장 빈도분석 결과	15
<표 15> B5a. 학생 참여 권리 보장하지 않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15
<표 16> B6. 학교 특성/문화 인식 결과	16
<표 17> B6. 학교 시설 인식 결과	17
<표 18> C1.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결과	19
<표 19> C1.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19
<표 20> C1a. 보통교과 수업 불만족 이유 빈도분석 결과	20
<표 21> C2. 전문교과 수업 만족도 결과	21
<표 22> C2. 전문교과 수업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22
<표 23> C2a. 전문 교과 수업 불만족 이유 빈도분석 결과	22
<표 24> C3. 희망하는 이론 수업 방법 빈도분석 결과	24
<표 25> C4. 희망하는 실습 수업 방법 빈도분석 결과	25
<표 26> C5. 희망하는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편성 시간 빈도분석 결과	26
<표 27> C6. 희망 과목 개설 정도 결과	27
<표 28> C6. 희망 과목 개설 빈도분석 결과	27
<표 29> C6a. 희망 과목 중 미개설 과목 빈도분석 결과	28
<표 30> C7.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정도 결과	29
<표 31> C7.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정도 빈도분석 결과	30
<표 32> C7a.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하지 않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31
<표 33> C7b.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하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32

<표 34> D1. 취업지도 만족도 결과	33
<표 35> D1. 취업지도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33
<표 36> D2. 진학지도 만족도 결과	34
<표 37> D2. 진학지도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34
<표 38> D3. 졸업 후 희망 진로 빈도분석 결과	35
<표 39> D3a1.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36
<표 40> D3a2. 취업 시 희망 취업처 빈도분석 결과	37
<표 41> D3a3. 정규 과목 편성의 취업 준비 대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38
<표 42> D3a4.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 빈도분석 결과	39
<표 43> D3a4.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준비 정도 결과	40
<표 44> D3a5. 취업 후 대학 진학 계획 빈도분석 결과	41
<표 45> D3a6. 학교로부터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 습득 여부 빈도분석 결과	42
<표 46> D3a7. 학교로부터 받길 원하는 취업 지원 빈도분석 결과)	43
<표 47> D3b1.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 빈도분석 결과	45
<표 48> D3b2. 대학 진학 시 희망하는 전공 계열 빈도분석 결과	46
<표 49> D3b3. 정규 과목 편성이 대학 진학 준비에 충분한 정도 빈도분석 결과	46
<표 50> D3b4.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 빈도분석 결과	47
<표 51> D3b4.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준비 정도 결과	48
<표 52> D3c1.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빈도분석 결과	49
<표 53> D3c2. 진로 결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빈도분석 결과	50

그림 목차

[그림 1] 학교 만족도	8
[그림 2] 학교 불만족 이유	9
[그림 3] 학교에 요청 사항	10
[그림 4] 학교생활 어려움	11
[그림 5]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	13
[그림 6] 전공(학과)과 적성 맞지 않은 이유	14
[그림 7] 학생 참여 권리 보장	15
[그림 8] 학생 참여 권리 보장하지 않는 이유	16
[그림 9] 학교 특성/문화 인식	17
[그림 10] 학교 시설 인식	18
[그림 11]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20
[그림 12] 보통교과 수업 불만족 이유	21
[그림 13] 전문 교과 수업 만족도	22
[그림 14] 전문 교과 수업 불만족 이유	23
[그림 15] 희망하는 이론 수업 방법	24
[그림 16] 희망하는 실습 수업 방법	25
[그림 17] 희망하는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편성 시간	26
[그림 18] 희망 과목 개설	28
[그림 19] 희망 과목 중 미개설 과목	29
[그림 20]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정도	30
[그림 21]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하지 않는 이유	31
[그림 22]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이유	32
[그림 23] 취업지도 만족도	33
[그림 24] 진학지도 만족도	35
[그림 25] 졸업 후 희망 진로	36
[그림 26]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37
[그림 27] 취업 시 희망하는 취업처	38
[그림 28] 정규 과목 편성이 취업 준비에 충분한 정도	39
[그림 29]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	40
[그림 30]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준비 정도	41
[그림 31] 취업 후 대학 진학 계획	42
[그림 32] 학교로부터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 습득 여부	43
[그림 33] 학교로부터 받길 원하는 취업 지원	44

[그림 34]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	45
[그림 35] 대학 진학 시 희망하는 전공 계열	46
[그림 36] 정규 과목 편성이 대학 진학 준비에 충분한 정도	47
[그림 37]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	48
[그림 38]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준비 정도	49
[그림 39]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50
[그림 40] 진로 결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51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특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진로지도 등에 실태 및 만족도, 요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특성화고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 절차 및 개요

모집단	→	• 특성화고 재학생(구체적인 현황은 <표 1> 참조)
조사 대상 표집 방법	→	• 전국 특성화고를 다음 표집 기준(①, ②, ③)을 고려하여 표집 ① 4개 권역 :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② 3개 계열 : 공업, 상업 정보, 농업/기타 ③ 학과별 3학년 1개 학급 : 단위학교의 학과별 3학년 1개 학급
표본 대상	→	• 전국 수도권, 특성화고 31개교(<표 2> 참조) - 수도권(서울, 경기) : 5교(공업 4교, 상업 정보 4교, 농업/기타 2교) - 충청강원권(대전, 충북) : 9교(공업 3교, 상업 정보 3교, 농업/기타 3교) - 호남·제주권(광주, 전북) : 6교(공업 2교, 상업 정보 2교, 농업/기타 2교) - 영남권(대구, 경남) : 6교(공업 2교, 상업 정보 2교, 농업/기타 2교)
조사 내용	→	• 일반적 현황 관련 6문항 • 학교 전반적 특성 관련 17문항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수업 운영 및 과목 편성) 관련 7문항 • 진로지도 관련 3문항 (구체적 조사 내용은 <표 3>와 별첨 부록 <설문지>를 참조)
조사 방법	→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기간	→	• 2021년 7월 13일 - 2021년 7월 20일 (총 8일간)

3. 조사 방법

가. 조사 대상

□ 본 조사의 모집단은 특성화고 재학생이다. 2020년 기준 특성화고 재학생 수는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20)에 의하면 209,574명이다.

<표 1> 특성화고 소재지 및 계열별 학교 수, 학생 수 현황

소재지		계열						계	
권역	지역	공업		상업 정보		농업/기타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수도권	서울	30	17,260	36	19,200	4	1,992	70	38,452
	인천	14	7,763	9	5,016	4	1,830	27	14,609
	경기	28	16,887	34	21,019	8	3,440	70	41,346
	소계	72	41,910	79	45,235	16	7,262	167	94,407
충청·강원권	대전	5	2,869	4	2,424	1	669	10	5,962
	충남	9	3,035	12	4,498	7	2,377	28	9,910
	충북	7	3,844	12	4,941	4	1,374	23	10,159
	세종	2	426	0	0	0	0	2	426
	강원	5	2,214	4	449	11	3,308	20	5,971
	소계	28	12,388	32	12,312	23	7,728	83	32,428
호남·제주권	광주	6	4,641	3	1,572	1	550	10	6,763
	전북	10	3,072	6	2,463	8	1,931	24	7,466
	전남	17	5,161	13	4,475	10	1,921	40	11,557
	제주	1	687	1	603	4	1,786	6	3,076
	소계	34	13,561	23	9,113	23	6,188	80	28,862
영남권	부산	16	6,911	11	5,384	6	2,931	33	15,226
	대구	9	6,864	3	1,883	3	2,711	15	11,458
	울산	3	2,037	3	1,793	2	976	8	4,806
	경북	20	5,485	9	2,242	19	4,029	48	11,756
	경남	13	6,023	10	2,719	7	1,889	30	10,631
	소계	61	27,320	36	14,021	37	12,536	134	53,877
계		195	95,179	170	80,681	99	33,714	464	209,574

주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20년 기준) 재구성

주2) 계열 구분은 [교과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공업(10):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
- 상업(1): 경영금융
- 농업/기타(6): 농림수산해양, 선박,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조리

- 설문 조사 대상이 되는 표집 대상의 적절한 표집 수는 rejcie & Morgan(1970)에 따르면, 모집단 100,000명 이상일 때 적절한 표본 수는 384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표본 추출 시에 응답자의 학교 소재지, 학급 수 등의 변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찬주, 2016, p. 50).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권역, 계열 등을 고려하여 표집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표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2개 지역(특별광역시, 광역도)을 선정하였다.
 - 둘째, 전공 계열(공업, 상업 정보, 농업/기타)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계열별 1개교씩 선정하였다. 다만, 수도권은 학교 수가 많아서 지역별 공업, 상업 정보 계열을 1개교씩 추가하였으며, 대전은 조사협조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계열별 1개교씩 추가하였다.
 - 셋째, 선정된 학교에서 학생 표집은 학과별 3학년 1개 반을 표집하였다.
 - 표본으로 선정된 권역별, 계열별, 표집 대상 학교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표집 대상 : 권역별 지역 및 계열별 학교 수

소재지		계열			계
권역	지역	공업	상업 정보	농업/기타	
수도권	서울	2	2	1	5
	경기	2	2	1	5
충청·강원권	대전	2	2	2	6
	충북	1	1	1	3
호남·제주권	광주	1	1	1	3
	전북	1	1	1	3
영남권	대구	1	1	1	3
	경남	1	1	1	3
합계					31

주1) 계열 구분은 [교과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공업(10):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
- 상업(1): 경영금융
- 농업/기타(6): 농림수산해양, 선박,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조리

나. 조사 도구

- 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문항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안재영(2018), 노원경 외(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정광희 외(201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추가로, 조사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문항의 타당도는 직업교육 박사학위가 있는 전문가 2명의 검토를 통해 검증하였다.
- 설문지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특성화고 학생의 일반적 현황을 묻는 문항이고, 두 번째 영역은 특성화고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이고, 세 번째 영역은 특성화고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수업 운영 및 과목 편성을 묻는 문항이고, 네 번째 영역은 특성화고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진로지도 관련 문항이다. 각 영역별 문항 내용과 유형은 <표 3>과 같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별첨한 <부록: 설문지>에 나타내었다.

<표 3> 조사 도구 영역별 문항 내용

영역	내용	문항 유형
일반적 현황 (6 문항)	성별	명목척도
	학년	명목척도
	학교 소재지	명목척도
	학교 전체 학급수	명목척도
	학과 전공	명목척도
	학교 설립 형태	명목척도
학교 전반적 특성 (17 문항)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리커트 척도 (5단계)
	학교에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것	명목척도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	명목척도
	전공이 자신의 적성 일치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권리 보장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가정형편에 따른 학생 차별하지 않는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나의 생각이나 주장 표현에 대한 제한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활동 보장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규정 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학생 인권 보장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학교 건물과 교실 청소 상태	리커트 척도 (5단계)
	운동장 및 체육 시설 준비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도서관에 도서 구비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학교 주변 환경 청결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보통교과 교실 시설 및 기자재 준비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전문교과 시설 및 기자재 준비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수업 운영 및 과목 편성 (7 문항)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리커트 척도 (5단계)
	전문교과 수업 만족도	리커트 척도 (5단계)
	보통교과 수업, 전문교과 이론 수업시 희망하는 수업 방법	명목 척도
	전문교과 희망하는 수업 방법	명목 척도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수업 편성 정도	명목 척도
	희망 과목 개설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정도	리커트 척도 (5단계)
진로지도 관련 (3 문항)	취업지도에 대한 만족도	리커트 척도 (5단계)
	진학지도에 대한 만족도	리커트 척도 (5단계)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 진로	명목 척도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21년 7월 13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였다. 온라인 접속 주소를 포함한 연구 관련 안내사항은 전자 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교별 담당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1,26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18부를 제외한 1,248부를 분석하였다.
- 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6 통계 프로그램과 Microsoft 365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리커트 5점 척도 문항들은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수행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제외한 문항들은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II. 설문 조사 결과

1. 일반적 현황

□ 본 조사에 응답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변인	인원(명)	비율(%)
성별	남	583	46.7
	여	665	53.3
	합계	1,248	100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687	55.0
	시, 군 (동 지역)	425	34.1
	군 (읍, 면 지역)	136	10.9
	합계	1,248	100
학교 전체 학급수(규모) -특수학급 제외	12학급 이하	426	34.1
	13-30학급	661	53.0
	31학급 이상	161	12.9
	합계	1,248	100
학과 전공	경영·금융	332	26.6
	보건·복지	59	4.7
	디자인·문화 콘텐츠	88	7.1
	미용·관광·레저	63	5.0
	음식 조리·식품가공	147	11.8
	공업	379	30.4
	농림·수산 해양·선박운항	180	14.4
	합계	1,248	100
학교 설립 형태	국/공립	772	61.9
	사립	476	38.1
	합계	1,248	100

2. 학교 만족도 및 특성

가. 학교 만족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만족도는 평균 3.58점(표준편차 1.028)으로 나타났다.

<표 5> B1. 학교 만족도 결과 (N=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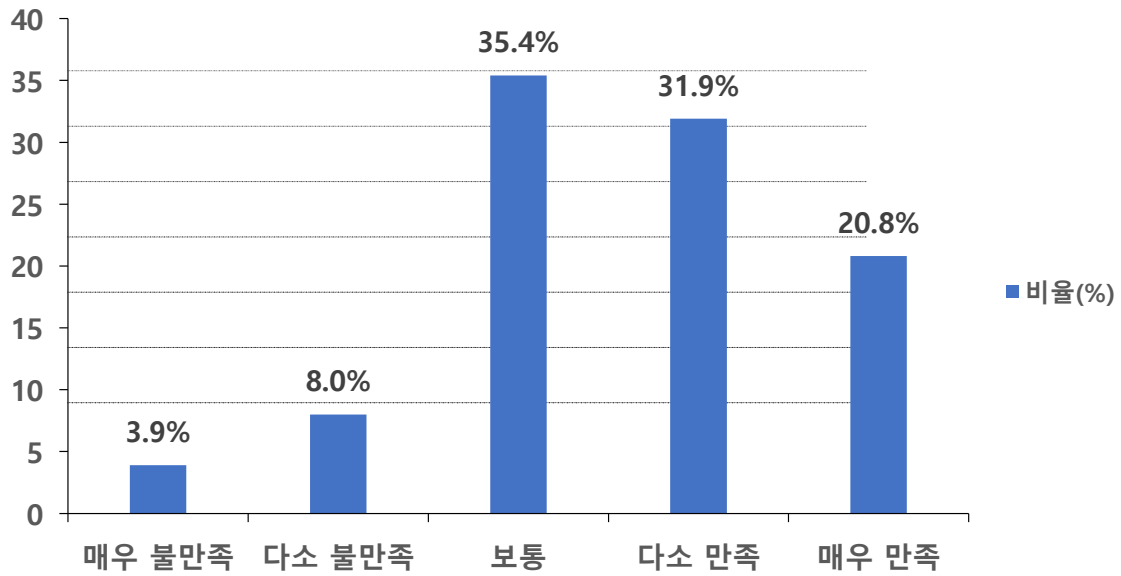
내용	평균	표준편차
귀하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58	1.028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만족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35.4%(442명), 다소 만족 31.9%(398명), 매우 만족 20.8%(259명), 다소 불만족 8.0%(100명), 매우 불만족 3.9%(4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B1. 학교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매우 불만족	49	3.9
② 다소 불만족	100	8.0
③ 보통	442	35.4
④ 다소 만족	398	31.9
⑤ 매우 만족	259	20.8
합계	1,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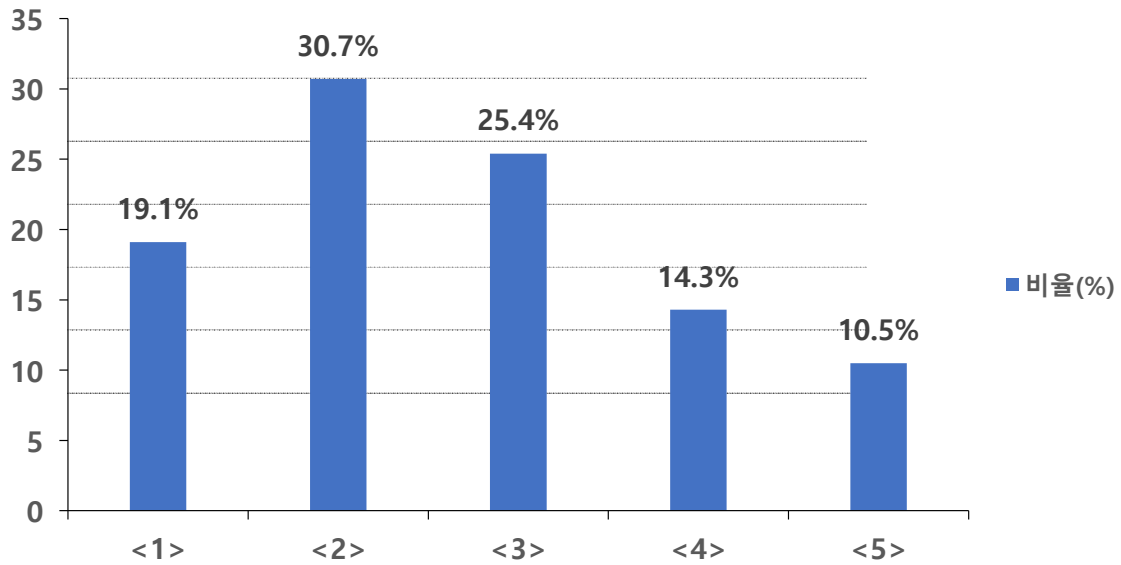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만족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 만족도에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를 문항 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학교생활 규정 및 규칙이 엄격해서’ 30.7%(64명), ‘교육여건(학교 위치 및 시설, 실습기자재 등)이 좋지 않아서’ 25.4%(53명),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19.1%(40명),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아서’ 14.3%(30명), 기타 10.5%(22명) 순이다.
- 기타 내용으로는 ‘불량한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융통성이 없고 보수적이어서’ 등이 있다.

<표 7> B1a. 학교에 불만족 이유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209)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40	19.1
② 학교생활 규정 및 규칙이 엄격해서	64	30.7
③ 교육여건(학교 위치 및 시설, 실습기자재 등)이 좋지 않아서	53	25.4
④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아서	30	14.3
⑤ 기타	22	10.5
합계	209	100



[그림 3] 학교 불만족 이유

주) 범주 설명

- 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② 학교생활 규정 및 규칙이 엄격해서
- ③ 교육여건(학교 위치 및 시설, 실습기자재 등)이 좋지 않아서
- ④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아서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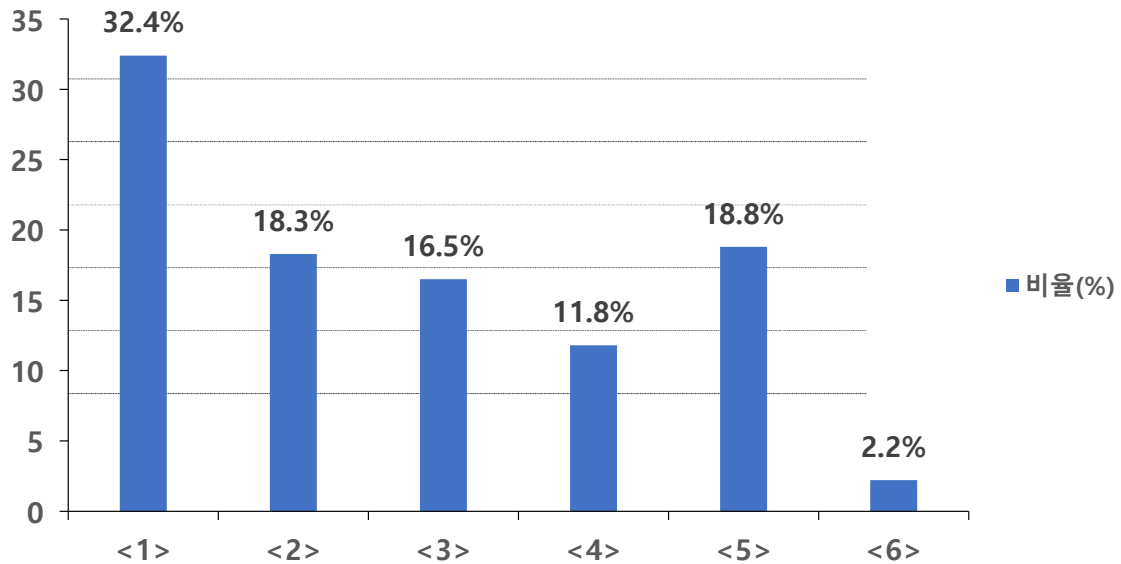
나. 학교에 요청 사항

-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2.4%(615명),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18.8%(356명),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18.3%(347명),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16.5%(313명),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11.8%(224명), 기타 2.2%(41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타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급식 개선’ 등이 있다.

<표 8> B2. 학교에 요청 사항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1,896)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615	32.4
②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47	18.3

③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313	16.5
④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224	11.8
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356	18.8
⑥ 기타	41	2.2
합계	1,896	100



[그림 4] 학교에 요청 사항

주) 범주 설명

- ①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②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③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 ④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 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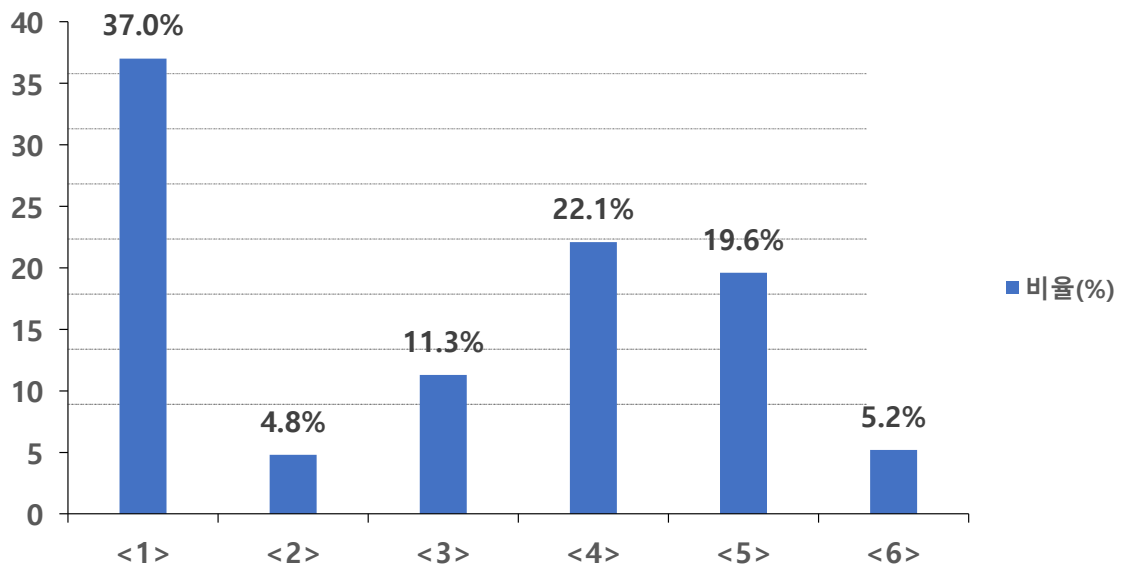
다. 학교생활 어려움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생활 어려움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이 없다’ 37.0%(563명),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엄격하다’ 22.1%(336명), ‘학교 규칙이 우리 세대 생활이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6%(298명), ‘수업 시간의 과제물이 많다’ 11.3%(171명), 기타 5.2%(79명), ‘성적을 강조한다’ 4.8%(74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진학보다 취업을 더 중요시 함’, ‘수행평가의 비율이 많음’, ‘등교의 어려움’ 등이 있다.

<표 9> B3. 학교생활 어려움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1,521)

내용	인원(명)	비율(%)
①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이 없다.	563	37.0
② 성적을 강조한다.	74	4.8
③ 수업 시간의 과제물이 많다.	171	11.3
④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엄격하다.	336	22.1
⑤ 학교 규칙이 우리 세대 생활이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98	19.6
⑥ 기타	79	5.2
합계	1,521	100



[그림 5] 학교생활 어려움

주) 범주 설명

- ①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이 없다.
- ② 성적을 강조한다.
- ③ 수업 시간의 과제물이 많다.
- ④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엄격하다.
- ⑤ 학교 규칙이 우리 세대 생활이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⑥ 기타

라. 전공(학과) 적성 일치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 정도는 평균 3.53점(표준편차 1.021)으로 나타났다.

<표 10> B4.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 결과 (N=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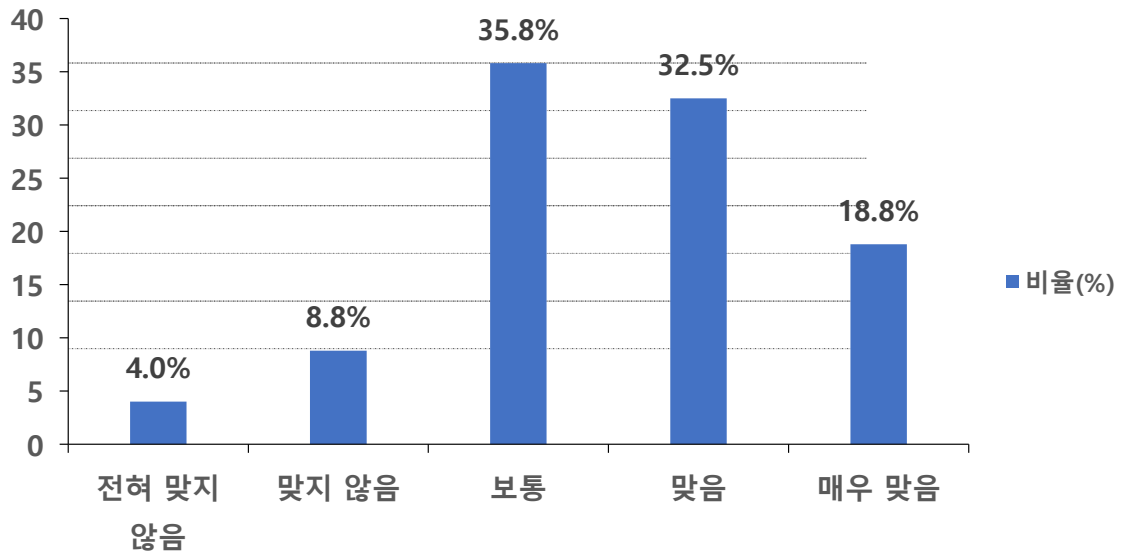
내용	평균	표준편차
현재 전공(학과)은 자신의 적성과 일치 정도	3.53	1.021

1점: 전혀 맞지 않음 ~ 5점: 매우 맞음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 정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35.8%(447명), 맞음 32.5%(406명), 매우 맞음 18.8%(235명), 맞지 않음 8.8%(110명), 전혀 맞지 않음 4.0%(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B4.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전혀 맞지 않음	50	4.0
② 맞지 않음	110	8.8
③ 보통	447	35.8
④ 맞음	406	32.5
⑤ 매우 맞음	235	18.8
합계	1,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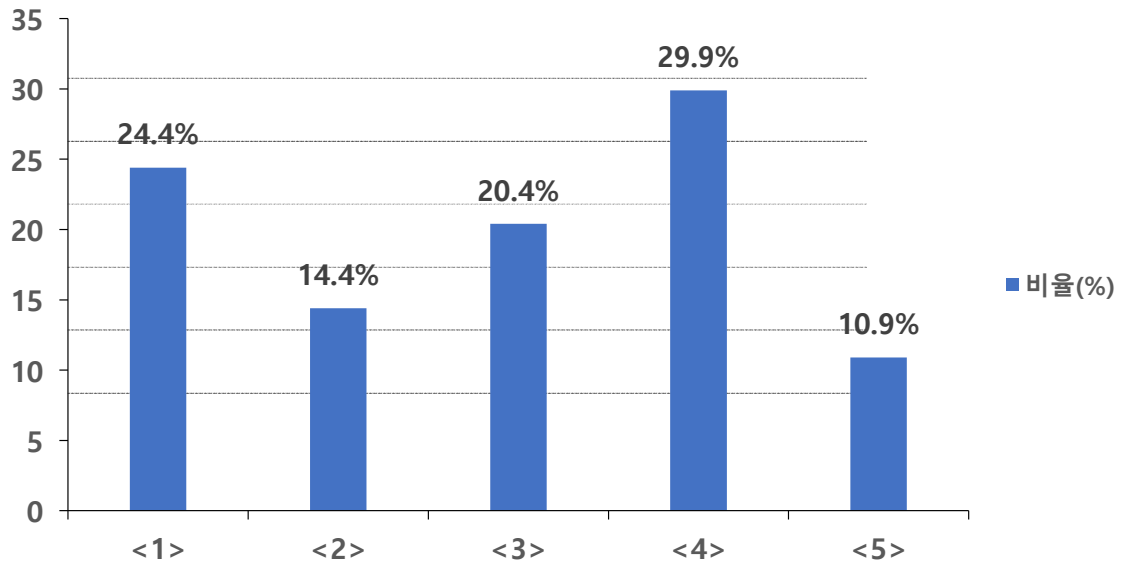


[그림 6]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

-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학과)과 적성 일치에 전혀 맞지 않음, 맞지 않음으로 응답한 이유를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내가 공부하려던 전공과 실제 공부하는 내용이 달라서’ 29.9%(60명), ‘성적에 따라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해서’ 24.4%(49명), ‘주변 사람(부모, 친구, 선생님 등)의 권유로 학과를 선택해서’ 20.4%(41명), ‘중학교에서 전공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서’ 14.4%(29명), 기타 10.9%(22명) 순이다.
- 기타 내용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왔음’, ‘학과 선택의 폭이 좁음’, ‘다녀 보니 적성에 맞지 않음’ 등이 있다.

<표 12> B4a. 전공(학과)과 맞지 않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201)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성적에 따라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해서	49	24.4
② 중학교에서 전공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서	29	14.4
③ 주변 사람(부모, 친구, 선생님 등)의 권유로 학과를 선택해서	41	20.4
④ 내가 공부하려던 전공과 실제 공부하는 내용이 달라서	60	29.9
⑤ 기타	22	10.9
합계	201	100



[그림 7] 전공(학과)과 적성 맞지 않은 이유

주) 범주 설명

- ① 성적에 따라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해서
- ② 중학교에서 전공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서
- ③ 주변 사람(부모, 친구, 선생님 등)의 권유로 학과를 선택해서
- ④ 내가 공부하려던 전공과 실제 공부하는 내용이 달라서
- ⑤ 기타

마. 학생 참여 권리 보장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 참여 권리 보장 정도는 평균 3.48점(표준편차 0.897)으로 나타났다.

<표 13> B5. 학생 참여 권리 보장 결과 (N=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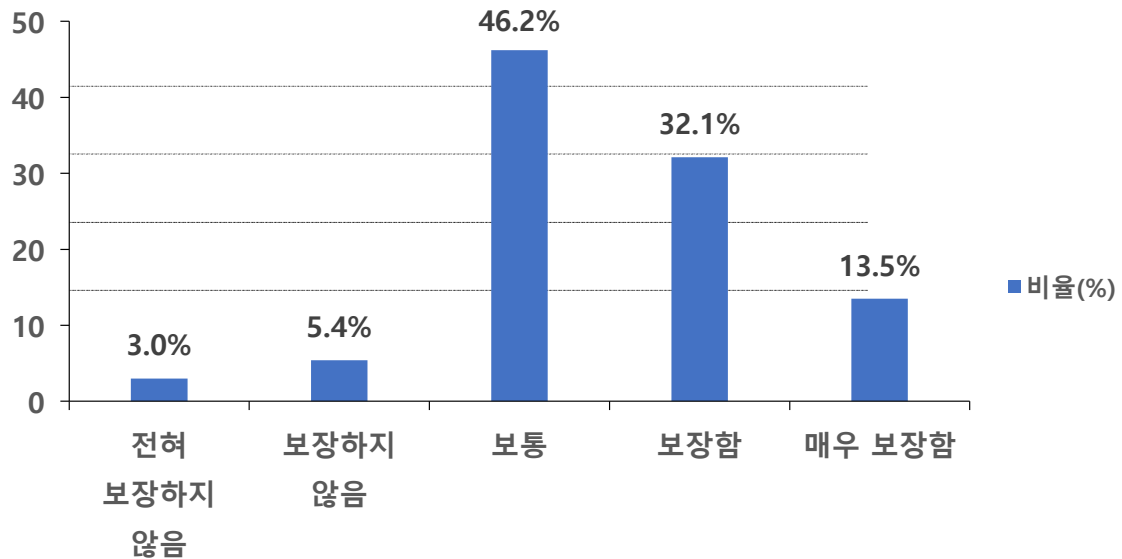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참여 권리 보장 정도	3.48	.897

1점: 전혀 보장하지 않음 ~ 5점: 매우 보장함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 참여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46.4%(583명), 보장함 31.9%(401명), 매우 보장함 13.5%(169명), 보장하지 않음 5.3%(67명), 전혀 보장하지 않음 2.9%(3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B5. 학생 참여 권리 보장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전혀 보장하지 않음	37	3.0
② 보장하지 않음	67	5.4
③ 보통	576	46.2
④ 보장함	400	32.1
⑤ 매우 보장함	168	13.5
합계	1,248	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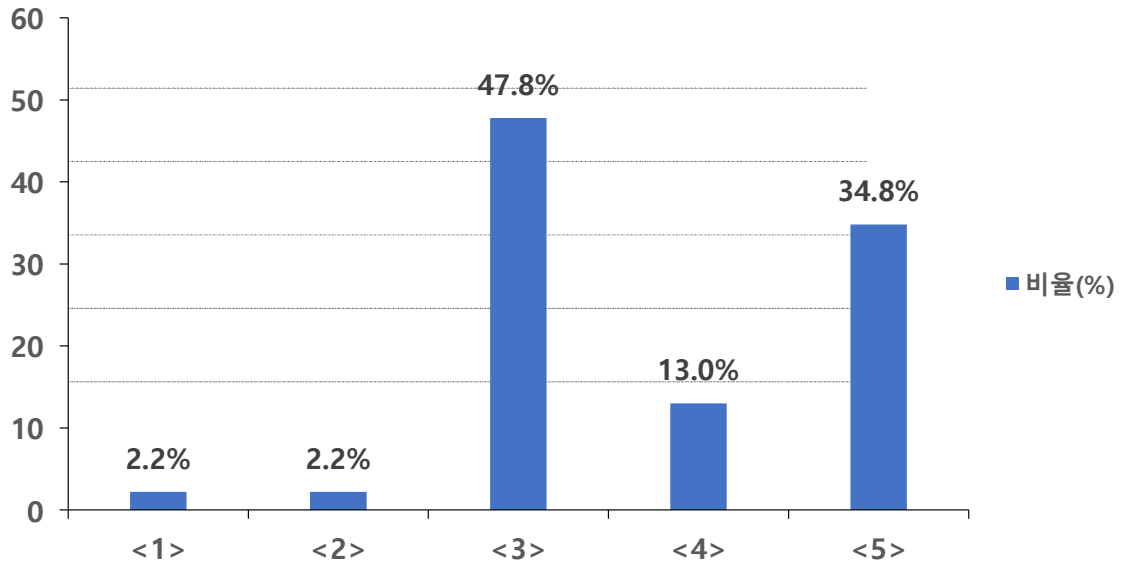
[그림 8] 학생 참여 권리 보장

-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생 참여 권리 보장에 전혀 보장하지 않음, 보장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이유를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학교에서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아서’ 47.8%(66명), ‘학생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34.8%(48명),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3.0%(18명), ‘학습활동의 부담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및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해서’ 각각 2.2%(3명) 순이다.

<표 15> B5a. 학생 참여 권리 보장하지 않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13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학습활동의 부담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3	2.2

②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해서	3	2.2
③ 학교에서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아서	66	47.8
④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8	13.0
⑤ 학생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48	34.8
합계	138	100



[그림 9] 학생 참여 권리 보장하지 않는 이유

주) 범주 설명

- ① 학습활동의 부담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 ②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해서
- ③ 학교에서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아서
- ④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⑤ 학생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바. 학교 특성, 문화, 시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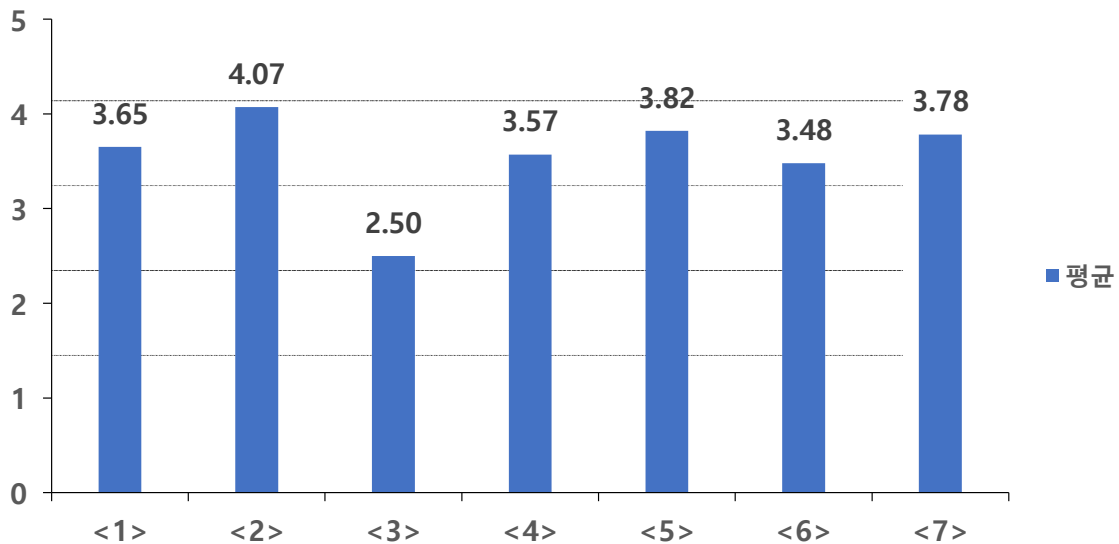
□ 특성화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특성/문화 인식 정도는 평균 3.55점(표준편차 1.017)으로 나타났다.

<표 16> B6. 학교 특성/문화 인식 결과 (N=1,248)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학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3.65	1.039

(2) 학교에서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4.07	.973
(3)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 학교나 선생님께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았다.	2.50	1.201
(4) 학교신문,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3.57	.967
(5) 학교는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3.82	.940
(6) 학교는 규칙이나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3.48	1.077
(7)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3.78	.920
평균	3.55	1.017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그림 10] 학교 특성/문화 인식

주) 범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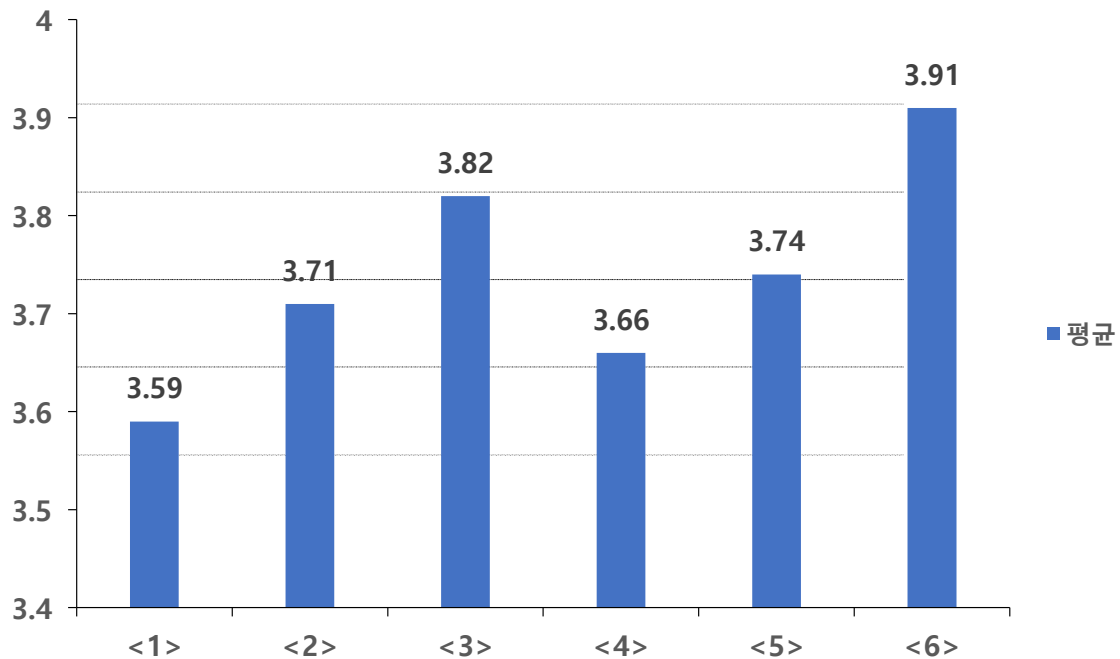
- (1) 학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 (2) 학교에서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 (3)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 학교나 선생님께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았다.
- (4) 학교신문,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 (5) 학교는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6) 학교는 규칙이나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7)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 특성화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시설 인식 정도는 평균 3.74점(표준편차 0.969)으로 나타났다.

<표 17> B6. 학교 시설 인식 결과 (N=1,248)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학교 건물과 교실의 상태가 깨끗하고 좋다.	3.59	.989
(2) 운동장 및 체육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3.71	.994
(3) 학교 도서실(관)에 읽을 책이 충분하다.	3.82	.950
(4) 학교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좋다.	3.66	.987
(5) 보통교과 교실(과학실, 영어교실, 음악실, 미술실 등) 시설, 기자재 등을 잘 갖추고 있다.	3.74	.955
(6) 전문교과 실습실, 기자재 등을 잘 갖추고 있다.	3.91	.937
평균	3.74	.969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그림 11] 학교 시설 인식

주) 범주 설명

- (1) 학교 건물과 교실의 상태가 깨끗하고 좋다.
- (2) 운동장 및 체육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 (3) 학교 도서실(관)에 읽을 책이 충분하다.
- (4) 학교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좋다.
- (5) 보통교과 교실(과학실, 영어교실, 음악실, 미술실 등) 시설, 기자재 등을 잘 갖추고 있다.
- (6) 전문교과 실습실, 기자재 등을 잘 갖추고 있다.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목 편성 및 수업 운영)

가.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보통 교과 수업 만족도는 평균 3.68점(표준편차 0.824)으로 나타났다.

<표 18> C1.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결과 (N=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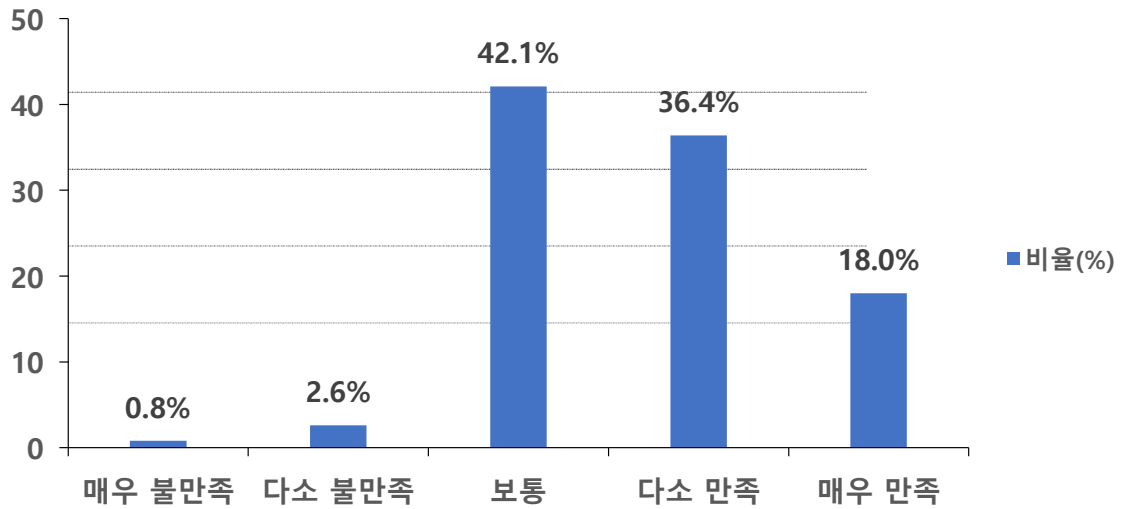
내용	평균	표준편차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3.68	.824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보통 교과 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42.1%(526명), 다소 만족 36.4%(454명), 매우 만족 18.0%(225명), 다소 불만족 2.6%(33명), 매우 불만족 0.8%(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C1.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매우 불만족	10	0.8
② 다소 불만족	33	2.6
③ 보통	526	42.1
④ 다소 만족	454	36.4
⑤ 매우 만족	225	18.0
합계	1,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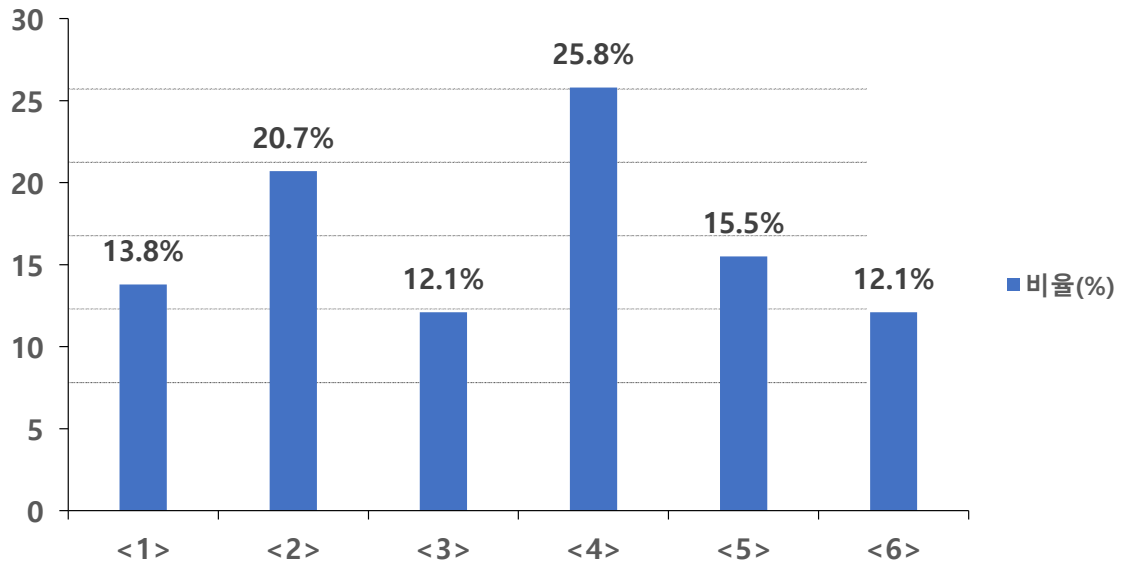


[그림 12]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에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를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선생님이 해당 교과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25.8%(15명),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20.7%(12명), ‘전공과의 연계성이 낮아서’ 15.5%(9명),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13.8%(8명), ‘수업을 듣기에는 나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및 기타 각각 12.1%(7명) 순이다.
- 기타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내용만 배워서’, ‘선생님이 대충 설명해서’ 등이 있다.

<표 20> C1a. 보통교과 수업 불만족 이유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5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교과서나 학습자료의 내용이 어려워서)	8	13.8
②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12	20.7
③ 수업을 듣기에는 나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7	12.1
④ 선생님이 해당 교과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15	25.8
⑤ 전공과의 연계성이 낮아서(예: 무역영어, 노동법을 포함한 사회과목 등)	9	15.5
⑥ 기타	7	12.1
합계	58	100



[그림 13] 보통교과 수업 불만족 이유

주) 범주 설명

- 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교과서나 학습자료의 내용이 어려워서)
- ②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 ③ 수업을 듣기에는 나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 ④ 선생님이 해당 교과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 ⑤ 전공과의 연계성이 낮아서(예: 무역영어, 노동법을 포함한 사회과목 등)
- ⑥ 기타

나. 전문교과 수업 만족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전문 교과 수업 만족도는 평균 3.78점(표준편차 0.907)으로 나타났다.

<표 21> C2. 전문교과 수업 만족도 결과 (N=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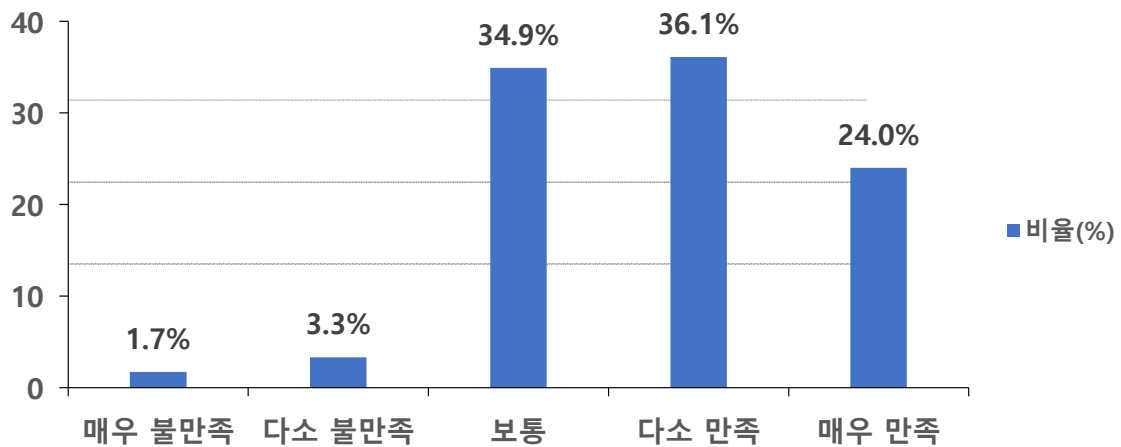
내용	평균	표준편차
전문교과 수업 만족도	3.78	.907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전문 교과 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다소 만족 36.1%(451명), 보통 34.9%(435명), 매우 만족 24.0%(300명), 다소 불만족 3.3%(41명), 매우 불만족 1.7%(2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C2. 전문교과 수업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매우 불만족	21	1.7
② 다소 불만족	41	3.3
③ 보통	435	34.9
④ 다소 만족	451	36.1
⑤ 매우 만족	300	24.0
합계	1,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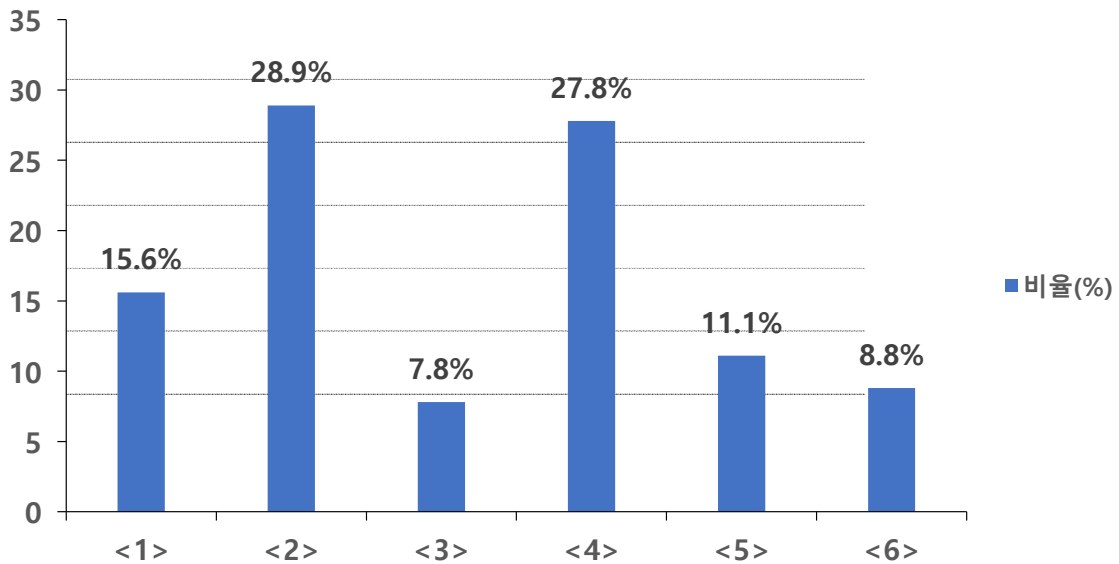
[그림 14] 전문 교과 수업 만족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 교과 수업 만족도에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를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28.9%(26명), ‘선생님이 해당 교과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27.8%(25명),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15.6%(14명), ‘전문교과가 취업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11.1%(10명), 기타 8.8%(8명), ‘수업을 듣기에는 나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7.8%(7명) 순이다.
- 기타 내용으로는 ‘선생님이 대충 설명해서’, ‘내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어서’, ‘교과서가 보기 어려워서’ 등이 있다.

<표 23> C2a. 전문 교과 수업 불만족 이유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90)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교과서나 학습자료의 내용이 어려워서)	14	15.6

②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26	28.9
③ 수업을 듣기에는 나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7	7.8
④ 선생님이 해당 교과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25	27.8
⑤ 전문교과가 취업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10	11.1
⑥ 기타	8	8.8
합계	90	100



[그림 15] 전문 교과 수업 불만족 이유

주) 범주 설명

- 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교과서나 학습자료의 내용이 어려워서)
- ②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 ③ 수업을 듣기에는 나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 ④ 선생님이 해당 교과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 ⑤ 전문교과가 취업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 ⑥ 기타

다. 이론 수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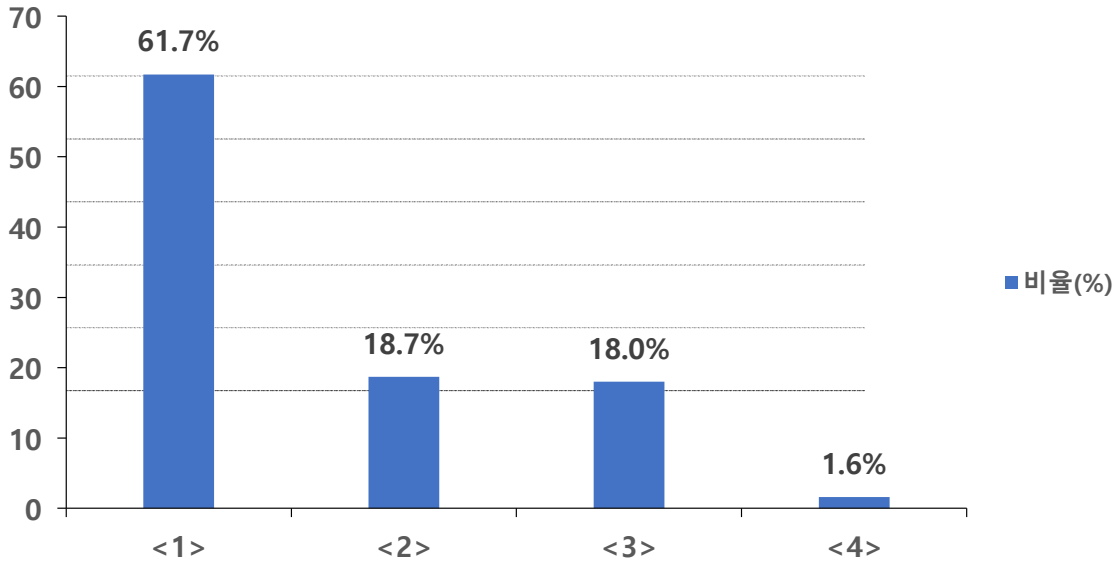
□ 특성화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이론 수업 방법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선생님이 주로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 61.7%(924명), ‘학생 상호간에 서로 질문하고 답하여 학습하는 토의토론식 수업’ 18.7%(281명), ‘모둠(소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협동식 수업’ 18.0%(269명), 기타 1.6%(24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잘 되는 수업’, ‘자유로운 수업’ 등

이 있다.

<표 24> C3. 희망하는 이론 수업 방법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1,49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선생님이 주로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	924	61.7
② 학생 상호간에 서로 질문하고 답하여 학습하는 토의토론식 수업	281	18.7
③ 모듈(소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협동식 수업	269	18.0
④ 기타	24	1.6
합계	1,498	100



[그림 16] 희망하는 이론 수업 방법

주) 범주 설명

- ① 선생님이 주로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
- ② 학생 상호간에 서로 질문하고 답하여 학습하는 토의토론식 수업
- ③ 모듈(소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협동식 수업
- ④ 기타

라. 실습 수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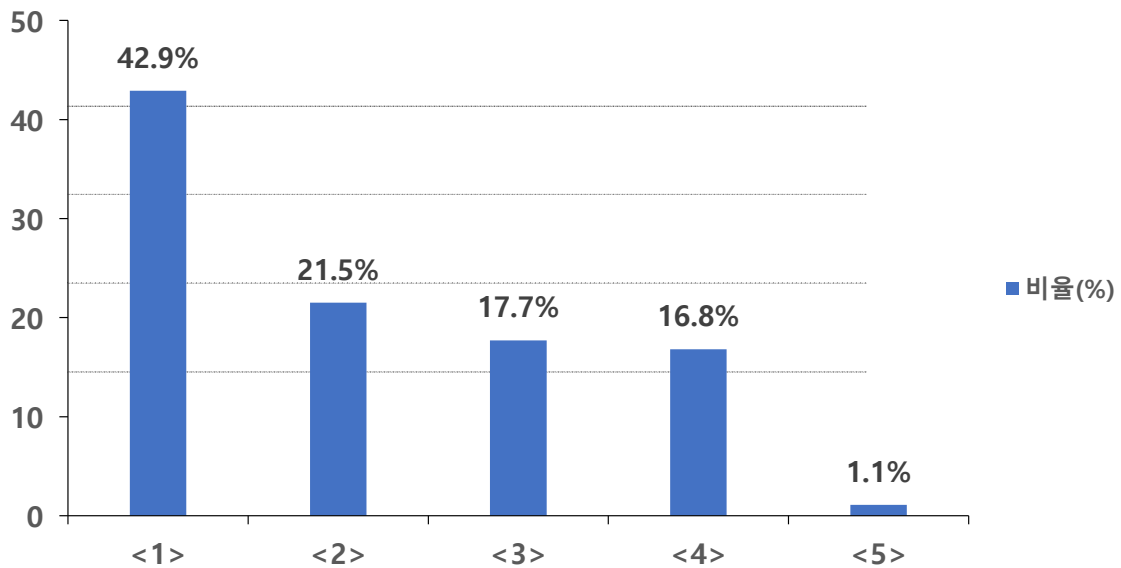
□ 특성화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실습 수업 방법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학생은 실습을 수행하는 수업’ 42.9%(712명), ‘학생 스스로 능력에 맞게 개별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모듈식 수업’ 21.5%(357명), ‘학생 상호간에 학습 활

등을 통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식 수업’ 17.7%(295명), ‘기업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실습 과제로 수행하는 수업’ 16.8%(279명), 기타 1.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팀 활동을 동반한 프로젝트 수업’, ‘선생님의 도움을 최소로 하는 학생 위주의 실습 수업’ 등이 있다.

<표 25> C4. 희망하는 실습 수업 방법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1,661)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학생은 실습을 수행하는 수업	712	42.9
② 학생 스스로 능력에 맞게 개별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모듈식 수업	357	21.5
③ 학생 상호간에 학습 활동을 통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식 수업	295	17.7
④ 기업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실습 과제로 수행하는 수업	279	16.8
⑤ 기타	18	1.1
합계	1,661	100



[그림 17] 희망하는 실습 수업 방법

주) 범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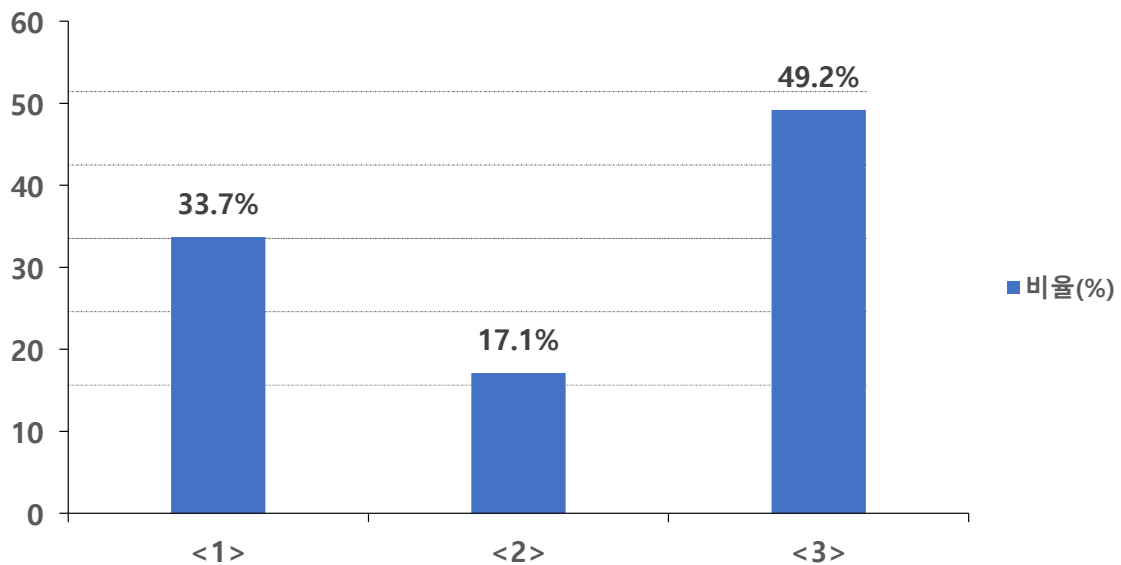
- ①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학생은 실습을 수행하는 수업
- ② 학생 스스로 능력에 맞게 개별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모듈식 수업
- ③ 학생 상호간에 학습 활동을 통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식 수업
- ④ 기업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실습 과제로 수행하는 수업
- ⑤ 기타

마.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편성

□ 특성화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문교과와 보통교과의 편성 시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 (인원 수)은 ‘현재의 상태가 좋음’ 49.2%(615명), ‘전문교과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33.7%(420명), ‘보통교과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17.1%(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C5. 희망하는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편성 시간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전문교과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420	33.7
② 보통교과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213	17.1
③ 현재의 상태가 좋음	615	49.2
합계	1,248	100



[그림 18] 희망하는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편성 시간

주) 범주 설명

- ① 전문교과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 ② 보통교과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 ③ 현재의 상태가 좋음

바. 과목 개설

□ 특성화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 정도는 평균 3.31점(표준편차 0.840)으로 나타났다.

<표 27> C6. 희망 과목 개설 정도 결과 (N=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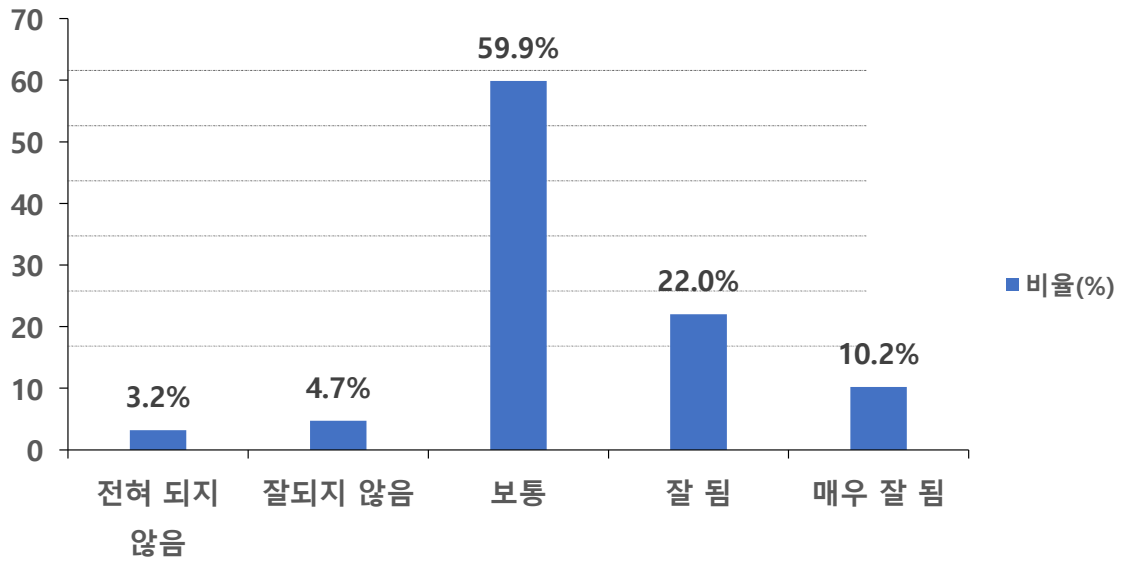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 개설 정도	3.31	.840

1점: 전혀 되지 않음 ~ 5점: 매우 잘 됨

□ 특성화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59.9%(747명), 잘 됨 22.0%(275명), 매우 잘 됨 10.2%(127명), 잘되지 않음 4.7%(59명), 전혀 되지 않음 3.2%(4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C6. 희망 과목 개설 빈도분석 결과 (N=1,249)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전혀 되지 않음	40	3.2
② 잘되지 않음	59	4.7
③ 보통	747	59.9
④ 잘 됨	275	22.0
⑤ 매우 잘 됨	127	10.2
합계	1,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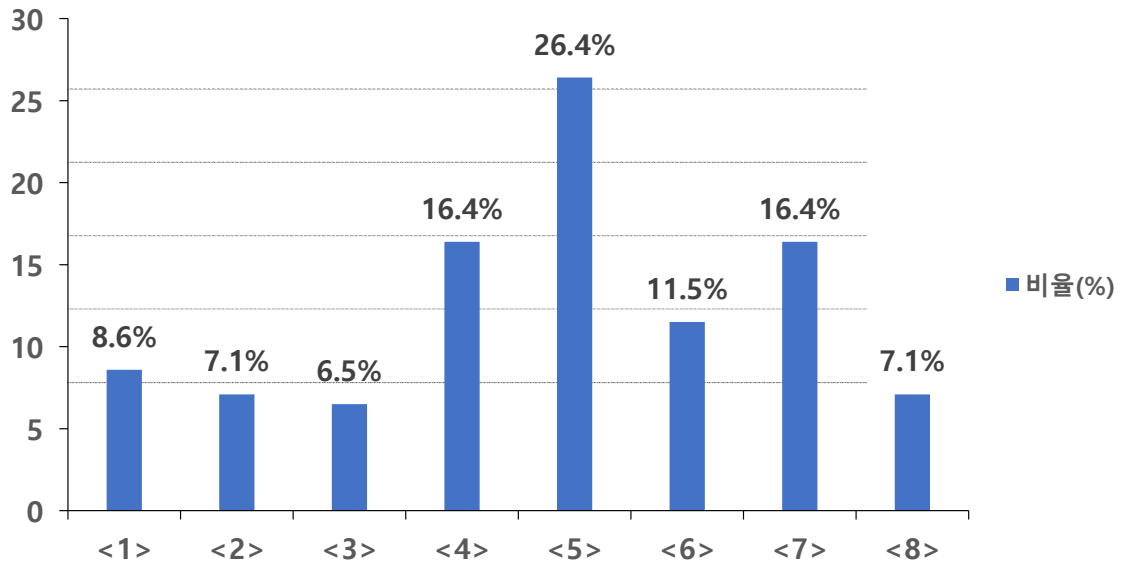


[그림 19] 희망 과목 개설

- 특성화고 학생들이 희망하지만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비율(인원 수)은 예술, 체육 26.4%(37명), 제2 외국어 및 전공 각각 16.4%(23명), 교양 11.5%(16명), 국, 영, 수 8.6%(12명), 사회탐구 및 기타 각각 7.1%(10명), 과학탐구 6.5%(9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역사, 의류, 더 자유로운 예술 등이 있다.

<표 29> C6a. 희망 과목 중 미개설 과목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140)

내용	인원(명)	비율(%)
① 국어, 영어, 수학 관련 과목	12	8.6
② 사회탐구 관련 과목	10	7.1
③ 과학탐구 관련 과목	9	6.5
④ 제2외국어 관련 과목	23	16.4
⑤ 예술, 체육 관련 과목	37	26.4
⑥ 교양 관련 과목	16	11.5
⑦ 전공 관련 과목	23	16.4
⑧ 기타	10	7.1
합계	140	100



[그림 20] 희망 과목 중 미개설 과목

주) 범주 설명

- ① 국어, 영어, 수학 관련 과목
- ② 사회탐구 관련 과목
- ③ 과학탐구 관련 과목
- ④ 제2외국어 관련 과목
- ⑤ 예술, 체육 관련 과목
- ⑥ 교양 관련 과목
- ⑦ 전공 관련 과목
- ⑧ 기타

사. 타학과 전공 학습

특성화고 학생들이 타학과 전공을 학습하길 희망하는 정도는 평균 3.25점(표준편차 0.949)으로 나타났다.

<표 30> C7.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정도 결과 (N=1,248)

내용	평균	표준편차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정도	3.25	.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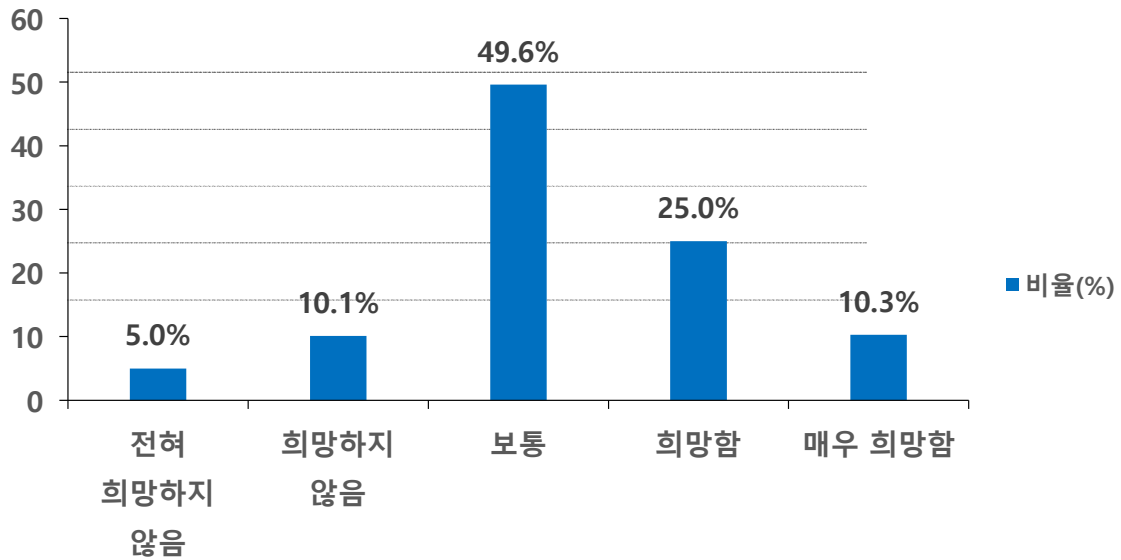
1점: 전혀 희망하지 않음 ~ 5점: 매우 희망함

특성화고 학생들이 타학과 전공을 학습하길 희망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

원 수)은 보통 49.6%(619명), 희망함 25.0%(312명), 매우 희망함 10.3%(128명), 희망하지 않음 10.1%(126명), 전혀 희망하지 않음 5.0%(6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C7.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정도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전혀 희망하지 않음	63	5.0
② 희망하지 않음	126	10.1
③ 보통	619	49.6
④ 희망함	312	25.0
⑤ 매우 희망함	128	10.3
합계	1,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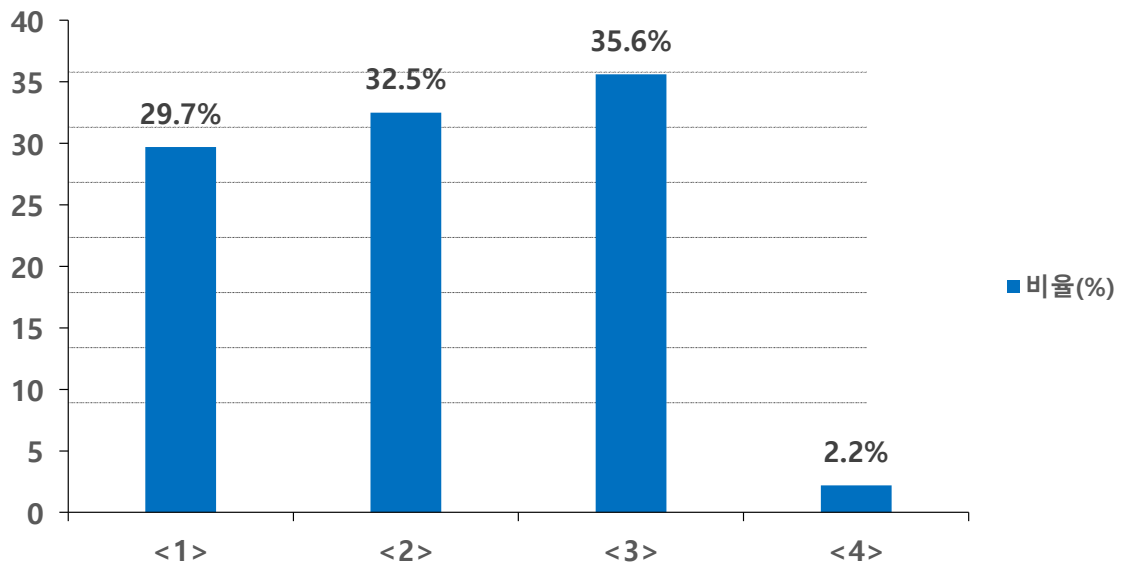


[그림 21]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정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타학과 전공을 학습하길 희망하는 정도에 전혀 희망하지 않음, 희망하지 않음이라 응답한 이유를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타학과 전공을 학습할 필요성이 없어서’ 35.6%(79명), ‘현재 전공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서’ 32.5%(73명), ‘현재 전공만을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29.7%(66명), 기타 2.2%(5명) 순이다.
- 기타 내용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가 있다.

<표 32> C7a.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하지 않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222)

내용	인원(명)	비율(%)
① 현재 전공만을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66	29.7
② 현재 전공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서	72	32.5
③ 타학과 전공을 학습할 필요성이 없어서	79	35.6
④ 기타	5	2.2
합계	222	100



[그림 22]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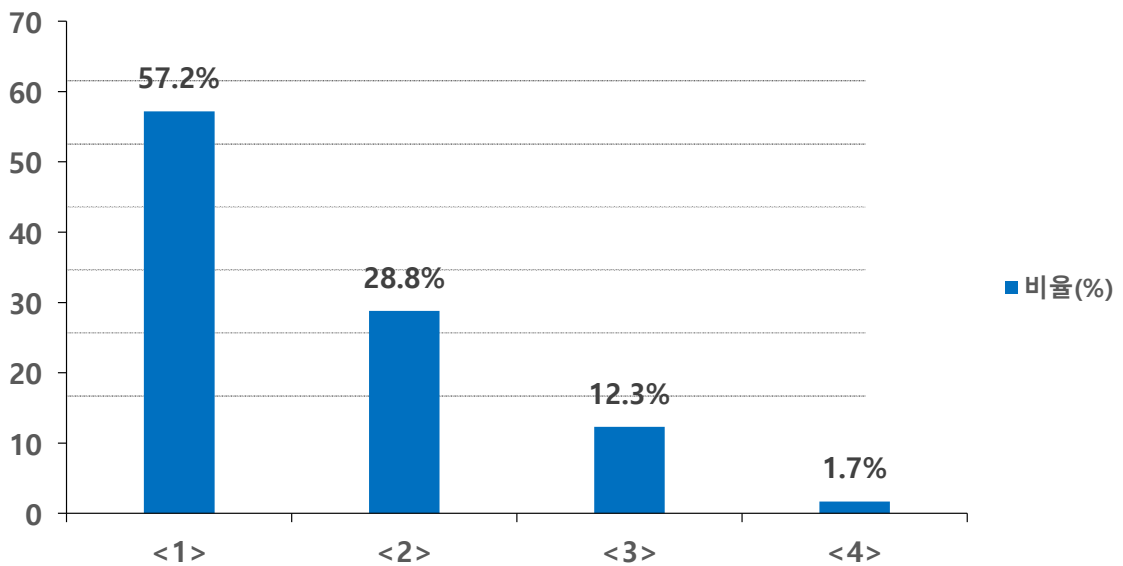
주) 범주 설명

- ① 현재 전공만을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 ② 현재 전공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서
- ③ 타학과 전공을 학습할 필요성이 없어서
- ④ 기타

- 특성화고 학생들이 타학과 전공을 학습하길 희망하는 정도에 희망함, 매우 희망함이라 응답한 이유를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다양한 전공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57.2%(340명), ‘2개의 전공을 학습하고 싶어서’ 28.8%(170명), ‘현재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12.3%(73명), 기타 1.7%(10명) 순이다.
- 기타 내용으로는 ‘소속 학교의 학과가 너무 적어서’, ‘성적에 따라 전공이 갈리므로’, ‘다른것도 해보고 싶어서’ 등이 있다.

<표 33> C7b.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하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593)

내용	인원(명)	비율(%)
① 다양한 전공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340	57.2
② 2개의 전공을 학습하고 싶어서(복수전공을 하고 싶어서)	170	28.8
③ 현재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73	12.3
④ 기타	10	1.7
합계	593	100



[그림 23] 타학과 전공 학습 희망 이유

주) 범주 설명

- ① 다양한 전공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 ② 2개의 전공을 학습하고 싶어서(복수전공을 하고 싶어서)
- ③ 현재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④ 기타

4. 진로지도

가. 취업지도 만족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취업지도 만족도는 평균 3.62점(표준편차 0.870)으로 나타났다.

<표 34> D1. 취업지도 만족도 결과 (N=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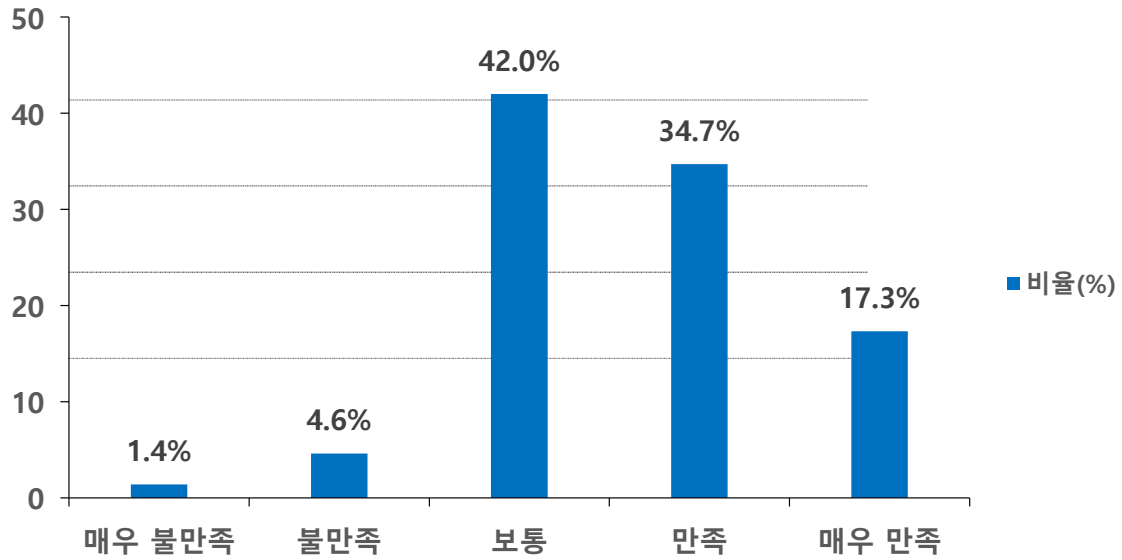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학교가 지원하는 취업지도에 대한 만족도	3.62	.870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취업지도 만족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42.0%(524명), 만족 34.7%(433명), 매우 만족 17.3%(216명), 불만족 4.6%(58명), 매우 불만족 1.4%(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D1. 취업지도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매우 불만족	17	1.4
② 불만족	58	4.6
③ 보통	524	42.0
④ 만족	433	34.7
⑤ 매우 만족	216	17.3
합계	1,248	100



[그림 24] 취업지도 만족도

나. 진학지도 만족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진학지도 만족도는 평균 3.46점(표준편차 0.926)으로 나타났다.

<표 36> D2. 진학지도 만족도 결과 (N=1,248)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학교가 지원하는 진학지도에 만족도	3.46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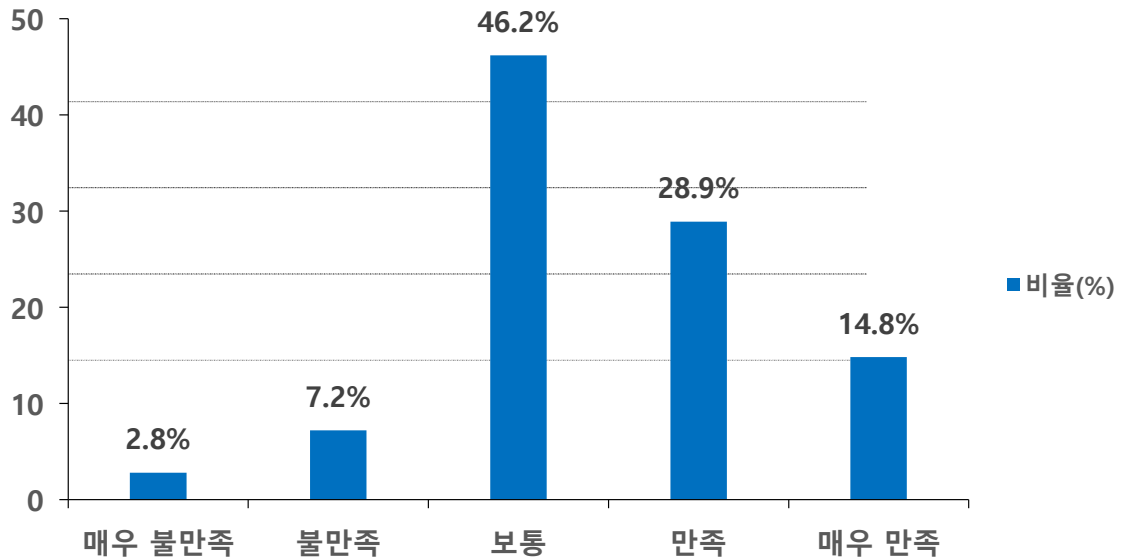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진학지도 만족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46.2%(577명), 만족 28.9%(361명), 매우 만족 14.8%(185명), 불만족 7.2%(90명), 매우 불만족 2.8%(3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D2. 진학지도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매우 불만족	35	2.8
② 불만족	90	7.2

③ 보통	577	46.2
④ 만족	361	28.9
⑤ 매우 만족	185	14.8
합계	1,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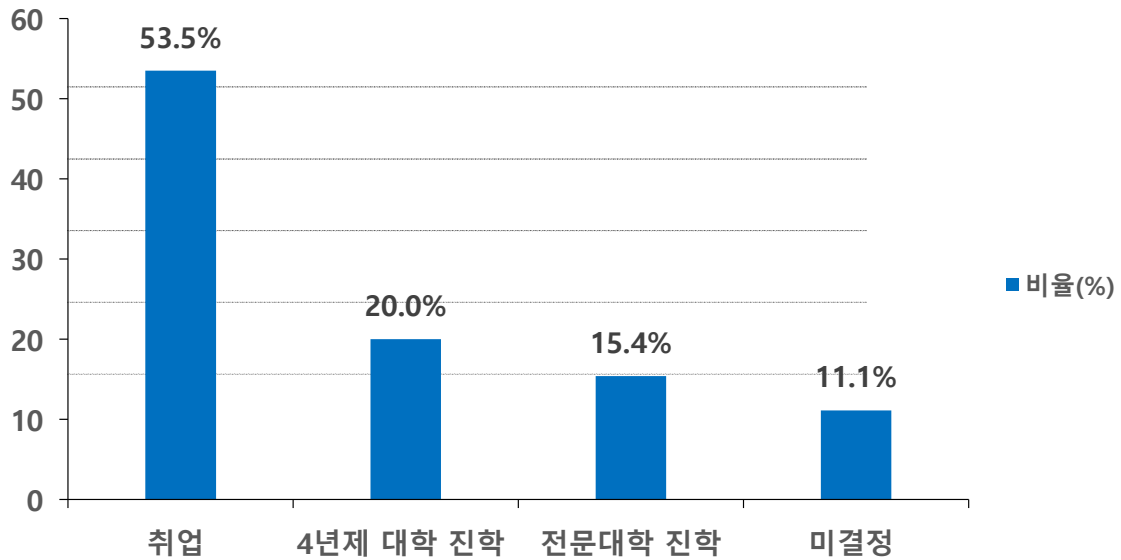
[그림 25] 진학지도 만족도

다. 졸업 후 희망 진로

□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취업 53.5%(668명), 4년제 대학 진학 20.0%(249명), 전문대학 진학 15.4%(192명), 미결정 11.1%(13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D3. 졸업 후 희망 진로 빈도분석 결과 (N=1,24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취업	668	53.5
② 4년제 대학 진학	249	20.0
③ 전문대학 진학	192	15.4
④ 미결정	139	11.1
합계	1,248	100



[그림 26] 졸업 후 희망 진로

라.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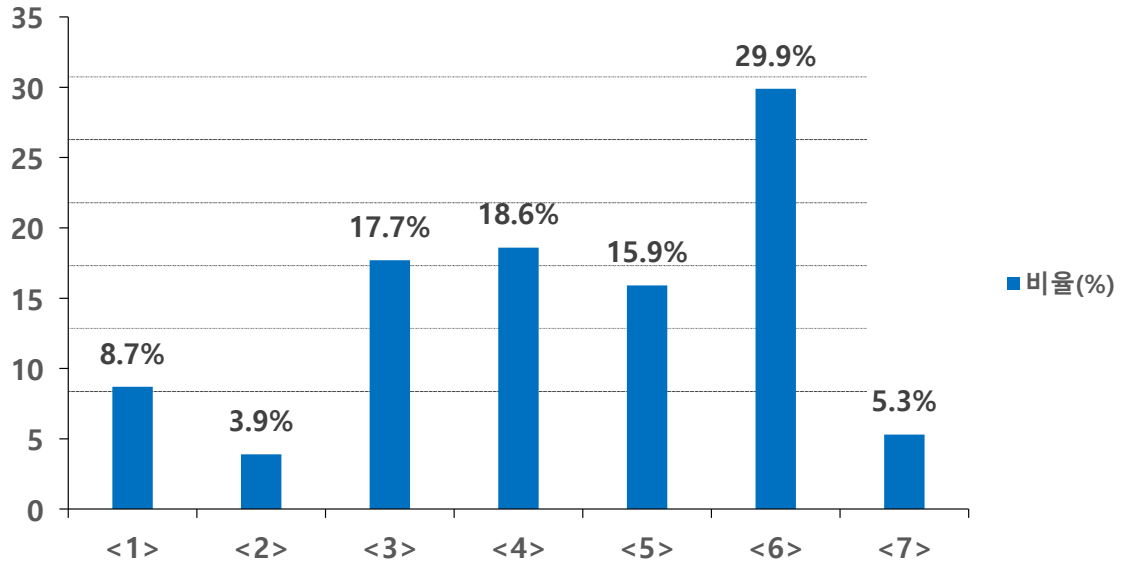
□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선취업 후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서’ 29.9%(200명), ‘하고자 하는 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8.6%(124명),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17.7%(118명), ‘대학진학 공부보다 기술, 전문교육에 더 관심이 많아서’ 15.9%(106명),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8.7%(58명), 기타 5.3%(36명),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3.9%(26명) 순이다.

□ 기타 내용으로는 ‘빨리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등이 있다.

<표 39> D3a1.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빈도분석 결과 (N=66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58	8.7
②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26	3.9
③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118	17.7
④ 하고자 하는 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24	18.6
⑤ 대학진학 공부보다 기술, 전문교육에 더 관심이 많아서	106	15.9

⑥ 선취업 후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서	200	29.9
⑦ 기타	36	5.3
합계	668	100



[그림 27]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주) 범주 설명

- 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 ②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 ③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 ④ 하고자 하는 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 ⑤ 대학진학 공부보다 기술, 전문교육에 더 관심이 많아서
- ⑥ 선취업 후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서
-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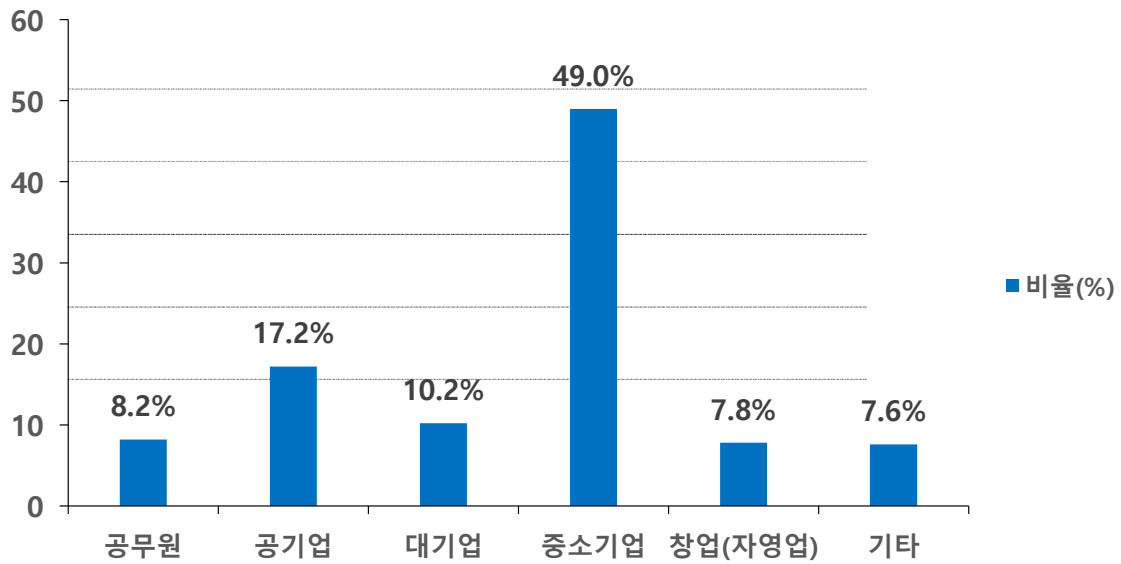
□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시 희망하는 취업처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중소기업 49.0%(327명), 공기업 17.2%(115명), 대기업 10.2%(68명), 공무원 8.2%(55명), 창업(자영업) 7.8%(52명), 기타 7.6%(51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중견기업, 직업 군인 등이 있다.

<표 40> D3a2. 취업 시 희망 취업처 빈도분석 결과 (N=66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공무원	55	8.2

② 공기업	115	17.2
③ 대기업	68	10.2
④ 중소기업	327	49.0
⑤ 창업(자영업)	52	7.8
⑥ 기타	51	7.6
합계	6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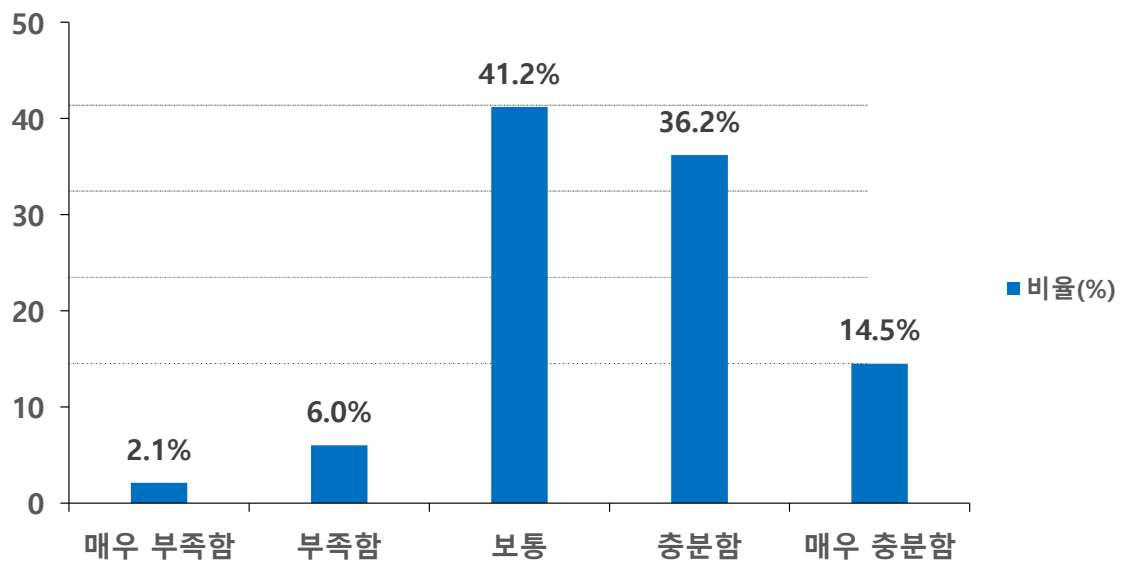


[그림 28] 취업 시 희망하는 취업처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정규 과목 편성이 취업 준비에 충분한 정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41.2%(275명), 충분함 36.2%(242명), 매우 충분함 14.5%(97명), 부족함 6.0%(40명), 매우 부족함 2.1%(1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D3a3. 정규 과목 편성의 취업 준비 대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N=66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매우 부족함	14	2.1
② 부족함	40	6.0
③ 보통	275	41.2
④ 충분함	242	36.2
⑤ 매우 충분함	97	14.5
합계	6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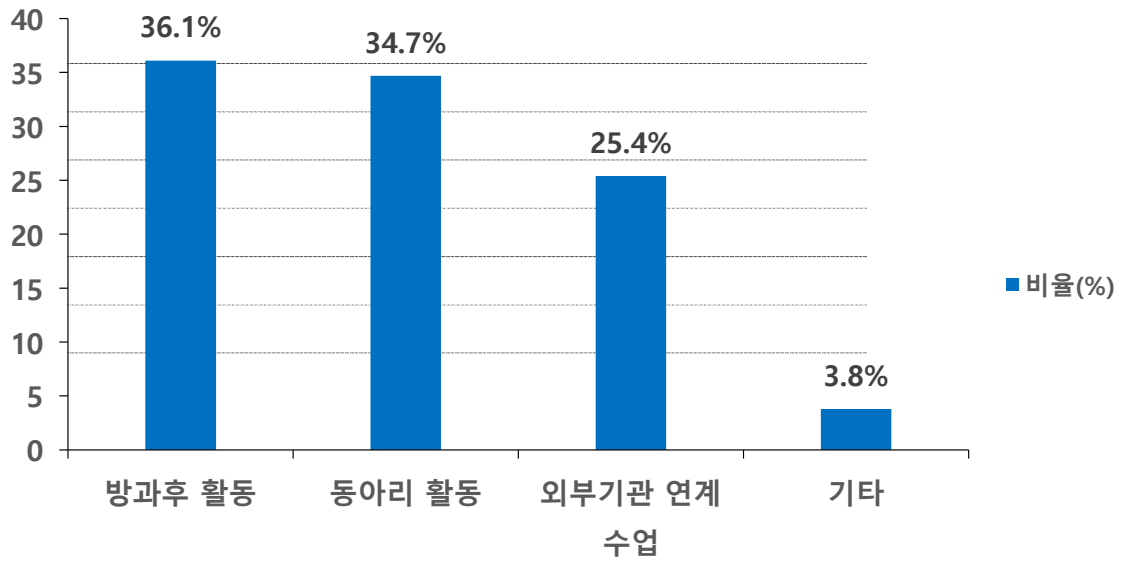
[그림 29] 정규 과목 편성이 취업 준비에 충분한 정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방과후 활동 36.1%(564명), 동아리 활동 34.7%(542명), 외부기관 연계 수업 25.4%(396명), 기타 3.8%(59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특강이 있다.

<표 42> D3a4.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1,561)

내용	개설 여부	
	인원(명)	비율(%)
① 방과후 활동	564	36.1
② 동아리 활동	542	34.7
③ 외부기관 연계 수업	396	25.4
④ 기타	59	3.8
합계	1,56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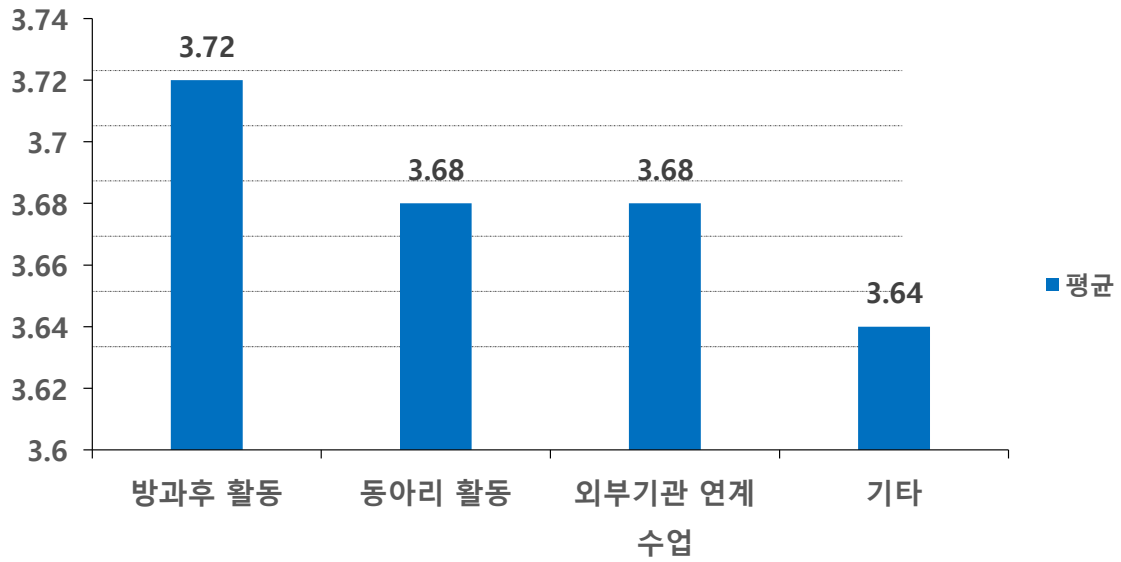
[그림 30]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의 준비 정도에 대한 문항별 평균(표준편차)은 방과후 활동 3.72점(1.042), 동아리 활동 3.68점(1.065), 외부기관 연계 수업 3.68점(1.027), 기타 3.64점(1.2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D3a4.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준비 정도 결과 (중복응답) (N=1,561)

내용	준비 정도	
	평균	표준편차
① 방과후 활동	3.72	1.042
② 동아리 활동	3.68	1.065
③ 외부기관 연계 수업	3.68	1.027
④ 기타	3.64	1.213
평균	3.68	1.089

1점: 매우 부족함 ~ 5점: 매우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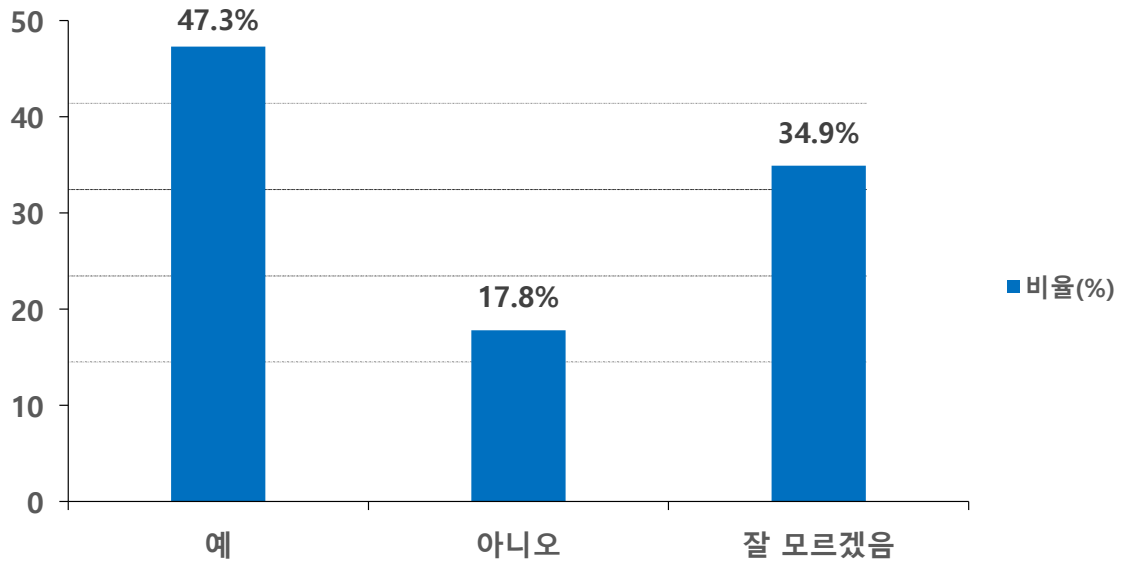


[그림 31] 정규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 준비 정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예’ 47.3%(316명), ‘잘 모르겠음’ 34.9%(233명), ‘아니오’ 17.8%(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D3a5. 취업 후 대학 진학 계획 빈도분석 결과 (N=66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예	316	47.3
② 아니오	119	17.8
③ 잘 모르겠음	233	34.9
합계	6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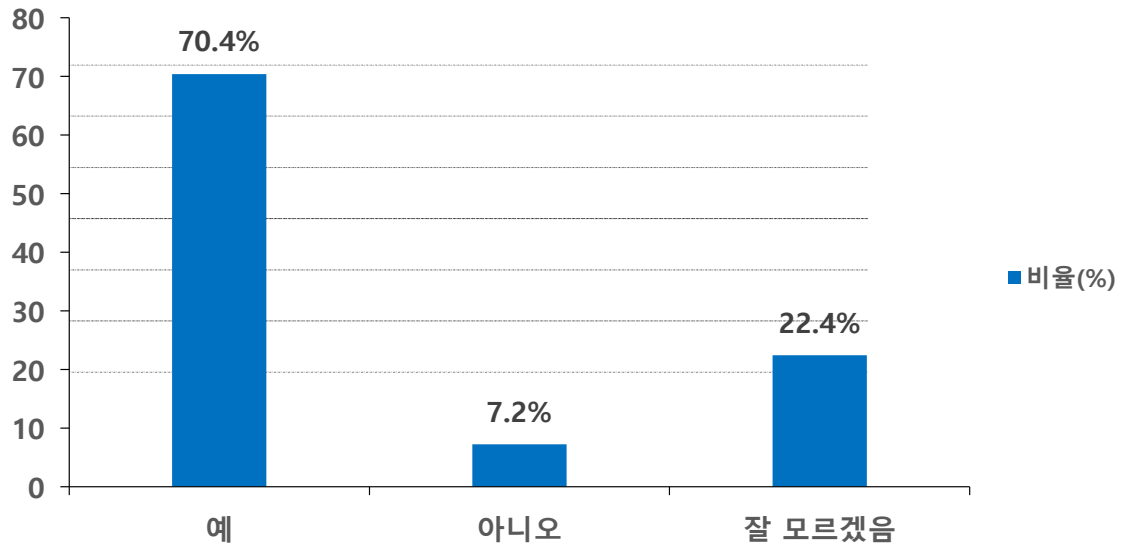


[그림 32] 취업 후 대학 진학 계획

□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 습득 여부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예’ 70.4%(470명), ‘잘 모르겠음’ 22.4%(150명), ‘아니오’ 7.2%(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D3a6. 학교로부터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 습득 여부 빈도분석 결과 (N=668)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예	470	70.4
② 아니오	48	7.2
③ 잘 모르겠음	150	22.4
합계	6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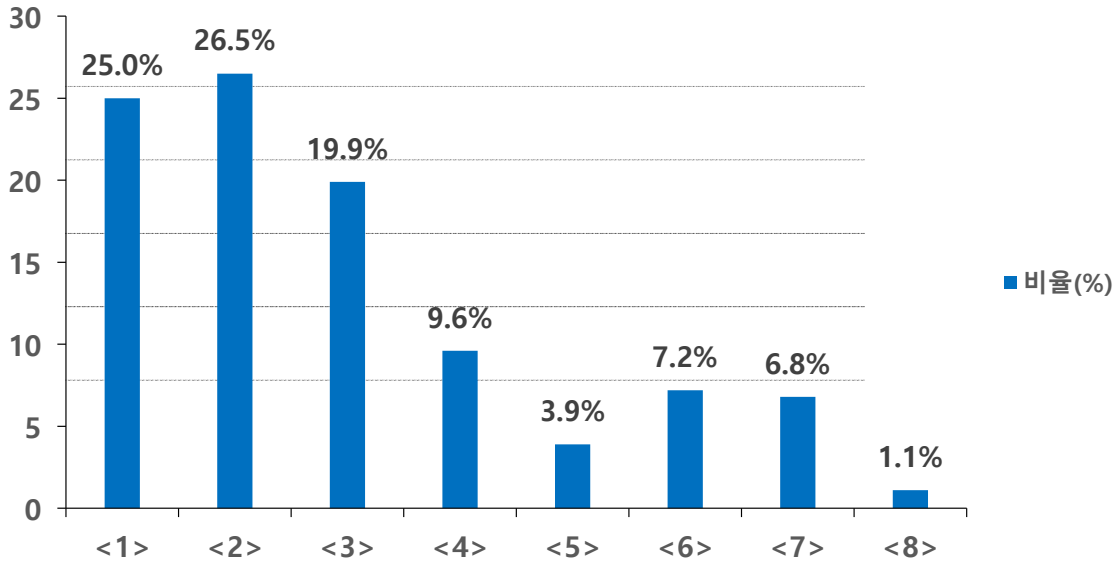
[그림 33] 학교로부터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 습득 여부

-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길 원하는 취업 지원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취업 및 현장실습 업체 소개 및 매칭’ 26.5%(298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25.0%(282명), ‘자기소개서 및 면접 지도’ 19.9%(224명),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멘티 매칭’ 9.6%(109명),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 7.2%(81명), ‘취업 후 경력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안내’ 6.8%(76명), ‘산업체 전문가의 특강’ 3.9%(44명), 기타 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보기에 나온 내용 모두가 필요함’, ‘알아서 할 수 있음’, ‘대학진학 및 취업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 등이 있다.

<표 46> D3a7. 학교로부터 받길 원하는 취업 지원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1,126)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282	25.0
② 취업 및 현장실습 업체 소개 및 매칭	298	26.5
③ 자기소개서 및 면접 지도	224	19.9
④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멘티 매칭	109	9.6
⑤ 산업체 전문가의 특강	44	3.9
⑥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	81	7.2
⑦ 취업 후 경력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안내	76	6.8

⑧ 기타	12	1.1
합계	1,126	100



[그림 34] 학교로부터 받길 원하는 취업 지원

주) 범주 설명

-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② 취업 및 현장실습 업체 소개 및 매칭
- ③ 자기소개서 및 면접 지도
- ④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멘티 매칭
- ⑤ 산업체 전문가의 특강
- ⑥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
- ⑦ 취업 후 경력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안내
- ⑧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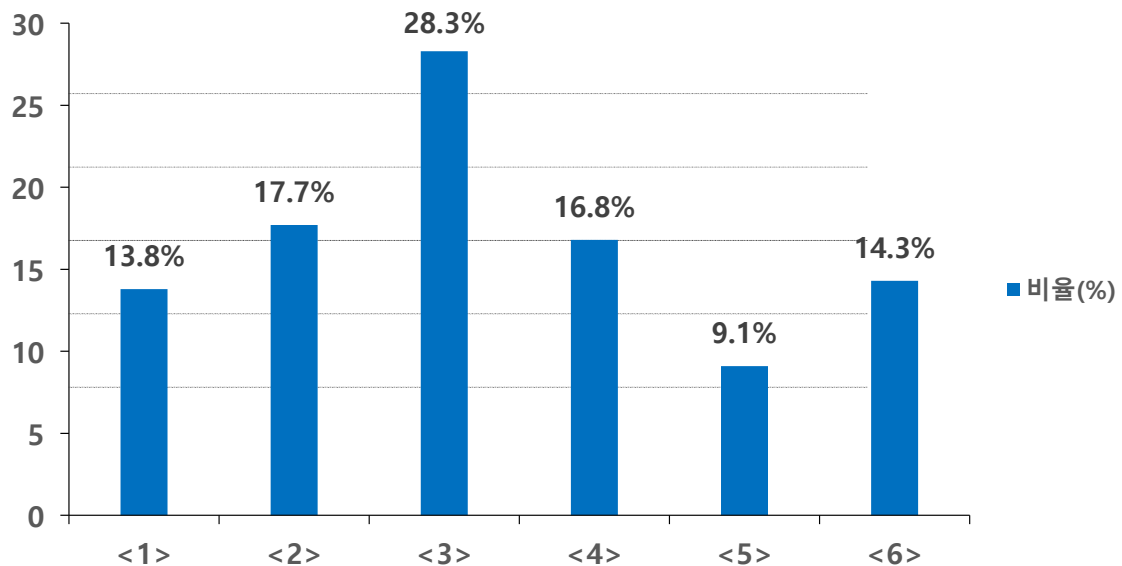
마. 대학 진학

□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로 나타내면 ‘현재 전공에 대한 심화 교육을 위해서’ 28.3%(125명), ‘부모님이 대학 졸업을 위해서’ 17.7%(78명), ‘대학을 진학해야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16.8%(74명), 기타 14.3%(63명),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13.8%(61명), ‘대학을 졸업해야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9.1%(40명) 순이다.

□ 기타 내용으로는 ‘원하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야 하므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다른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등이 있다.

<표 47> D3b1.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 빈도분석 결과 (N=441)

내용	인원(명)	비율(%)
①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61	13.8
② 부모님이 대학 졸업을 원해서	78	17.7
③ 현재 전공에 대한 심화 교육을 원해서	125	28.3
④ 대학을 진학해야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74	16.8
⑤ 대학을 졸업해야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40	9.1
⑥ 기타	63	14.3
합계	441	100



[그림 35]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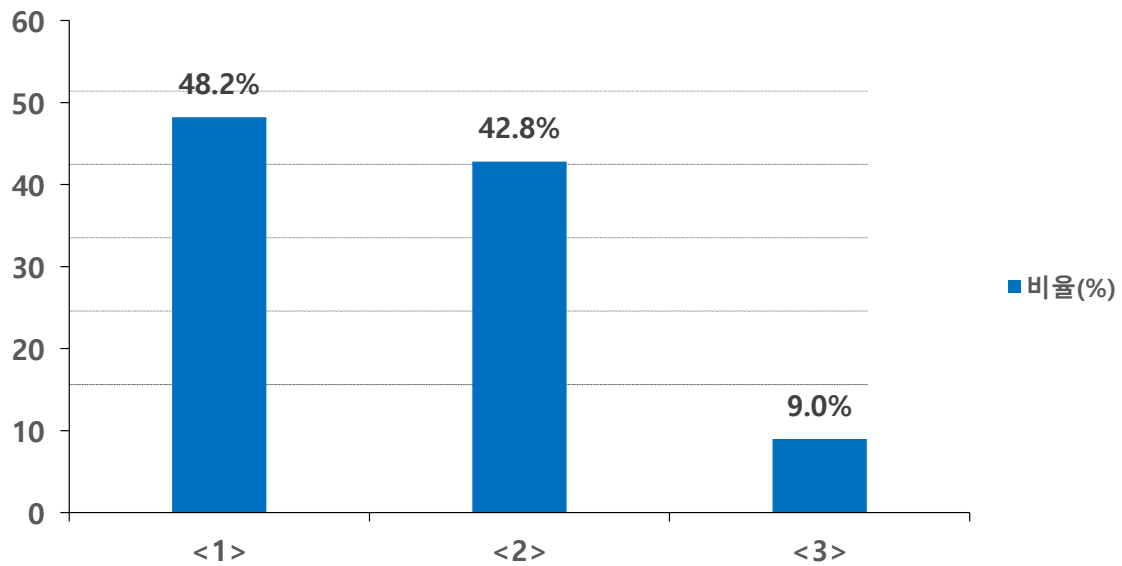
주) 범주 설명

- ①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 ② 부모님이 대학 졸업을 원해서
- ③ 현재 전공에 대한 심화 교육을 원해서
- ④ 대학을 진학해야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 ⑤ 대학을 졸업해야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 ⑥ 기타

□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희망하는 전공 계열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현재 전공과 동일 계열’ 48.2%(212명), ‘현재 전공과 다른 계열’ 42.8%(189명), ‘아직 결정하지 못함’ 9.0%(4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D3b2. 대학 진학 시 희망하는 전공 계열 빈도분석 결과 (N=441)

내용	인원(명)	비율(%)
① 현재 전공과 동일 계열	212	48.2
② 현재 전공과 다른 계열	189	42.8
③ 아직 결정하지 못함	40	9.0
합계	441	100



[그림 36] 대학 진학 시 희망하는 전공 계열

주) 범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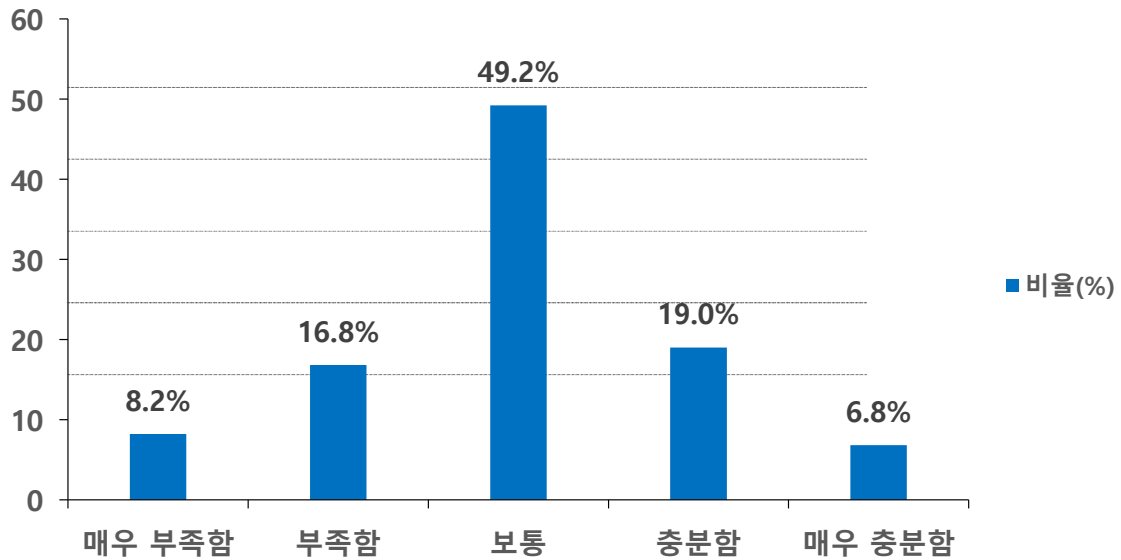
- ① 현재 전공과 동일 계열
- ② 현재 전공과 다른 계열
- ③ 아직 결정하지 못함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정규 과목 편성이 대학 진학 준비에 충분한 정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보통 49.3%(217명), 충분함 19.0%(84명), 부족함 16.8%(74명), 매우 부족함 8.2%(36명), 매우 충분함 6.8%(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D3b3. 정규 과목 편성이 대학 진학 준비에 충분한 정도 빈도분석 결과 (N=441)

내용	인원(명)	비율(%)
① 매우 부족함	36	8.2
② 부족함	74	16.8
③ 보통	217	49.2

④ 충분함	84	19.0
⑤ 매우 충분함	30	6.8
합계	4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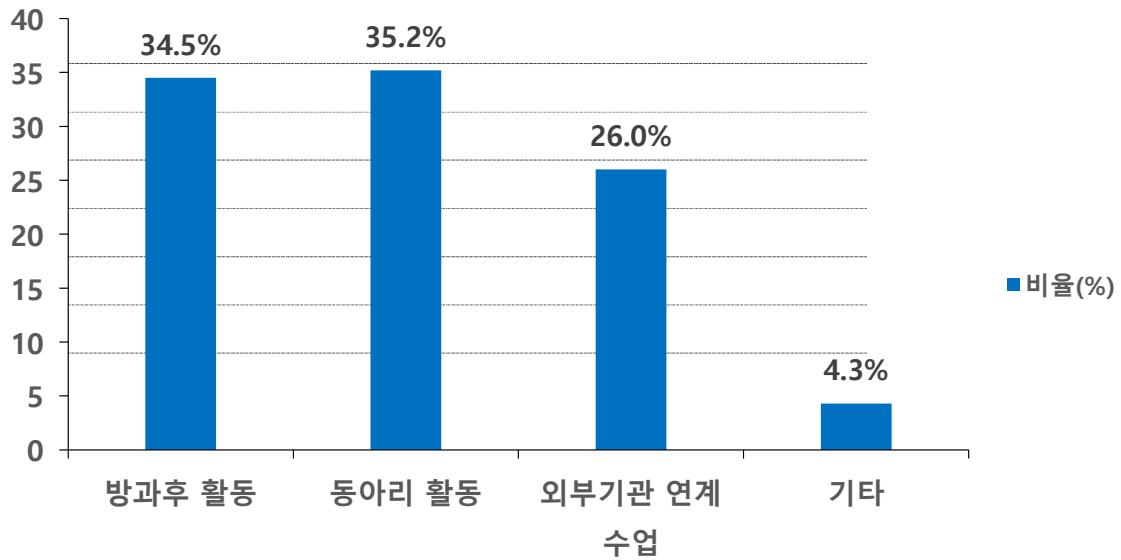


[그림 37] 정규 과목 편성이 대학 진학 준비에 충분한 정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정규 수업 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동아리 활동 35.2%(234명), 방과후 활동 34.5%(230명), 외부기관 연계 수업 26.0%(173명), 기타 4.3%(2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0> D3b4.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 빈도분석 결과 (중복응답) (N=666)

내용	개설 여부	
	인원(명)	비율(%)
① 방과후 활동	230	34.5
② 동아리 활동	234	35.2
③ 외부기관 연계 수업	173	26.0
④ 기타	29	4.3
합계	6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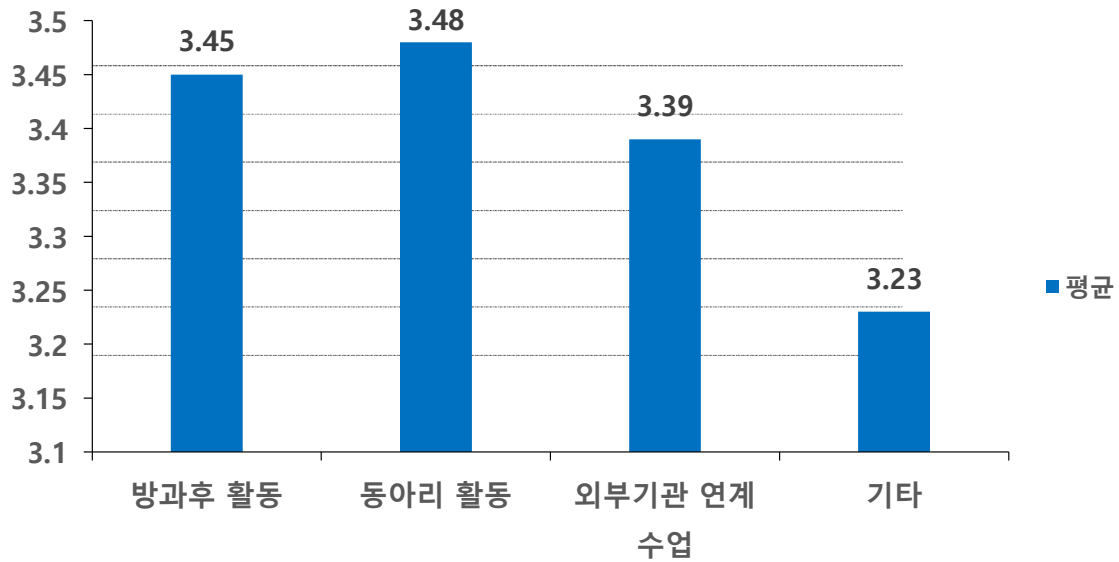
[그림 38]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개설 여부

□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의 준비 정도에 대한 문항별 평균(표준편차)은 동아리 활동 3.48점(1.028), 방과후 활동 3.45점(1.045), 외부기관 연계 수업 3.39점(1.047), 기타 3.23점(1.2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D3b4.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준비 정도 결과 (중복응답) (N=666)

내용	준비 정도	
	평균	표준편차
① 방과후 활동	3.45	1.045
② 동아리 활동	3.48	1.028
③ 외부기관 연계 수업	3.39	1.047
④ 기타	3.23	1.203
평균	3.39	1.080

1점: 매우 부족함 ~ 5점: 매우 충분함



[그림 39] 정규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 준비 정도

바. 진로 미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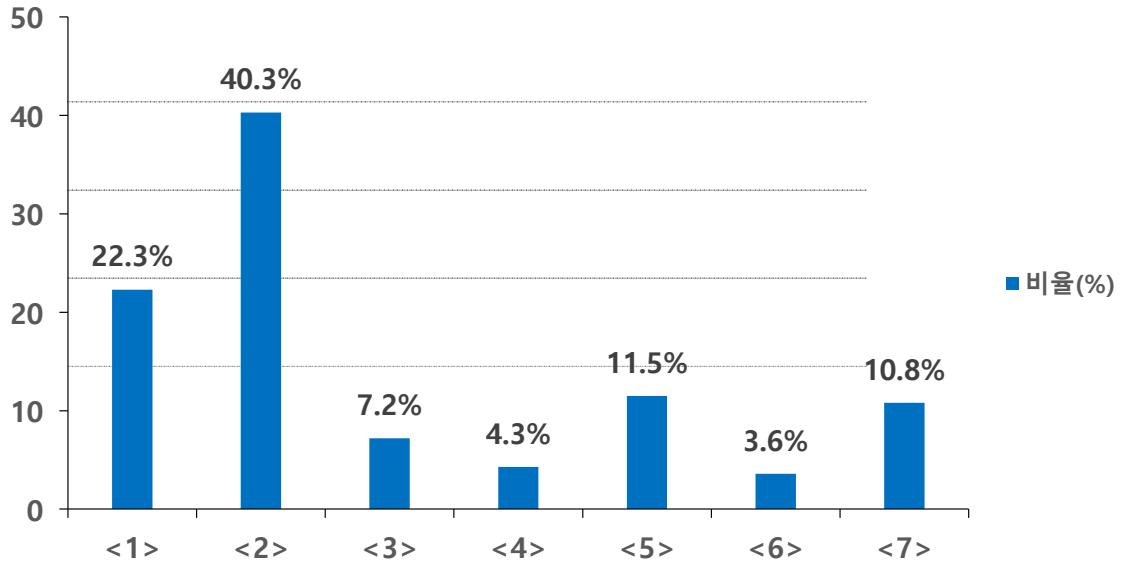
□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아직 자신의 진로·직업 적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40.3%(56명),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22.3%(31명), ‘학업능력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11.5%(16명), 기타 10.8%(15명), ‘자신의 진로·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7.2%(10명),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서’ 4.3%(6명), ‘경제적인 사정이 여유롭지 못해서’ 3.6%(5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취업과 진학을 고민 중이어서’, ‘하고 싶은게 많아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등이 있다.

<표 52> D3c1.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빈도분석 결과 (N=139)

내용	인원(명)	비율(%)
①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31	22.3
② 아직 자신의 진로·직업 적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56	40.3
③ 자신의 진로·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10	7.2
④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서	6	4.3
⑤ 학업능력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16	11.5

⑥ 경제적인 사정이 여유롭지 못해서	5	3.6
⑦ 기타	15	10.8
합계	139	100



[그림 40]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주) 범주 설명

- ①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 ② 아직 자신의 진로·직업 적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 ③ 자신의 진로·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④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서
- ⑤ 학업능력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 ⑥ 경제적인 사정이 여유롭지 못해서
-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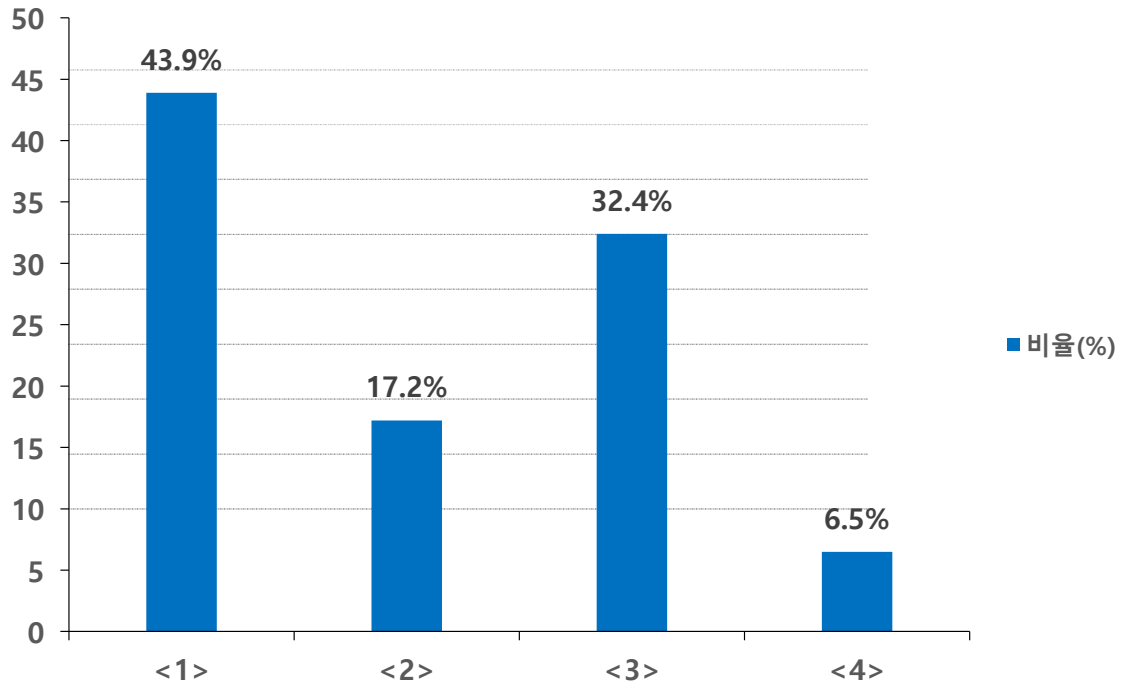
□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인원 수)은 ‘진로 적성 탐색 교육’ 43.9%(61명), ‘직업 체험을 위한 다양한 학교밖 교육’ 32.4%(45명),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 상담’ 17.2%(24명), 기타 6.5%(9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내용으로는 ‘고민할 시간’, ‘다양한 체험’ 등이 있다.

<표 53> D3c2. 진로 결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빈도분석 결과 (N=139)

내용	인원(명)	비율(%)
----	-------	-------

① 진로 적성 탐색 교육	61	43.9
②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 상담	24	17.2
③ 직업 체험을 위한 다양한 학교밖 교육	45	32.4
④ 기타	9	6.5
합계	139	100



[그림 41] 진로 결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 범주 설명

- ① 진로 적성 탐색 교육
- ②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 상담
- ③ 직업 체험을 위한 다양한 학교밖 교육
- ④ 기타

참고 문헌

- 노원경, 박선화, 장경숙 (2016). 일반고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지원 방안(I):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안재영 (2018). 고졸 취업문화 확산 2) 정부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성과관리 및 발전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찬주 (2016). 중등단계 공업계열 직업교육기관 교사의 직무 내용과 시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정광희, 김주아, 박승재, 손찬희, 이재덕, 김진숙, 임유원, 이희영 (2016). 다양한 진로수요 맞춤형교육을 위한 고교 운영체제 혁신 방안: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제 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한국교육고용패널II.
- 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통계연보.
- Krejcie, R. V., & Morgan, D. 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

부록

가. 설문지

특성화고 교육과정 실태 및 요구 조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강민정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특성화고 교육과정 실태 및 요구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견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특성화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시간은 10분 내외로 예상되며, 각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 응답에 참여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7월



- ◇ 요청기관 : 강민정 국회의원실
- ◇ 연구책임 : 이찬주 교수(안동대학교 전자공학교육과)
- ◇ 관련문의 : 최성욱 석사과정(☎ /)

A. 일반적 현황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A2.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A3. 귀하의 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_① 특별시/광역시
- _② 시, 군(동 지역)
- _③ 군(읍, 면 지역)

A4. 귀하의 학교 전체 학급수(규모)는 얼마입니까? (특수학급 제외)

- _① 12학급 이하
- _② 13 ~ 30학급
- _③ 31학급 이상

A5. 귀하의 학과 전공(교과군)은 무엇입니까?

① <input type="checkbox"/> 경영·금융	⑤ <input type="checkbox"/> 음식 조리	⑨ <input type="checkbox"/> 화학 공업	⑬ <input type="checkbox"/> 식품 가공
②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	⑥ <input type="checkbox"/> 건설	⑩ <input type="checkbox"/> 섬유·의류	⑭ <input type="checkbox"/> 인쇄·출판·공예
③ <input type="checkbox"/> 디자인문화 콘텐츠	⑦ <input type="checkbox"/> 기계	⑪ <input type="checkbox"/> 전기·전자	⑮ <input type="checkbox"/> 환경·안전
④ <input type="checkbox"/> 미용·관광·레저	⑧ <input type="checkbox"/> 재료	⑫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⑯ <input type="checkbox"/> 농림·수산 해양
⑰ <input type="checkbox"/> 선박 운항			

A6. 귀하의 학교 설립 형태는 무엇입니까?

- _① 국/공립
- _② 사립

B. 학교 전반적 특성

B1. 귀하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_① 매우 불만족
- _② 다소 불만족
- _③ 보통
- _④ 다소 만족
- _⑤ 매우 만족

B1a. B1번 문항에서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_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_② 학교생활 규정 및 규칙이 엄격해서
- _③ 교육여건(학교 위치 및 시설, 실습기자재 등)이 좋지 않아서
- _④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아서
- _⑤ 기타(직접 기입):

B2. 귀하의 학교에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_①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_②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_③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 _④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 _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 _⑥ 기타(직접 기입):

B3. 귀하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__①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이 없다.
- __② 성적을 강조한다.
- __③ 수업 시간의 과제물이 많다.
- __④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엄격하다.
- __⑤ 학교 규칙이 우리 세대 생활이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__⑥ 기타(직접 기입):

B4. 귀하의 현재 전공(학과)은 자신의 적성에 맞습니까?

- __① 전혀 맞지 않음 __② 맞지 않음 __③ 보통
- __④ 맞음 __⑤ 매우 맞음

B4a. B4번 문항에서 [① 전혀 맞지 않음, ② 맞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__① 성적에 따라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해서
- __② 중학교에서 전공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서
- __③ 주변 사람(부모, 친구, 선생님 등)의 권유로 학과를 선택해서
- __④ 내가 공부하려던 전공과 실제 공부하는 내용이 달라서
- __⑤ 기타(직접 기입):

B5. 귀하의 학교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__① 전혀 보장하지 않음 __② 보장하지 않음 __③ 보통
- __④ 보장함 __⑤ 매우 보장함

B5a. B5번 문항에서 [① 전혀 보장하지 않음 ② 보장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__① 학습활동의 부담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 __②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해서
- __③ 학교에서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아서
- __④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__⑤ 학생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B6. 귀하의 학교 특성과 문화, 시설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 특성/문화	1 학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 학교나 선생님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신문,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는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는 규칙이나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시설	8 학교 건물과 교실의 상태가 깨끗하고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운동장 및 체육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도서실(관)에 읽을 책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좋다.	①	②	③	④	⑤
	12 보통교과 교실(과학실, 영어교실, 음악실, 미술실 등) 시설, 기자재 등을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전문교과 실습실, 기자재 등을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수업 운영 및 과목 편성

C1. 귀하가 수강한 보통교과 수업(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C1a. C1번 문항에서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교과서나 학습자료의 내용이 어려워서)
 ②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③ 수업을 듣기에는 나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④ 선생님이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⑤ 전공과의 연계성이 낮아서(예: 무역영어, 노동법을 포함한 사회과목 등)
 ⑥ 기타(직접 기입):

C2. 귀하가 수강한 전문교과 수업(학과 전공)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C2a. C2번 문항에서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교과서나 학습자료의 내용이 어려워서)
- ②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 ③ 수업을 듣기에는 나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 ④ 선생님이 해당 교과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 ⑤ 전문교과가 취업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 ⑥ 기타(직접 기입):

C3. 귀하가 희망하는 보통교과 수업이나, 전문교과의 이론 수업 방법은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① 선생님이 주로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
- ② 학생 상호간에 서로 질문하고 답하여 학습하는 토의토론식 수업
- ③ 모둠(소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협동식 수업
- ④ 기타(직접 기입):

C4. 귀하가 희망하는 전문교과의 실습 수업 방법은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①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학생은 실습을 수행하는 수업
- ② 학생 스스로 능력에 맞게 개별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모듈식 수업
- ③ 학생 상호간에 학습 활동을 통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식 수업
- ④ 기업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실습 과제로 수행하는 수업
- ⑤ 기타(직접 기입):

C5. 귀하가 지금까지 수강한 과목에서 전문교과(학과 전공)와 보통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편성 시간은 어떠합니까?

- ① 전문교과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 ② 보통교과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 ③ 현재의 상태가 좋음

C6. 귀하의 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① 전혀 되지 않음 ② 잘되지 않음 ③ 보통
- ④ 잘 됨 ⑤ 매우 잘 됨

C6a. C6번 문항에서 [① 전혀 되지 않음, ② 잘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듣고 싶은 과목 중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 _① 국, 영, 수 관련 과목
- _② 사회탐구 관련 과목
- _③ 과학탐구 관련 과목
- _④ 제2외국어 관련 과목
- _⑤ 예술, 체육 관련 과목
- _⑥ 교양 관련 과목
- _⑦ 전공 관련 과목
- _⑧ 기타(직접 기입):

C7. 귀하는 현재 전공뿐만 아니라 타학과 전공을 학습하는 것을 희망합니까?

- _① 전혀 희망하지 않음 _② 희망하지 않음 _③ 보통
- _④ 희망함 _⑤ 매우 희망함

C7a. C7번 문항에서 [① 전혀 희망하지 않음, ② 희망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_① 현재 전공만을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 _② 현재 전공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서
- _③ 타학과 전공을 학습할 필요성이 없어서
- _④ 기타(직접 기입):

C7b. C7번 문항에서 [④ 희망함, ⑤ 매우 희망함]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또는 2개 응답)

- _① 다양한 전공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 _② 2개의 전공을 학습하고 싶어서(복수전공을 하고 싶어서)
- _③ 현재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_④ 기타(직접 기입):

D. 진로지도 관련

D1. 귀하의 학교가 지원하는 취업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_① 매우 불만족 _② 다소 불만족 _③ 보통
- _④ 다소 만족 _⑤ 매우 만족

D2. 귀하의 학교가 지원하는 진학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_① 매우 불만족 _② 다소 불만족 _③ 보통
- _④ 다소 만족 _⑤ 매우 만족

D3. 귀하가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무엇입니까?

- __① 취업 (☞ 23번으로 이동)
- __② 4년제 대학 진학 (☞ 24번으로 이동)
- __③ 전문대학 진학 (☞ 24번으로 이동)
- __④ 미결정 (☞ 25번으로 이동)

D3a1. 귀하가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 __②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 __③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 __④ 하고자 하는 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 __⑤ 대학진학 공부보다 기술, 전문교육에 더 관심이 많아서
- __⑥ 선취업 후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서
- __⑦ 기타(직접 기입):

D3ab. 취업 시 귀하가 희망하는 취업처는 무엇입니까?

- __① 공무원 __② 공기업 __③ 대기업 __④ 중소기업
- __⑤ 창업(자영업) __⑥ 기타(직접 기입):

D3a3. 귀하의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규 과목 편성은 학생이 희망하는 취업 준비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__① 매우 부족함 __② 부족함 __③ 보통
- __④ 충분함 __⑤ 매우 충분함

D3a4. 귀하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수업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수업(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외부기관 연계 수업 등)은 개설되었나요? 개설된 수업은 취업 준비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교과 수업 외 활동	개설 여부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방과후 활동	O/X	①	②	③	④	⑤
2 동아리 활동	O/X	①	②	③	④	⑤
3 외부기관 연계 수업(예: 기업, 대학에서 수업)	O/X	①	②	③	④	⑤
4 기타:	O/X	①	②	③	④	⑤

D3a5. 귀하는 취업한 이후에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습니까?

- __① 예 __② 아니오 __③ 잘 모르겠음

D3b4. 귀하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수업 외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업(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외부기관 연계 수업 등)은 개설되었나요? 개설된 수업은 대학 진학 준비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교과 수업 외 활동	개설 여부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방과후 활동	O/X	①	②	③	④	⑤
2 동아리 활동	O/X	①	②	③	④	⑤
3 외부기관 연계 수업(예: 기업, 대학에서 수업)	O/X	①	②	③	④	⑤
4 기타:	O/X	①	②	③	④	⑤

D3c1. 귀하가 지금까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 __② 아직 자신의 진로·직업 적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 __③ 자신의 진로·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 __④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서
- __⑤ 학업능력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 __⑥ 경제적인 사정이 여유롭지 못해서
- __⑦ 기타(직접 기입):

D3c2. 귀하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__① 진로 적성 탐색 교육
- __②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 상담
- __③ 직업 체험을 위한 다양한 학교밖 교육
- __④ 기타(직접 기입):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 제 2

**직업계고 교사가 바라본 현재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 경 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직업계고 교사가 바라본 현재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경엽(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의 이상은 자유에 있다. 자유에 대한 꿈, 즉 이데아는 목적을 동반한다. 인간이 주체적 사고와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을 통해서 전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발달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는 이유는 본래 인간은 독립적 개체이면서 타인에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또한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교육 활동은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잠재된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가 학생 시기를 거쳐 청년기에 우리 사회에 우뚝 서는데 학생시기에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발달의 목적에 기본 방향은 전면적 발달(인지발달, 신체발달, 노작, 심리 등 전인교육으로 회자 됨)이다. 또한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 개인이 성취한 것을 사회화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보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를 유지에 충분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노동의 결합’하는 교과편성을 해야 한다.

오늘의 핵심적 쟁점이기도 한 ‘교육과 노동의 결합’ 유형은 산업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쟁점을 낳았다. 이유는 불명확한 교육에 비해 노동은 명징한 개념에 연유된다¹⁾. 교육과 노동의 결합은 교육과정내에서 생산적 노동 요소를 어떻게 접목하는데 관심 분야이다. 교육은 내재적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즉 인간 삶과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는 것이며 인간적 통찰과 안목을 넓히는 데 있다. 그에 비해 ‘학교와 산업의 연계’는 경제적 이득이 있거나 산업 기술적 측면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와 산업의 연계’는 산업화 전, 산업화 초, 산업화 성숙기, 고도 산업화 진입 등 시기별로 방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달랐다.²⁾ 노동에 주안점을 둔 훈련의 목적은 외적 요소에 좌우된다. 따라서 훈련과정은 현시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직접 반영한다.³⁾ 그런

- 1) 교육이 가지는 불명확성은 기원전부터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있다. 논쟁이 발생하는 기저는 사람마다 사상적 배경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업교육도 교육의 한 부분이나 한정된 범주에서 기초적 의견만 제시하려고 한다. 사실 노동에 대한 개념 설정도 쟁점이나 교육만큼 아닐 것이다. 교육이 의도성을 가진 이끄는 위한 실천적 활동에 변수가 많다. 예를 들면 의도하지 않는 활동이 학습자에 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례처럼 교사의 의도적 조작이 학습자의 사고를 전부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2) 국가별로 산업화 발달 단계가 다른데 국가별로 공교육체제를 만든 형태가 다른 점,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공교육의 범주 좁기도 넓게 설정함에 따라서 산업 요소별로 학교와 산업 연계 방식에 차이점 등등
- 3) 기업에 생산력에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양성체제는 층위를 가지며, 기업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화 초기는 습득해야 할 기술은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력 양성에 과정은 정해놓고 학습목표가 명료했다. 산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는 1980년까지 산업과 교육이 연계보다는 산업과 교육이 각자의 영역을 구축했다. 따라서 일반 교육분야는 산업에 일정 부분 독립적인 교과교육(국, 영, 수,

데 ‘**학교와 산업의 연계**’는 산업화 초기와 다르게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양성 형태도 급격하게 넓어진다(90년대 정보화 계열, 2000년대 보건계열 및 가사계열 확대, 2010년 문화영상계열 확대). 교육과 산업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전통적인 인력 양성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서 기존에 직업군도 기술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직무형태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이윤을 담보해야 하는 기업에 생태계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노동자의 자리를 줄이더라도 생산현장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진단은 접어 두더라도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는 파고가 더 커서 그 여파가 크다. 이와 같은 다변화 기업에서는 인력 양성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방식은 다차원적이다. 고숙련의 일자리와 저숙련에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며, 직업군별로도 다르며, 같은 직업군이더라도 직무의 형태에 따라서도 요구되는 층위가 달랐다(영국에 숙련도 정의에 의하면 현재 직업계고는 반숙련노동임).

‘**직업계고 교사가 바라본 현재 직업교육의 문제**’라는 꼭지에 가장 핵심은 ‘교육과 노동의 결합’되는 교육과정이 공교육 학교에서 구현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학교와 산업 연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1. 교사 경험 속에 우리나라 직업교육 역사 훑어보기

역사를 우리는 왜 배우는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기별 제도 변천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직업계고등학교 최전선에서 서 있는 현장교사인 나의 경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 핵심은 현장교사가 실천적 교육활동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이다. 1장을 바탕으로 다음 ‘**2. 학교와 산업의 연계 :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적 문제를 추출해보겠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근대적 제국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제국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일제가 신민지 황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지배를 위한 신민지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 속

사,과. . .) 내용을 구성한다. 하지만 전문 교육분야는 고정된 산업기술을 체계화하여 교육과정 편성한다. 즉, 전공교과는 직무분석을 통한 교과내용 구성이다.

에서 설령 몇몇의 뛰어난 한국인이 나왔지만 대부분 한국민의 교육은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만큼이었다. 근대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조차 누리지 못했던 대한제국민이었다. 유럽에 의해 개방된 일본이기에 중학교 단계에서 분리교육을 한다. 해방과 함께 미군정의 교육은 통합교육을 심었지만, 산업발달이 전무한 시기점으로 중학교 분리교육은 폐지되고 고등학교부터 분리되는 형태는 남는다. 직업계고등학교는 전쟁으로 폐허, 초보적 산업체제라는 점을 반영된다. 이미 존재한 농업계열에 경공업 회사 운영에 필요한 상업계열이 추가된다. 6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기계, 화학 등 공업계열이 주축이 된다. 공교육 확대가 이어지고 고학력 추세가 강화되어 가는 80년대에 들어서 직업교육의 큰 축이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3저 현상으로 생긴 고도성장기에 정보화 시대라는 낙관적 전망을 한 정책 결과가 나온다. 90년대 기능인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전문대와 직업계고에서 모두 양성하는 이중적 구조가 고착화된다. 즉, 같은 과정이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여기까지 2000년대 내가 경험하게 되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기술하기 위한 기초적 배경이다.

가. 첫 번째 시련 : 통합교과

대학 4학년 1학기, 진로에 방황의 시기가 끝났다. 교생실습이 끝나고 임용고사 준비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직업계 중등교사 교과 자격증이 통합한다는 소식이다. 임용 준비하는 친구들은 소문으로 이미 접했던 것 같다. 4학년 1학기 중반까지도 건설사 취업을 준비하던 나에게는 황당하지 못해 임용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다. 토목과 건축을 통합한 '건설' 교과로 임용고사 변경 공지다. 냉정을 해야 한다. 그래 그해 12월 시험을 준비하는 조건은 같다. 건축과 토목에 공통분야 중심으로 출제되지. 그리고 교육학이 당락을 가를 것이다. 그래서 전공 시험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하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학은 실전문제 풀이 중심으로 6개월 준비 계획을 세웠다. 하나는 적중했고 하나는 틀렸다. 전공은 건축과 토목에 개별 영역이 출제되었고, 난위도는 건축분야가 높았다. 건축분야를 포기한 나로서는 건축 문항이 더 어렵게 보였을 것이다.

타지역은 전공우선 배치 기준이 쉽게 무너졌다. 당시 경기도는 그나마 학교(학과)가 일정 수준하고 있어서 토목전공은 공고에 토목과에 배치되었다. 그 원칙은 몇 년 가지 못해 지켜지지 않았다. 1) 임용 합격자와 전공별 필요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2) 현행 교사의 인사 이동으로 또 무너진다. 3) 토목과의 경우 지원자 축소로 5개 학교(안양, 의정부, 남양주, 수원, 고양)에서 3개 학교(안양, 의정부, 남양주) 준다. 이와 같은 원인은 교사의 인사와 주거, 진급 지역 선호 현상 등등 전공 우선 배치기준은 쉽게 무너진다. 몇 년 전에 대학 교육과정을 임용 선발교과와 일치시켰다고 한다. 이 부분에 논쟁은 있지만, 교육당국의 정책에 직업계고등학교 교사가 내가 처음으로 겪은 어려움과 상통하지 않아서 추후 논의로 마무리한다.

다행히 배치받은 의정부공업고등학교는 건축과와 토목과가 동시에 존재했다. 신규로 같이 임용된 건축전공한 교사는 건축과에 나는 토목과에 배속되었다. 처음 맡은 교과⁴⁾가 대학에서 전혀 배우지 않는 3학년 '토목CAD'라는 과목이다. 발령받고 학과 사무실에 학과부장 선생님과 인사 나누고 가르쳐야 할 교과를 설명해주셨다. 7차 교육과정 개편(고등학교 2002년 신입생부터 적용 2005년 수능부터 적용됨)이 있는데 작년(2001년)에 예산이 나와서 CAD(컴퓨터를 활용한 제도)에 컴퓨터를 구축했다고 한다(적용년도가 아니라 교과서도 없는데 2학년에 적용한다고 함. 이때도 실험 대상이었고 지금도 정부 발표계획 전에 실시한다). '1억원'으로 기억난다. 교과서는 토목제도라는 책을 주셨고, 앞으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기능사가 자격증이 신설되어 시행된다. 하지만 그런 부담이 없는 3학년은 마음껏 해보란다. 그리고 교과 시수는 24시간(2학년 역학교과 포함)이란다. 부담 없는 실험교과를 신규에게 맡겨졌다. CAD가 막 퍼지고 있었던 기술이라 점에서 계륵임을 선배교사들은 이미 알았을 것이고, 담임에 25시간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대학 때 교수님들이 언급한 CAD를 이렇게 나는 준비도 없이 현장에서 수업을 한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생뚱맞은 일들은 교사생활에도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스케치업 수업)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다.

나. 부전공연수 : 정보기술기초 교과개설의 원칙은 없다.

고등학교에 본격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갔다. 직업교육에서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의 핵심적 정책은 직업기초능력을 향상하여

4) 중등단계 인력 양성을 했던 후기개발도상국인 우리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대학교육과정에 따랐다. 중등학교에서 교과는 흔히 국영수사과라고 하는데 직업계고는 학과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교과가 편성되어 있음.

변화는 산업현장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다.⁵⁾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에 발 빠른 대응이다. (7차는 전문교과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과학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 등등) 공업계열은 공업입문, 기초제도, 정보기술기초과목으로 표명된다. 한편 2002년에 교육부는 2004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외 3% 안팎으로 전문계고 출신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7차교육과정 적용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평가에 ‘직업탐구영역’이 개설된다. 4년제 대학 진학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전문계고 기피 현상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이다.

공업일반과 기초제도는 기존 교과 영역 범주에 속한다. 교사는 학령기에 학습과 교사 양성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정보기술기초 과목도 학령기에 기술, 정보교과에서 습득한 지식이 있지만 가정을 주로 학창시절에 배우는 여성의 경우와 전자통신계열 이외 교과 교사는 비전공 분야이다. 7차교육과정 대비차원에서 정보교과에 대한 부전공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002년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은 오산 한신대 캠퍼스에서 몽땅 보냈다. 이 3개의 교과는 비전공이라는 점 이외에 대학입학이 대세가 되어가던 직업계고등학교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교과이다. 200시간에 가까운 부전공 이수를 했어도 담당하고 싶지 않았다. NCS 기반 2015 교육과정 개편 전까지 정보기술기초는 계륜처럼 떠돌았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Ⅱ(전문교과Ⅰ는 고교학점제 논란에 중심에 있는 대학예비교과 성격이 강함)는 전공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된다. ‘정보기술기초(정보)’가 정보화시대 대비 과목으로 부상되었다가 박근혜정부 때에 빠른 진로를 결정해야 하다는 관념들이 만연하였다. 정보교과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성직)’로 대체한다. 현장에서 천덕꾸러기 정보가 ‘성직’으로 바꾼 점이 변화인 듯하다.

다. 나에게 기능반의 기억

기능반 업무를 5년간 했다. 4년은 기능경기대회이고 1년은 기능경진대회이다.

5) **이명박 정부에서 통합교과에 대한 비판을 세운다.** 기사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지만 소개한다. “화공 교사가가 패션 수업...전문기술 습득 꿈도 못꿔요.” (2009.10.21. 한국일보 김성환 기자). 7차교육과정개편부터 시행된 ‘중등 교사 자격증 통합표시과목제’는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 ‘얼마 전 건설정보과로 이름이 바뀐 토목과는 내년부터 방송무대자인과로 완전히 틀이 바뀌는 데도 방공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는 한명도 없는 실정, 학교 측 막상 이를 책임져야 할 교사들은 지난 여름방학부터 대학 연극영화과에서 단기연수를 받는 것이 전부다. / 광주 지역 이모 사장은 “회사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관련 전공을 한 고졸 출신 지원들은 짧은 적응 기간만 거치면 곧바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았다”면서 “최근에는 회사에 오려는 전문계고 졸업생도 드물지만 막상 들어와도 기초적 전문 기술이 부족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능경기대회는 국제기능 올림픽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 선전도구로, 기업의 기술력 광고 도구로, 학교의 신입생 홍보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능반의 흑역사 생략한다. 기능경진대회는 입학 특별전형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았던 당시 큰 이점이 없었다. 학과에서도 존속할 의지가 없다. 학교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주요 관심사였을 뿐 3년의 측량관련 교과를 이수해서 3학년 때 3개월 방과후 연습해서 나가는 경진대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1년을 담당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능반이 폐지되어 기능반과 인연은 더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는 기능대회에 위해 특별반처럼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설문조사에서 답글 하나로 대신한다.

전교생의 교육보다 한 두명의 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을 목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1~2명을 위한 담당강사초빙, 재료비 등 또한 참가 학생들은 실습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연습시간을 허용해야 하는 학교 분위기로 전문교과가 아닌 일반교과는 수업결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반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여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 비정상적 교육과정, 열등감과 상대적인 패배감을 야기하는 학생문화 등 기능경기대회는 모든 학생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학교에서는 비교육적 활동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라. 대학과정 유사, 기능사 검정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것을 통상 대학입시라고 한다. 하지만 직업계고등학교 다른 요인으로 지배를 받는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학령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비중이 낮았던 근대 산업화 초기 직업계고등학교 위상은 고급기술자 양성과정이었다.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하였던 교과서는 4년제 대학에 교재를 축약한 교과서였다. 즉, 90년대 전문대학에서 쓰던 교제라고 보면 될 것이다. 6차교육과정까지 그 흐름은 이어진다. 7차교육과정 도입되는 시기에도 일부 남아 있었다.

역학수업 사례를 들어보려고 한다. 2002년 2학년 1학기와 2학기 2단위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7차교육과정 도입되면서 3학년으로 편성이 옮겨지다가 결국 교육과정에서 빠진다. 역학 교과서에 구성은 내가 대학에 정역학, 응용역학, 구조역학, 동역학 이렇게 4학기를 걸쳐 배웠던 내용의 축소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고리타분한 선생이었다. 교과서 있는 내용을 학기말까지 악착같이 마무리했으니 말이다. 당시에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보통 교과에서 수업 편성과 연계가 되지 않았고, 고2가 배우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

7차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토목설계 과목도 비슷하였다. 3학년 편성되어 있다고 하나 대학에서 철근콘크리트공학 2학기 분량과 고차원에 이해가 필요한 설계 기법인 PSC구조설계까지 담겨 있었다 2006년 수업할 때에는 협동학습이론을 기초로 수업을 한 덕분도 있지만, 역학을 수업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직업계고등학교 대학수능모의고사를 잘 보지 않는다. 현재 노동하고 있는 학교는 대학진학율이 높아서 인지 학력평가를 6월에 보았다. 내가 1,2학년 학력평가를 담당하여서 우리학교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학년과 2학년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다. 1년가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는 수치적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입학성적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런데 학력평가 중간점 분포도가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나쁘다. 시사하는 바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리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응한 성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편성에 차이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한 시기에 단번에 평가결과로 판단은 위험하다. 그래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2학년 12월에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 결과를 자료를 담았다.

구분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1등급	15.0	19.0	0.8	12.4
2등급	16.7	14.5	9.4	26.9
3등급	31.5	24.0	40.5	28.4
4등급	28.2	33.8	34.0	21.2
5등급	8.7	8.7	15.3	11.1

<출처: 2019년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교육부 내부자료>

나의 실천 사례이다.

- 현행교육과정에서 원과 직선이라는 수학교과에서 배워야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끝나고 직업계 교과의 내용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6~80년에 중등단계의 공교육이 확대되기 전에 모습이다. 교육실습생을 할 때 학교현장에서 학생 지도를 참관하고 교과서를 보고 이런 문제가 발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의식은 교과내용이 학생들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교과서 내용과 다른 지도교사의 교육활동의 이질감이다.

- 아래 '17번 문제(2019년 기말고사 출제 문제)'가 '교과목 중심 지식 교육'의

한 사례이다. 이 문제는 토목이란 학문의 한 분야인 측량에서 ‘노선’을 설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 삶과 연결된 것이지만 과학적 원리는 잘 보이지 않다. 곡선과 직선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개념이 형성되어야 삶 속에서 나오는 현상을 제대로 독해할 수 있다.

- 고유의 지식 체계를 확립한 교과를 매개로 학생의 발달을 고양시키는 것이 교과가 가지는 교육에서 위상이다. “교육과 노동이 결합”하는 **종합교육에서 이론은 교과이고 노동은 삶이다.** ‘삶을 위한 교육’은 모든 인간을 위한 교육이고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역할이며, 사회 변혁의 토양이 된다고 본다.

17. 곡선길이(곡선 AB) 공식을 유도하는 기초 과정이다. 빈칸에 □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바른 것은? (5.0점)

$2\pi R : \text{곡선 } AB = 360 : \square$

- 직업계고등학교 건설정보과 1학년 ‘토목일반’ 교과에 기초측량 실습 분야에 교육 실천의 결론은 노선 설치라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과내용이지만 이를 교육하고 학습시키기 위해서 실습이라는 몸으로 익히는 활동을 함께 실천한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교과서도 없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정점에 이른다. 대학과 유사한 교육과정에서 기능검정이 교육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취업교육과정이 모든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마. 취업률 : 맨 땅에 세운 건물, 건물의 재료는 다르지만 성장률은 같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취업률 정책과 예산 지원 방식이 경쟁적 체제가 도입된다. 직업계 영역에서 소수 정예 전략을 구사하면서 소위 ‘마이스터고’에 대한 차별적 지원과 취업 성과에 내몰렸다. 마이스터고에 노동하지 않아서 차별

적 교육환경에 대한 소회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이 들어서면 경제성장율이 올라간다. 그런데 속은 보지 않는다. 이명박정부의 취업률 정책이 그랬다. 10월에 현장실습 취업이라고 하면서 보고한 취업률로 경기도 2등을 해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아 웃지 못할 일들이 속출했다. 대학진학률이 70% 넘는 상황에서 취업률 높이는 정책에 나는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런 소회를 밝히 기고의 글로 현장실습을 대신하려고 한다.

[기고] 노동의 존귀함 가르치는 교사 삶을 살고 싶다

김경엽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사

지난 1월 전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 사건을 접하니 작년 경기도 군포 특성화고 학생의 죽음과 서울 구의역 참사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그 사건의 희생자들은 한참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시기임에도 싸구려 노동시장으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였다.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이 노동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젊은 영혼이 우리 곁을 떠났음에 불구하고 특성화고 파견 현장실습 제도는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은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와 부당한 노동행위를 방치한 결과 빚어진 사회적 타살이다.

2004년의 특성화고 3학년 담임을 맡았던 경험은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관행처럼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갔다. 누가 현장실습 나가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선배들이 했기에 학교로 의뢰가 온 기업을 소개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알아서 서류를 내밀었다. 7월 말의 1차 폭풍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 다시금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사라지는 교실 분위기에 아직 세상으로 나갈 마음의 준비가 덜된 학생조차 9월 말이면 학교를 떠났다.

성인들조차 문턱을 넘는 일이 두렵기 마련인데 그렇게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 반 학생이 취업한 곳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서야 문제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터널 현장에서 2교대 근무하며 일반 성인 노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깃발 들고 교통 정리하는 일을 한 다며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대학 갈래요! 다시는 토목하지 않을 거예요'였다. 그런 학생의 말에 나는 무엇이래 대꾸했던가? 학생들 앞에서 있는 무력한 공범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겨울이 되면서 학생들은 학교로 삼삼오오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3학년 담임으로서 경험한 현장실습은 수업시간에 공식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준 제도였다. 기업은 단순 업무를 낮은 임금으로 손쉽게 해결하고 학교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고 교육활동이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학교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이후 다시는 3학년 담임을 맡기가 어려웠다.

시간이 흘러 다시 3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는 현장실습 나가는 아이들도 적었고 또한 아이가 힘들어 할 경우 즉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러다보니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수의 학생만 실습 나간 기업에 남게 되었고, 다수의 학생에게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마음의 위안을 받았을 뿐 기업에 남아 여전히 착취를 당

하고 있는 소수의 학생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픈 지점이다. 평등한 교육을 받을 시기에 누구의 자녀들은 가정 형편 때문에 제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저 받아야 할 임금은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어른들이 학생을 험하게 다루지 않게 사장이나 실습생 담당자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기고 기업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못나고 한없이 부끄러운 나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잊지 않고 문자 남기며 안부 전하는 제자들이 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5월 15일 유난히 부담스러운 하루다. 난 아이들에게 '스승'이라 부름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내 삶에 대한 고민으로 가시가 많아 다른 사람을 품을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 그나마 교사가 되어 만난 훌륭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가장 얇은 삶을 가장 먼저 찢어 버리지 않던가? 교사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나의 노동권을 지키는 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노동의 아름답고 존귀함을 당당하게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제자들에 대한 보답이지 않을까 한다.

“최근 신입생 충원 부족이 두드러지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다. 올해 서울 특성화고 70곳 중 49곳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는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직업계고의 핵심 경쟁력인 취업률 하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1.08.02. 직업계고에 ‘AI·바이오’ 등 학과 생긴다. 한겨레 김지은 기자).”

정책은 메시지이다. 현정부에 교육부는 공개적으로 취업률로 성과를 판단하고 예산 차등분배하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만 정량에서 정성평가, 일정시기에 취업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5년마다 특성화고 재지정 평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존속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같은 취업률을 정책에 핵심임을 들어내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메시지를 받아 안는 현장교사들은 투박한 늑대가 사라진 자리를 교묘한 여우가 차지했다 여기는 것이다.

바. 특성화로 학과 개편 또는 학교 개편

이명박 정부에서 취업률 정책과 마이스터고 소수 정예화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보편적 직업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던 전문계고등학교를 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전환하였다(특성화고등학교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랐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말관리과와 같은 전통적 직업계고에 없었

던 특별한 직종에 해당 학교를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분야에 취업교육을 하는 학교가 됨). 당시 일산고등학교는 디자인계열 특성화고 전환을 위해서 수억의 예산을 받았다. 화공, 전자, 건축 공업계열 3개 학과와 미용, 조리, 중국어과로 총 6개 학과 구성된 30학급 규모의 학교였다. 공업계열은 학생모집 어려움을 존폐 위험에 놓여지만 나머지 3개 과는 시대적 흐름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다. 디자인계열 특성화의 기본 골격은 전과에 디자인교과 편성과 중국어과를 제과제빵과로 전환이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는 디자인 교과목 한 개를 개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을 디자인 특성화답게 구성하자는 주장을 했다. 수억 예산이 제과제빵과 신설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사업을 활용하는 집행을 막고자 했다. 나와 다른 입장에서 있는 교사들을 논리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특성화라는 이름 가지는 허상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학교 인근에 제과제빵 교육원들이 여러 곳인데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을 선발하고 양성한다. 고백건대 당시 학교에 학생 모집의 핵심이었다. 10년 전 이야기지만 조리관련 학과에서 90명의 학생이 매년 취업시장에 나선다. 그 분야 성장세가 아직 지속되어 고용에 한파는 면하고 있다고 하지만 호시절은 길지 않다. 2017년 1월 전주 애완관련 학과 학생이 노동을 한 곳이 콜센터였다. 이런 문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앓고 있는 숙제다.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생겼을 때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학교는 3년 단위로 긴 시간을 두고 교육과정과 시설을 조성한다. 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시점에서 일자리가 유효한가? 장담할 수 없다.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 더욱 그렇다. 한 지역에서 매년 50여 명의 학생이 장기간 배출되기 때문에 졸업생이 갈곳이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 지역에 정책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훈련과정은 정착한 사람이 짧은 기간에 배워서 취업하는 것이기에 지역사회 정착율이 높다. 장기간 교육과정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운영하는 훈련정책이 가지는 장점이다.

디자인 특성화라고 하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 편제였다. 당시 업무를 하던 나는 못 견디고 담당부장과 업무에 대한 논쟁을 한다. 결국 다음 해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학교 의중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 이동 당한 것이다.

특성화고 개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대학 과정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0년 개교한 한국소방마이스터고의 '소방관리학과'와 '경호학과'는 지속적으로 인력소요가 증가될 것이라 예측과 가정으로 추진한다. 소방학과와 경호학과는 전문대학에서 오래전부터 개설된 학과

아니던가? 나도 특성화 개편할 때 디자인 수용가 증가될 것이라 예측으로 학과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한 계획서 쓰는 못한 교사였다.

- 2019.12.06.(금)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70개 특성화고 2020학년도 신입생 12,634명 최종합격 --> 4차산업혁명시대에 학과개편
- 2021.08.02.(월) 교육부 보도자료,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직업계고에서 길러낸다. --> 취업경쟁력 높이기 위해 유망 산업분야 중심으로 학과개편

학과 개편은 새로운 분야에 기술 연수와 연동된다. 학교는 기업훈련소가 아니지 않은가? 설령 훈련소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요구하는 신기술에 습득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타분야의 기술 연수받아서 수업에 적용하라? 교육부장관에게 묻겠다. 나에게 수업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산업현장교사 채용이다. 직업계고등학교는 훈련소라고 답변이 돌아왔다.

사. 신기술 연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한다. 직업계고 전공교과는 늘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해나가야 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전공분야 기술습득에 경험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가 교과내 기술의 발달이다. 이런 부분에 토론은 풍성하다. 진보한 기술이 교육과정에 편입되는 문제점이다. 토목학과에 측량교과가 있다. 측량기의 발달사를 다 언급할 수 없다. 최대한 짧게 기술해보겠다. 측량의 원리는 각과 거리라는 두 개의 변수를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지물의 위치, 즉 좌표를 얻는 것이다. 근대 측량은 각과 거리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가 발달했다. 측량기술자는 각과 거리가 가지는 이질적 성격을 이해하고 장비를 다루어야 정밀도 높은 측량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자 장비는 발달은 급격히 일어난다. 각과 거리를 따로 관측하던 방식에서 하나의 기계로 통합된다. 통합된 기계가 연산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관측 결과값인 좌표를 계산하여 측량기술자에게 제공한다. 이 정도 수준 기계장치도 측량의 원리가 되는 기초수학능력이 여전히 필요했다. 단순하게 측량의 결과 계산을 빠르게 제공하여 작업의 능률을 높이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관측점과 관측점 사이 관계를 혁신적으로 바꾼 기술이 측량기계에 도입된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상용되고 대중화되는 시점이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적용되는 시기이다. 이 기술은 한 지점에서 전자장비를 다루기만 하면 측량 결과값이 산출된다. 흔히 알고 있는 GPS측량이다. 개인적으로 대학4학년 졸업

논문이 GPS관측 기법에 따른 측량정밀도 분석하는 논문이었다. 2010년 전후로 수억원에 GPS 측량 장비를 구입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진보한 GPS는 한 지점에서 측량하는 것인데 이보다 한차원 측량의 기술을 이끌어낸 레이저 기술은 '1대N'이다. 한 지점에서 N개 목표지점에 측량 결과값을 도출하는 라이더 측량기들이 출현했다. 지상에서 실시하는 '1대N' 방식의 라이더 측량기는 이동간 장애 요소가 있다. 이를 해결한 것이 드론측량기에 출현이다. 나는 운이 좋아서 GPS측량기구까지 다루고 임용되었다. 하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토목과 교사들은 각과 거리를 따로 관측하는 장비를 겨우 배우고 학교 현장에 왔다. 4학년 때 졸업논문에 측량파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GPS측량은 수업시간에 잠깐 들었던 흔적만 가지고 현장에 나왔을 것이다.

또한 같은 측량 기법이어도 측량기를 만드는 회사마다 사용법이 차이가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NCS 기반)이 매뉴얼 교육과정이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만 다양한 기종을 수업에 적용하는 어려움은 차후의 문제이다. 여기서 핵심적 문제는 라이더 측량기와 드론 측량기가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이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변화를 도저히 따라갈 자신이 점점 없어진다. 매년 측량교과만 담당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한 때 정보기술기초 부전공도 받았고, 정보를 현장에서 가르치던 내가 듀얼CPU(흔히 인텔 1세대라고 칭하는데 현재 11세대 CPU가 나옴)가 나오는 시점에서 컴퓨터와 멀어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에도 구방식 핸드폰을 사용했다. 노트북이 대세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컴퓨터에 멀어졌던 이유도 학교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에 경고 문구다. '임의로 개봉시에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다' 모듈화된 노트북은 사용자가 손볼 것이 없다. 더이상 컴퓨터 분해 조립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직감해서였다.

현재 재직교에서 여름방학전 있었던 일이다. 2012년 구입한 2세대 i5 00업체 컴퓨터를 10년 만에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 견적을 비교하는 일을 했다. 이 기종은 전임교에서 폐기되었는데 HDD를 SSD로, RAM을 DDR3 최상급 8G로 업그레이드하여 지금 학교 업무용 컴퓨터로 쓰고 있는 기종과 동일하다. 우리 학교 교사중에 컴퓨터 관련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유였다. 컴퓨터 3실 컴퓨터 교체 관련하여 회의 자료를 만들었다. 구력은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2010년부터 나는 내 입으로 컴맹을 자처한다. 기술 변화를 따라가는데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새로운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성의 높지만, 조작 기능과 작동 원리를 숨겨진다. 새로운 기계를 교육과정에 편입하는 것은 학습자의 지적 발달에 도움

이 되지 않게 된다. 전자화된 기구는 기계를 다루는 기능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고 기계를 관리하는 역할로 기술자의 직무를 변화시킨다. 또한 학습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에 편성하는가 문제가 유발한다. 아무리 산업현장의 기술이 변했다고 하여도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업과정에 편입할 수 없었다. 드론이 물결이 높게 일어서 라이더 측량기가 생명력이 짧았다. 대표적 사례이다. 드론 측량이 편입되면 분명하게 빠져야 하는 수업내용이 있다. 현장과 멀어진 기계, 즉 오래된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의 발달에는 고전방식이 더 유용함에도 취업교육은 이를 멀리하게 한다.

셋째로 기술은 인력을 축소한다. 이 꼭지는 학생들의 진로와 연관되어 있다. 3~4명의 측량 기술자가 했던 일을 1명의 측량기술자가 해결하고 있다. 심지어 드론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라 설계기술자가 운영해도 된다. 토목에서 측량 분야가 설계분야와 시공분야에 한 영역이 사라질 수 있는 기술적 바탕이 깔렸다. 측량분야 중간 기술인력 양성하는 전문대학이 타격을 먼저 받았고, 이제는 직업계고에서 이런 인력을 양성했다가는 실업자 양산소가 될 것이다.

학생 모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정을 개설해보자. 건설현장에 중장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함께 기술한 2억원 가량의 장비 하나를 구입한다. 포크레인이라 부르는 백호다. 백호 운전이 전공인가? 3학년 1학기에 편성하겠다고 한다. 난 가르치고 싶지 않다. 3학년 피해야 하나? 누가 나서서 담당할 사람 없나? 눈치본다. 학과부장은 받을 예산 있다면서 배우기를 종용한다. 이꼴저꼴 보기 싫다. 1학년으로 직행했다. 2018년 여름에 회의때 논의되어 그해 2학기에 구입했고 2019학년에 3학년에 편성했다. 아래 3가지 방식으로 고시외 과목선택(과목과 교과는 다른 개념임)이 유사 학점제 형태로 직업계고등학교에 뿌리 깊게 내면화 되었다.

1) (교사, 학과 수준에 접근 방식)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교육 자율성이다. 하지만 직업계고는 교사의 교육 자율권도 동원되었다. 교육과정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다. 절차적 준수는 직업계고 교사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즉, 교과명은 그대로 두고 교과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실제 시간표에서의 과목명과 수업내용이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 '토목시공' 교과 수업에 건설장비로서 포크레인(학술 용어는 백호, 산업용어 굴착기, 굴삭기) 운행 및 작동 기능

을 실습한다. 토목과에서 토공(토목시공의 준말) 교과목의 목표는 건설관리로서 건설장비 관련 교육내용은 장비 관리이다. 즉, 건설장비의 작업능력과 시공량을 산출하여 공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건설장비의 직접 운전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백호 자격증 선호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1억5천 장비를 구입하여 짧은 몇 개월, 한주에 2일(1반과 2반) 간만 수업에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이론 실습장, 박근혜 정부 이후 NCS 기반 교육과정은 이론 실습장을 무용하게 만들어 놓음)은 시뮬레이션 장비가 들어왔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활동공간인 학교 운동장에는 기능훈련 학원처럼 포크레인이 점령하였다. 한 학교에 한과를 사례를 설명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의 일반적 모습이다.

2) (학교, 교육청 수준에 접근 방식) 도교육청 도 지정 교과, 인정교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1) 경우보다 그나마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교과 선정과 편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반영한 구조는 아니다. 이 방식을 추진하는 사람은 귀찮은 일거리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편 단위 지역에서 ‘노동인권’ 관련 교육 편성을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적이며 교육과정 교과 편성해내는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우리가 활용했듯이 보수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기업가 관점과 이런 진로 선택을 유도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대표적 사례이다. 기업의 요구하는 단편적 지식의 교과들이 이런 방식으로 편성되어 교육과정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3) (교육부 수준에서 접근 방식) 직업계고는 여러 계열로 나누어진다.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수산계, 가사계, 보건의료계, 산업디자인계, 문화계 등이다. 학과별 과목의 벽을 계열별로 열어놓는 방식으로 선택교과의 폭을 넓히는 형식이다. 즉, ‘교과군’이란 개념이다. 비슷한 학과를 묶는 방식으로 건설학과에 토목과와 건축과 관련 교과를 서로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교과군의 개념은 과거 교육부 정책이었다.

아. 어설픈 훈련과정 : 이제는 피하고 싶다.

가치 지향적인 직업교육이 아니라 직업훈련 과정이 중등학교에 심어지고 있다. 그 흔적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시작되지만 본색을 들어낸 시점이 2015개정

교육과정이다. NCS를 기반으로 한 2015개정교육과정은 “어설픈 훈련과정”이라고 규정한다. 학원과 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이 증거이다.

어떤 기능이든 습득할 때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익히는 것이 한 분야에 기능을 습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위 그림과 유사한 사례로 NCS 기반으로 한 2015개정교육과정에 직업계고등학교가 어설픈 훈련과정인지 설명해보겠다. 자동차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면서 기어 변속을 조작하는 기능이 필요가 없어졌다. 기술은 항상 인간의 편의성에 의해 채택된다. 아무리 수동조작 자동차가 연비가 우수한데도 자동차 회사는 자동변속기만 생산한다. 판매의 지표인 성장률, 수익에 수동변속의 매력에 빠진 소비자, 환경은 고려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어 변속이 없는 자동변속기 자동차도 운전면허를 위한 운전 기능은 습득해야 한다. 운전 기능을 일주일에 하루만 그것도 2~3시간 조작한다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조작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운전 기능이 형성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학교 일정으로 한주 밀려 경우, 공휴일이면 또 한주 건너뛴다. 학교마다 분반수업의 형태가 다르지만 그런 경우에 기능습득 기간을 더 길어지면 비능율적이다.

직업계고등학교는 고등학교라는 교육과정 틀에 직무능력을 넣었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기능을 익히는 단기훈련과정으로 운영하는데 태생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전공 이수단위를 확대 정책을 폈다. 전공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4~50%에서 60~70%까지 조정되었다. 특히 3학년의 경우 100% 전공교과로 편성하는 학교도 많다. NCS로 전공교과 중에 특정 기능과정을 필요한 과목의 수를 줄여서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은 학교 체제가 가지는 태생적 비능율성을 극복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기능훈련 학원처럼 단계별로 분업화하여 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은 학기단위 이수하는 학교에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교사별 수업시수, 교과 시수, 교육과정에 교과 배치, 학년간 동일 교과 지속적으로 배치 등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칙과 여러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이제 2018년부터 추진되었던 고교학점제다. 또다시 먼저 실험 대상이 되었던 직업계고 경험을 이야기 한다. 요즘 고등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점제’ 준비로 부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혹자들은 2025년부터 우리 교육이 그동안의 정책과 매우 다른 결의 제도가 뿌리내린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상 교육정책을 전체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전 일부 학교에 시범운영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지역 고교 85.3%인 319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를 한다. 과거 수구적 정부에서 교육정책도 이렇게 속도를 내진 않았다. 연구시범운영 대상 학교가 이 정도면 경기도의 경우 학점제는 25년 시행이 아니라 21년 시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직업계고는 18년부터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직업계고가 정부의 정책에 실험대상이 되었을까? 두 가지 지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조적 문제이다. 고등학교는 학년제와 학기단위제가 병존하는 체제다. 특히, 직업계고는 대학 학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대가 다르지만 중등후기의 공교육으로 편입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을 일반계고보다 높게 누렸다. 다른 이유는 “나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필경사 바틀비’는 없었다. 오만가지 현실적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반교육정책에 따랐고, 진보적 교육인양 포장한 고교학점제의 실험대상에 저항하지 않았다. 나를 포함해서 무엇이 교육인가. 직업교육에 대한 상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제가 주어진 것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한탄하고 말았다.

직업계고의 유사 학점제 운영 역사는 길게는 30년이다. 특히 2009개정교육과정, 이명박 정부에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당시 전문계고(보편적 직업교육 지향)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체제를 개악하였다. 즉, 인적자원론에 입각한 기능인 양성이며, 비교육적 처사였다. 주요 골격은 학교명과 학과명 변경이었으며, 취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심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를 실행하고 있는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는데 건축과 토목이 통합되는 ‘건설’교과로 발령을 받았다. 건축과 토목의 공통분모는 상당해서 건축과에 재직할 때 어려움은 있었지만, 올해 발령받은 경기영상과학고 영상무대디자인과보다는 수월했다. 올해 내가 담당해야 할 노동조건이다. 건축과를 기반한 1학년 담임, 디자인일반, 2학년 영상제작기초와 컴퓨터그래픽. 학교에서는 부전공 연수와 직무연수를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한 학교와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나의 비전문적 교육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으로 제공된다. 이에 대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비책은 비정규직 확대정책이다.

학교 내부의 문제다. 수업장면은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이 온전하게 학생의 성장과 발달로 이어지려면 그 상응하는 학교교육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8년부터 시행된 직업계고 교육과정 분석해보면 교과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분절적이다. 경기영상과학고 영상무대디자인과를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에 ‘영상제작기초(4

단위)’를 듣는 학생이 2학기에 ‘분장(4단위)’ 수업을 받는다. 두 과목의 내용 기반에 공통점은 없다. 이를 우리는 백화점식 교육이라고 부른다. 과간 중복된 내용이 편성되는 문제도 품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그래픽 과목에서 영상, 사진 편집이 영상제작기초과목에도, 영상제작실습, 영상제작 실무과목에서 곳곳에 중복되고 있다.

혹자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이래서, 세상이 저래서라고만 할 것인가?”라고 고교학점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였다. 세상이 변하면 교육 활동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교육철학과 방식으로 교육받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된다고, 졸업 후 성공시대를 열겠다면서 30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한 유사 학점제의 모습이 위와 같았다. 직업계고 모습처럼 일반계고는 대입으로 왜곡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업계고 유사 학점제처럼 이색적인 교과 신설과 백화점 같은 교육과정 편성은 지식의 이해 수준을 단편적이고 표면적으로 남게 한다.

우리 교육은 인간화교육, 가치교육과 같이 우리 삶에 활용되거나 의미가 있는 교육적 지식이 체계화된 교과교육이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삶과 연계된 교과 내용과 심도 있는 주제 중심 교육활동으로 비교육적 관점과 진검승부를 의미한다. 즉, 중등단계에서 교육변화는 시대변화에 이색적 교과 편성이 아니라 정제된 교과 교육과정에 당시대상을 담은 교육내용으로 교실에 실천적 교육활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영상제작기초 과목 실천 사례 : 작은 희망에 불씨는 버리지 않는다.

“찢” 노동교육 수업 열개 짜기		
1) 수업 개요		
- 교과 정보: 영상제작기초, 고 2학년, 4단위		
- 수업 주제: 독서 통합 노동인권		
- 수업 목표: 노동을 주제로 1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		
- 관련 교과: 노동(기술), 과학사, 정보, 미술, 사회, 도덕, 영어, 국어		
2) 수업 뼈대		
가) 과목 재구조 내용		
대 영역	중 영역	재구성 요소
1. 영상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의 개념 영상 산업의 이해 영상 콘텐츠의 종류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과 과학, 과학기술의 발달 - 중학생 토론학교, 과학과 기술(임병갑 외) - 세상을 바꾼 질문(권재원)
2. 영상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콘텐츠 아이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제작 주제 선정

대 영역	중 영역	재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서 작성 • 스태프 구성 • 대본과 시나리오 확정 • 캐릭터 분석 및 출연자 캐스팅 • 스토리보드와 콘티 작성 	<p>주제학습: 시민인권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권 발달 과정속에서 노동자 권리신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양희영) - 손바닥 헌법책: 값진 헌법 한줄 쓰기 - 십대 밀바닥 노동(교육공동체 벗) -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허태준)
3. 영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콘티 작성 • 촬영 장비 준비 • 카메라 리허설 • 카메라와 렌즈 운용 • 특수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의 개념 <p>주제학습: 인간과 기호, 문자와 영상기호 로 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피언스(유발 하라리)
4. 영상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테스트 촬영 • 조명 장비 선택 • 조명 기법 • 조명 실행 • 조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 - 소설점 표현하기 <p>주제학습: 영상 속 노동의 상징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영상 촬영 기술 <p>주제학습: 사진 합성은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김성민)
5. 영상 음향 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준비 • 동시 녹음 • 후반 녹음 • 사운드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촬영 기술 <p>주제학습: 개인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p>
6. 영상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 환경 구성 • 편집 자료 분석 • 영상 편집 • 색 보정 • 종합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제작 프로그램 익히기 • 1분 영상 제작하기

나) 주제 융합 수업

- 기술과 과학, 과학기술의 발달 :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참고서적: 세상을 바꾼 질문(권재원, 다른)

- 과학과 건축의 상호작용, 가구도 건축이다. 참고서적: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홍성욱, 서울대출판문화원), 중학생토론학교 과학과 기술(임병갑, 우리학교)

- 인권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권 발달 과정에 노동자 권리 신장, 참고서적: 근대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양희영), 손바닥헌법책 값진 헌법 한 줄 쓰기, 의자놀이(공지영, 휴머니스트)

다) 주제 수업

- 인간과 기호로 표현되는 영상기호 이해, 영화 속 노동자 상징 찾기
- 우리 일상 속에서 노동 상징 추출하기 (DSLR 촬영 기법)
- 전문 영상편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컴퓨터 구성(컴퓨터 구성)
- 전문 영상편집 프로그램 영어 사용설명서 해석하기(프로그램 익히기)

마) 영화제 제작 수업

- 노동인권 주제 설정과 시나리오 작성하기, 현시창(임지선, 알마),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교육공동체 벗)
- 정지영상과 동영상 촬영하기
- 동영상 제작하기

- 바) 수업평가 계획
- 사진 글쓰기 : (논술형 주제) 사진 합성은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 영상 구조 : (실습형) 1점 투시 원근법을 이용하여 내공간 표현하기
- 영상 제작 : (실습형) 노동 주제 영상 제작하기(1분 내외)

현 교육부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직업교육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으며”라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보기에는 2021년 1학기 나의 수업을 최하점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래도 위 사례와 같이 나에게는 아직 희망은 불씨는 있다.

20년차 보편적 노동교육을 꿈꾸는 교사인 내가 내린 결론이다. 입사전부터 지금까지 경험들을 두서없이 쓰면서 이 꼭지 마무리로 올해 1학기 수업한 ‘영상 제작기초’ 실천사례를 잡았다. 교육당국이 정한 교육과정 틀 속에서 보편적 노동교육을 작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있다. 교육과정의 주도권을 교사가 되찾기 위해서 비교육적인 관점에 연구, 비교육적인 목적 등등 진지하게 저항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험 기술할 때 가장 걱정되었던 점이 동료 교사였다. 그 위험성을 너무도 잘 알지만 그래도 세상을 향해 보편적 노동교육을 해야 하는 외쳐야 한다. 나의 목소리를 현재 직업교육의 주도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보이기 위함이다. 현직 교사를 비난할 의도는 없다.

2. 학교와 산업의 연계 : 2015개정교육과정은 벌려야 할 계륜이다.

가. 교육부: 가치지향적 직업교육이 기본이다.⁶⁾

6)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이에 대한 전통교육철학은 이원론적 입장을 가졌다. “넣어 주어야 한다. / 이끌어 내야 한다.”로 대표되는 정반대 관념이다. 근대 학교 공교육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지금까지도 이 두 입장에서 서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상적 인간상을 인간 외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장에 대표적 사례로 ‘늑대 인간’을 든다. 인간이지만 늑대 구성원 속에서 인간다움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요소도 제

외국의 연구는 우리에게 교육문제에 해안을 찾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노동부에 예산이 기관 운영에 핵심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에서 생성되는 문건들에 외국 참고를 비난할 수 없다. 태생부터 지금까지 직능원의 연구는 내용의 근본 방향과 전제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관이 참고하는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인용되는 점이다. 교육부의 발표자료가 다시 직능원의 인용 자료로 활용되는 순환고리가 생겼다. 이 고리는 누적되어 더이상 깨지는 않는 단단한 고리가 되었다.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은 가치지향적 직업교육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가치가 없는 논리를 무한 반복하는 문제이다.

즉, 주제중심교육이다. 컴퓨터그래픽 과목에 포토샵이라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배운다. 학원에서 배울 수 있고 취업훈련원/소에서도 배울 수 있다. 학교에서 배움은 같은 방식이 안된다. 나는 한 학기 이과목을 담당하면 이런 실천을 했다. 주제는 기후위기이고, 포토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생하는 인류'라는 주제를 정하고 A3크기에 상징그림 구상하여 제작하기 과제를 제시했다. '자전거 타기' 이미지를 활용한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이 주제 선정의 이유와 기후위기에 다양한 이야기를 스스로 내뱉도록 수업을 구상해나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이하여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여 중3부터 진로설정하고 고1부터 고3까지 몰아세우는 직업훈련교육을 교육부가 하는 것이 옳은가? 노동부에 노동자훈련에서 취하는 태도 아닌가. 아래 상자에 금융교육의 지향점에 유추하면 가치로운 직업교육의 상이 잡힐 듯 하다.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 4조에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0년 마련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이 마련된다. 금융교육이 '많이 벌어들', '부자가 되어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돈을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돈에 관한 합리적 사고를 할 줄 알게 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방향을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과목 성격 규정과 운영 방법 제시일 것이다. 그 방향이 가치로운 직업교육이란 틀 속에 들어있지

공받지 못했다. 인간의 모습을 하였지만 온전한 인간성을 가지 못한 것이다. 즉, 인간이 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애써 이룩해 놓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배우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인간성 형성은 인간 내면에 있고 교육의 역할은 '내부로부터 계발'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았다. 넣어 주어야 한다보다 이끌어내야 한다가 더 진보한 교육철학처럼 보이기 하나 서구 합리적 계몽주의 정신으로 기반하고 있다. 즉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간다움을 배우도록 하여 이전과 다른 세상을 건설하겠다 발상이다. 이런 근대적 믿음을 실현한 보편 교육이념에 기초한 근대 학교교육 제도이다. 20세기까지 교육철학의 양대 논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못하다. 직업교육의 재양적 모습을 보고 실무자인 현장교사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처럼 또 10년을 보내야 하는지 한탄하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2022개정교육과정은 기존의 204단위 이수에서 192학점(자율활동 축소가 핵심이라서 교과 이수단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이상을 취득하는 것으로 졸업 인정이 달라지고, 학점제 운영 모형은 아래와 같다.

- 과목 성격

< 현행 >		< 개편 방안 >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보통	공통, 선택	공통, 선택(일반, 융합, 진로)
전문	전문교과Ⅰ(특목고)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초소양 - 노동 마다어, 지식재산 금융, 정보기술
	전문교과Ⅱ(특성화고) - 전문공통 - 기초 - 실무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 공업일반, 상업경제, 농업이해 등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 NCS 24개 대분류 체제 재구성

- 운영방식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모형(안)]

구분	운영 모형	내용
기본모형	① 세부전공 코스형	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u>인력양성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세부전공(코스)을 선택</u> 이수
	② 후학습 지원형	선취업-후학습에 대비한 <u>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해당 과목의 학점 확대 및 교과 선택 기회 제공</u>
	③ 타학과 융합형	학과 전공과 관련 있거나 <u>학생이 이수를 원하는 타 학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u>
	④ 부전공 이수형	타학과 과목을 <u>심화 이수</u> (예시: 24학점 이상)
선택모형	⑤ [공동교육과정] 1:1 매칭형	인접한 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일반고, 종합고 내 직업↔일반
	⑥ [공동교육과정] 연합캠퍼스형	지역 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거점학교 지정(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일반고), 공동실습소 활용(일반고 포함) 등
	⑦ 학교 밖 연계형	지역 및 국외 <u>산업체 대학 등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활용</u>
	⑧ 블렌디드 학습형	원격 수업 + 학교 밖 체험 + 학교 내 수업을 혼합

‘학과내 ①, ②’ 운영방식에 현장교사들이 가장 불만이 크다. 앞서 진로선택이

조기 결정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2015개정교육과정과 같은 개념이다. 그것을 운영모형이라는 하면서 없었던 것을 새로 제시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도 전공 기반이긴 하지만 계열별 학과군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 과목을 운영하고, 타 학과 자격 취득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 산학협력, 체험, 견학 등과 같은 학교 밖 교육의 학점인정 요구’ 역시 교과 학습으로 인정되고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의 지도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교과 교사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 하나는 ‘융·복합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일반고의 경우 특정 진로 분야를 위한 진로 설계를 하고, 직업계고의 경우 겨우 타학과 교육과정 수강이나 부전공코스 정도로 실현하라고 한다. 도대체 ‘융·복합’의 뜻을 알기는 하는가?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만든 ‘짜파구리’ 정도를 융·복합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학생/청소년들은 잠재적 노동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직업의 종류,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의 노동, 새로운 고용 시장의 환경과 조건 등에서 ‘강화된 노동권’과 ‘생존 기술(역량)’을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20대에 입직한 노동자들은 10여년이 흐르면 같은 현상이더라도 전혀 새로운 노동 조건이 펼쳐지는 것이 자명하기에, ‘단순한 기능’ 습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범기초직업역량을 체득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생존 기술(역량)이 더욱 절실하지 않겠는가? 2000년 초, 노무현 정부하에서 직업교육정책보서들은 이런 점을 미리 예견하였다.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였을까? 실종하고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나. 2015개정교육과정은 직업훈련 개념이 망쳤다.

박근혜 정부의 NCS기반 2015개정교육과정(연구기관 문건에서 90년대부터 등장함)에 개정을 추진할 때 전교조는 개정방향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직능원 문건은 희망찬 밑그림을 그렸다. 최근에 우리의 지적한 문제점들이 직

능원에 ncs 개선을 연구한 문건에 발견되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교학점제 연구 자료가 이어 발견되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직능원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나는 전문성 식견으로 직업교육정책과 직업훈련정책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직능원이 가지는 한계는 직업훈련정책을 직업교육정책에 넣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직업훈련기관이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직업교육기관도 그랬다. 후발 산업국가 기술력 기반은 장시간 축적한 노하우가 없다. 게다가 사회 변동성이 매우 큰 국가였다.

직업계고는 여러 차례 역할에 변환을 가져왔다. 80년 이전 고학력기관에서 산업화 기술자를 배출했다가 1980년 이후 전문대학으로 종결적 의미에서 직업교육은 옹기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80년 후반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3저(저유가, 저환율, 저금리)로 고성장기 현상, 90년부터 정보화시대에 기능인력 수요 증대될 것이라 예측하는 직업교육훈련 연구물이 생성된다.

직업계고 교육정책에 가르치는 분기점은 **고등학교 교육을 직업훈련인가? 직업교육인가?에 있다.** 아래는 1967년 노동청에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을 분류하여 정리한 표이다. 몇 가지 지점에서 쟁점토론이 필요하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해보면 유효한 관점이다. 그럼에도 2000년 전후로 진행되는 논의들은 두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다른 결의 성격규정은 어떤 정책에 평가와 판단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장하는 정책제안이 갈리고 있다(청소년 '일경험'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황여정 외1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구분	직업교육	직업훈련
목적	건전한 시민 생활능력의 배양	직종별 수용에 따른 기능인 양성
	기초, 일반적, 방법적 지식 습득	생산적 적응력 배양
대상	학생	취업자
		구직자
특징	비경영적 시설	경영시설의 활용
	경영관념 등한시	경영의식과 직결
	이론중심	실기중심
	단기적 조치	계속적 지도
효과	장기적 투자	단기투자자와 생산의 병행
	과중한 비용부담 ??	부담경감
	수급의 불일치	단기수급조절

< 직업훈련사업현황, 1967 노동청 참고 >

7) 직업훈련은 어떤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직업상 필요한 능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직업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일(다음 한글어 사전)로 구분되어 있다. 전통적 교육철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넣어 주어야 한다.'가 직업훈련이고 '이끌어 내야 한다.'가 직업교육 관점에 기본 지저임.

특성화고 직업교육활성화 대안 제시(조용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 회장, 2021.06.18.)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정책에 주요한 의사 결정하는 분들이 생각을 들어난 인터뷰 글(조용 회장)이 있다. 그분의 핵심은 보편적 교육의 끝 지점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직업훈련 정책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토론자가 아니기에 그분의 주장을 비현실성을 쟁점 삼지는 않겠다. 기술 사회가 변화가 없고, 정해진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육과정과 그것을 잘 운영할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전제다. 이런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매년 인사 이동을 한다. 직업계고는 동일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지 않아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크게 흔들린다. 이와 같이 정해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각각 직업계고마다 교육과정이 유사하지 않다. 진지하게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교사에게 지옥같은 현실을 직업계고등학교에 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분들은 기초적인 현실을 너무 쉽게 외면한다.

실업계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국은 특성화고를 통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미국과 영국은 그런 게 없다. 직업교육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공식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고와 교과과정에 '선택과목'이나 '선택프로그램'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독일, 스웨덴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은 국가에서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관리하여 전문적으로 가르친다. (중략 ...건축분야...) 전기, 배관, 건축목수 이런 영역에서 자동화가 가능하겠는가? 이쪽이 오히려 자동화할 수 없다. 엄청난 로봇이 나오기 전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안전한 업종인데 공교육에서 이걸 놓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쪽은 주로 화이트칼라가 하던 일이다. (이범, 2021.02.19.)

이를테면 관광 가이드가 되려는 학생이 일본어와 사진을 선택하고, 택배 배달원이 되려는 학생이 운전과 기초 회계·세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격교육을 활용하면 당장도 시작할 수 있다. 아울러 과목별 필수이수단위를 해제하여 이를테면 고1부터 수학을 이수하지 않을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이범, 2021.01.21.)

누구를 무시할 생각은 없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년을 빼고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중등후기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정책이다. 본격으로 2022교육과정 직업계 분야를 개선안을 고민하려면 2015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다. NCS교육과정의 실제

교과서 없는 교육과정이 만약 일반계고등학교에 적용되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세상이 많이 시끌시끌 했을 것이다. 수 년 동안 메뉴얼을 수업교재 삼아 수업

했던 직업계 교사가 다수였다. 친기업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직업계고에 교시과목 이외 교과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도제교육이 선진직업교육 인양 선전한 박근혜정부는 교과서 없는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이 너무 강력하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에서 직업계고에 교육활동의 자유권을 확대한 것이 아니다. 학교와 산업에 연계, 즉 차별적 예산지원과 연계한 취업교육과정을 강제였지 지역 사회와 여건에 고려한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의 자율권은 허울에 불과하였다.

나와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진 글(실패한 NCS 정책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김안국, 2021.06.10. 한겨레)을 소개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건설이라는 구호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만들었다. 능력중심사회로 표방되는 능력주의가 개인 성과의 불평등이 사회가 아닌 개인책임(능력 부족)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찰 없이 대대적으로 개발 보급한 것이다.

원래 국가직무능력표준은 1980년대 중반 현재처럼 산업이 복자하지 않았던 시기에 직업교육과 산업의 연계가 약한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시장중심주의 국가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산업이 복잡다단하게 발전하고 직무의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NCS는 시의성이 떨어졌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이상의 개발을 멈춘 상태다. 뒤늦게 2013년 시작한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NCS개발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산업단체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한 방식이 아니었기 NCS가 적합한 직무를 선별하는 과정이 없었고, 직무 분류 단위는 너무 세분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NCS는 정부는 천편일률적으로 보급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큰 잘못은 NCS를 정규교육과정에 적용한 것이었다. NCS기반 직업교육이 교육으로서 타당성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기능)을 갖추도록 학생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교육의 본령이다. 직업교육을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고, 기술 습득과 함께 몰입하고 전문성을 쌓아가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산업 환경 속에서 직업교육을 마친 이들이 스스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NCS의 활용을 힘없는 직업계고등학교에 강제하였고, 전문대학에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NCS 활용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결국 NCS기반의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학교 사정과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NCS를 산업체 근무 경험이 없는 교사나 교수가 가르치는 일이 벌어졌다. NCS 학습모듈은 학교시설이나 장비로 실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산업현장 전문가가 제시한 평가 방법도 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는 전문적인 기술 능력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토대 되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NCS 교육과정으로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되어 버렸다. (생략) 기업에서 쓰지도 않는 NCS기반 교육과정을 짜고 가르치느라 직업계고 교사와 전문대 교수들이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모집, 교원 연수와 수급,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편성, 실습실 구축, 산학 협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 졸속으로 만들어져 시작된 NCS 교육과정이 이번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서울랜드 이직률 절반 낮춘 비결, 결국은 시스템,..NCS도입’ 2021.7.25. 아시아경제 신문에서 NCS 옹호하는 기사를 쓴다. 경제신문사라서 그런지 NCS관련 기사는 다수가 있다.

1년 일하고 떠나는 직원들을 바라보는 서울랜드는 고민이 컸다. 매년 200만명 넘게 방문하다보니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 그만두는 이들이 속출했다. 서울랜드는 NCS을 도입해 문제를 풀었다. NCS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누구를 가르칠지를 파악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일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표준화한 체계다. NCS 도입 후 서울랜드의 월평균 이직률 10%에서 4%까지 두 배 이상 급감했다(근거자료라고 하기에 부족해 보임. 즉 월 이직률이 4%이면 연 50%에 유박함).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인재를 프로그램을 통해 뽑고 있다.” 꼭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미용사회는 미용실마다 고객 만족도 차가 너무 크게 고민이었는데, NCS를 대안으로 활용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NCS가 사람을 키우는 일의 핵심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2022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무혈입성하고 있다. 80년이후 주요 국가들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90년대 문건에 나왔던 NCS 망령이 미래교육과정에서 등장한다.

- 전공학과 기반으로 전공 심화 및 융복합 인재양성 : 경직적인 학과 운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
- 학교 밖 학습경험 확장을 통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강화 : 현장실습, 산학협력, 체험, 견학 등과 같은 학교 밖 교육의 학점인정 요구 증대
- 직무역량 보장을 위한 책임교육의 강화 :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의 지도에 대한 책무성 제고

위는 교육부가 22년부터 모든 직업계고에 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검증되지 않는 교육정책의 실험장이 되었다. 유사학점제 시행했던 과거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교학점제로 둔갑시켜놓고 학교성과를 끼워 맞추는 발표를 2021.3.15. 직업 학점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연한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인가? 전공 관계없이 과목 선택을 의미하는 데 실제 시범 운영학교 사례를 분석해보면, 문화센터나 개설되는 내용 아니던가?

라. 노동권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미비

노동교육에 한 부분인 노동권과 노동인권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에 담고자 여러 교육시민노동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노동교과’로 독립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 기존 교과내용으로 포함하는 방향성과 쟁점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각설한다. 다만 2015개정교육과정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와 일반교과에 포함된 노동은 너무 빈약했다는 점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마. 교사 교과목 지도 전문성 상실

학교에서는 부전공 연수와 직무연수를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한 학교와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비책은 비정규직 확대정책이다. 그 심각성은 올해 3월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조사에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학과는 전공교사 100%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교사의 증가는 노동을 통해 단련되는 숙력과 전문성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

많은 것을 이해한다. 공립학교의 인사는 매년 학과구성원이 변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계 전공 교사는 매학기 여러 과목과 매학기 바뀐 과목, 여러 학년을 담당한다. 올해 서울지역 전공교사는 1,337명 중에서 3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는 747명으로 55.9%에 해당하는 조사결과다. 나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의 교과목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토양이라는 것이다. 결국 교사의 비전문적 교육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으로 제공된다.

나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 같은 과목을 1년 동안 가르치는 소박한 꿈이다. 조금 욕심 내 본다. 같은 과목을 2년 동안 담당해 보았으면 한다. 변화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매년 학생 구성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교육활동에 변화를 준다. 대부분의 교사는 항상 시대성을 반영하는 교과내용으로 수업에 변화를 준다. 내가 가진 생각이 월급쟁이로써 직업인이 가지는 나태함이 아니라 교사가 그리는 정상적인 열망이라는 것이다.

바. 1년 과정(6개월), 고등학교 3년 과정, 전문대학 2~3년 과정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어느 직종은 6개월~1년 과정이어야 하고 어느 과정은 고등교육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나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학원이나 훈련소과 같은 단기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사이에 직업계고등학교 애매하게 끼어 있다. 사례는 들지 않겠다. 이미 교육부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직업교육과 훈련정책은 개별 노동자에 역량에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로서의 완성적 기능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공종별/공정별/영역별 노동과 연결하고 전체 생산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노력을 확인하는 공존의 실제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은 노동교육 전체 과정속에 녹여내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직업고교이 위상이 개별 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보니까 2018년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에서 생존권과 직결된 단체와 사립대학의 반응속에서 고래사이에 낀 새우로 모양이었다. 학과개편,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편제연계 등 확장해서 논의해야 할 주제가 많아서 '중복되는 인력양성과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표명으로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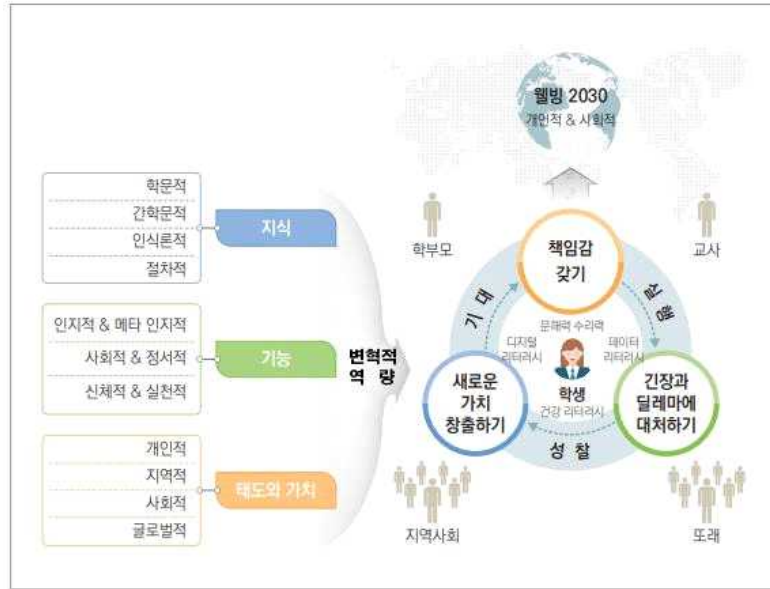
3. 교육과 노동의 결합 : 2022개정교육과정에 제안

가. 외국 흐름을 먼저 짚어보자

OECD 교육 2030이 가지는 한계는 존재하고 있다. '이 제도가 100%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우리는 51%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다. 주체적인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나긴 여정을 학령기에 보내야 한다. 유아, 초등, 중등교육과정에 인간발달의 중심활동과 발달기능이 발달단계에 조응하도록 시기별로 실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비고츠키 교육학에서 제시한 인간발달의 중심활동과 발달기능은 본 논의 범주를 벗어나서 각설하고자 한다. 다만, OECD교육2030에서 우리 2022교육과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노동교육'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발췌하였다.

- 전체 교육(OECD 교육2030) 속에서 개별 요소(실행 기능)를 보다.

OECD 교육2030 학습틀 개념도(역량-> 변혁적 역량으로 수정)



* 출처: OECD(2018: 5) 한국교육평가원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다수의 선한 영향력을 지닌 공화민을 성장하기 바란다. 학생들이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와 가치를 발달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풍족하게 누리기 위한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직업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낭만적인 기대에 불과하다(OECD 교육2030 참고). 이와 같은 지적은 나도 동의한다. 일정 수준의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업세계로 이행은 개인은 직업의 선택폭을 축소한다. 낮은 수준의 노동수준을 장기간 수행하면 인간성의 소외 현상에 쉽게 노출된다. 또한 직업 전환시에도 어려움을 가진다. 실증적 증거는 노동시장 연구논문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토머스 프레이와 같은 미래학자는 ‘미래 일자리 중 60%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래’보고서에서는 “201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 보고이다(천보선, 재인용). 따라서 OECD교육2020은 보편 교육 바탕으로 구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지향한다.

OECD교육2020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많은 나라에서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교육이 지닌 한계를 알아채고,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

능성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보편적인 지식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꾸려 하고 있다.

나. 노동교육 : 직업교육 관점에서 벗어나자!

노동교육이 ‘교육’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직업계고등학교 위상 변화로 점점 직업훈련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직업교육보다 더 높은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노동자 민중이 해방된 사회를 실현해가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계몽’되고, ‘전면적으로 발달’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은 단지 생산기술의 변화에 노동자를 재적응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개념적 사고를 숙달시키고 진전시켜 생산과 사회적 활동에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의 노동은 노동자 생산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하며, 고도화된 정신적, 신체적 역량을 생산노동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생산력을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현실적 조건에서 장기적 추구할 방향).

한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현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집단의 설정이 얼마나 허망한지 구립도서관에서 숨겨진 노동자로 변화하고 있는 ‘사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을 좋은 일 자리로 보고 있다. 심지어는 경외시까지 한다. 이유는 도서관은 책을 다루는 곳이다. 책이 열어주는 경이로운 세상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런 것을 다루는 직업이 가지는 만연한 이미지 아니까 한다.

(중략) 도서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깥세상의 움직임과 너무나 상반된다. (중략) 외부에서는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지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지만 함께 일하는 관리자는 사서의 일을 ‘단순노동’으로 폄하한다. 업무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새 직원으로 교체할 수 있으니 불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 관리자의 직업 인식에 걸맞게 월급은 최저시급을 면하지 못한다. (중략) 국가가 아닌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중략) 구립도서관 중 90% 이상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강민선(전 사서, <도서관의 말들> 저자)

좋은 일자리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위 사례처럼 사서 노동을 전문성 있는 직무로 만들 것인지. **단순노무로 전락할 것인지.**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설계와 **그저 업무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직무로 고착할지 문제이다.** 또한 위 사례처럼 고용이 불안정함으로 오는 낮은 심리적 안정성이다. 사서 직무를 예를 들었지만 최근 급증하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직무를 국가가 나서서 질 낮은 일자리로 만들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관점은 노동교육 관점과 차이를 위 사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학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과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교육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에서 모든 학습자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개인과 공동체, 지구의 건강과 행복에 기초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천적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OECD 교육2030 참고). OECD 2030교육은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행위주체성을 키우고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변혁적 역량’을 기르도록 구성해야 함을 주장한다.

학습자들의 행위주체성을 촉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1) 학생들이 열정을 갖게 하고 상이한 학습 경험과 기회들을 연결하고 그들 스스로 학습 프로젝트와 다른 사람들과 협력 과정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학습에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다. 2) 개념적 사고를 위한 확고한 토대를 세워야 한다. 문해력과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력이 여전히 중요하다(OECD 2030교육 참고). 변혁적 역량은 ‘DeSeCo 역량’과 다른 의미가 있다. 앞서 제시한 학생들이 발달시켜야 할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로 구성된 개념으로 구성 요소 간 대비하지 않고 통괄하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노동교과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보고서가 있다. OECD Learning Compass 2030은 세 가지 유형의 기능을 구분한다.⁸⁾ 보고서에는

8) 1)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기 및 자기규제를 포함하는 **인지 및 메타인지 기능** 2) 공감, 자기효능감, 책임감 및 협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및 정서적 기능** 3) 새로운 정보 및 통신 기술 장치를 포함하는 **실행적 및 신체적 기능**
신체적 기능은 물리적 도구, 조작 및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의 집합입니다. 여기에는 정보 및 통신 기술 장치와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스포츠를 하는 것과 같은 손기능을 포함됩니다.

원리를 익히는 지식과 실천적 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데 노동교과에서는 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타고 교과도 이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⁹⁾ 이와 같은 주장은 2000년 초 노무현 정부에 연구물에서 비슷한 의미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교육은 곧 노동교과로 외화된다. 노동교육은 노동권(권리와 한계), 노동인권(노동가치와 보편적 노동인권), 노작교과(원리와 적용을 포함한 기능) 등을 함양해야 한다. 노동권과 노동인권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노동교육’이라는 교과를 제도권내 정착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있다. 수공예적 손동작에 중점인 노작교육을 포함하여 고학년으로 갈수록 현대적 노동생산활동에서 추출한 기능과 기술 요소를 교육활동 소재로 삼아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교육의 개념을 위 3가지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교과에 대한 논의는 핵심적 사안이 아니다. 다만 **교과서 없는 전공교과Ⅱ**에 대한 문제점까지 이어진다.¹⁰⁾

‘**실행적, 신체적 기능**’은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기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음악과 예술 분야를 통해 신체적 기능 개발하는데, 실행적 기능은 종종 손재주 및 공예품 만들기와 관련 있다. 모든 종류의 기술 사용과 같은 많은 일상적인 기능에는 실행적 기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서를 작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자판을 익히고 숙달해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다.

실수는 발전의 열쇠다. 수술 의사나 항공기 조종사처럼 단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

9) 노동교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교과가 통합하여 교육내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이론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학습자 발달을 고려하고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교육이 대학교육과정 이수자를 선발하려는 목적이 지나치게 보편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등학교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0) 교과교육을 ‘지식 전수’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매우 협소한 비발달적 관점이다. 교과교육은 단지 지식 전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고유의 지식 체계를 매개로 고등정신기능 및 발달역량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교과교육을 통해 함양되는 고등정신기능 및 발달역량은 자발적 주의, 논리적 기억, 의식적 파악, 개념적 사고 등 모든 교과에 공통되는 것과 교과 특유의 것들이 있다. 예컨대 사회교과는 공간적 사고(지리), 시간적 사고(역사), 관계적 사고(일반사회)를 함양해 나간다. 이러한 역량과 기능은 제공되는 지식체계, 활동체계의 매개 없이는 안되지만 지식이 전달된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 발달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개념과 사고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숙달과 창조적 적용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이 요청된다. 교과교육의 주된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량과 기능의 형성, 발달에 있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온 ‘역량중심교육과정’ 논의는 불충분하고 왜곡되어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교과교육은 지식 전달이 주요하기 때문에 원격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시각은 협소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비발달적, 비교육적 관점이다.

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하는데 있어 실수를 통해서 더 낮은 기능을 숙달한다. 실수를 음미하고 나를 해매게 만든 별난 이상을 밝혀내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기묘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교훈을 흡수한 뒤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실수를 뒤로하고 또 다른 실천이 회복된다.

인간은 실수라는 거울삼아 반성하는 '강화 학습'을 통해 일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낸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식을 근거로 추측하고 결과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지식을 형성해낼 수 있다.

<그림 출처: 꿈이자라는뜰, 블로그>

어떤 책도 어떤 의사도 **본인의 섬세한 사색과 신중한 관찰을** 대신하지 못한다. 기교공식으로 채워진 책이 모호려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생각을 더디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연구, 의견에 따라 사는데 급급한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사물을 느리게 관찰하는 능력이** 잃어버려갔다.
-야누슈 코르차크 Janusz Korczak 'Loving Every Child: Wisdom for Parents'

야누슈 코르차크의 글로 나의 주장을 대변했다. 이를 두고 노동교육을 현행 중, 일반계고에서 배우는 기술교육으로 보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 직업계고등학교는 노동교육이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현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학습자의 발달에 온몸으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점이다. 참고 기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몸으로 배우는 수학, 성적이 쑥쑥!” 2017.02.19. 기사

“몸으로 느끼는 수학은 좋은 기억을 남긴다” 2021.07.24. 기사

“순차적인 언어로 기술되는 ‘서술적인 기억’과 ‘형식지’의 영역이 아닌, 동작을 몸으로 익히는 ‘절차적인 기억’과 ‘암묵지’의 영역이 인간의 근육을 통제한다(유지원, 홍익대 교수).”

[참고자료]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교사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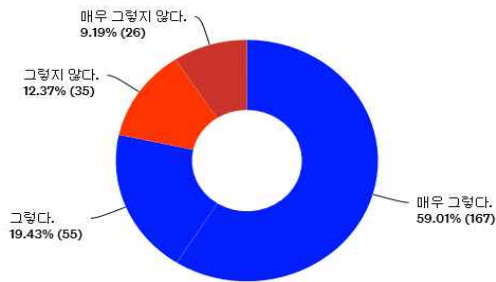
■ 설문기간 : 2018년 7월 18일(수) 18시~7월 21일(토) 20시

■ 참여 인원: 283명 (전국 직업계고 전공교과 교사)

■ 문항 1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수: 283 견너됨 수: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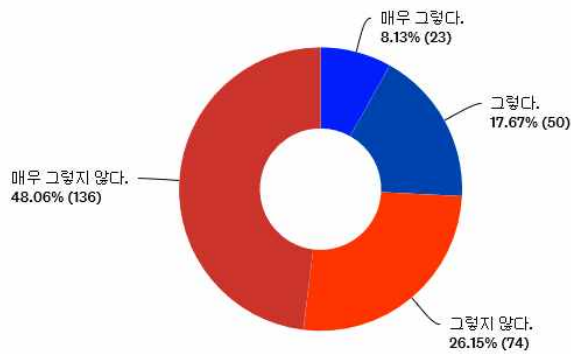


보기	응답	인원
▼ 매우 그렇다.	59.01%	167
▼ 그렇다.	19.43%	55
▼ 그렇지 않다.	12.37%	35
▼ 매우 그렇지 않다.	9.19%	26
총계		283

■ 문항 2

직업계고는 직업훈련 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수: 283 견너됨 수: 0



■ 문항 3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에 담겨 있는 중등 후기(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를 묻는 5개 문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교육부 계획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동의 의견		반대 의견	
2015개정교육과정(NCS)과 같이 현장실무, 노동자의 직무활동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공교육 기관인 직업계고에 교육내용과 과정 운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36% (18)	14.49% (41)	22.61% (64)	56.54% (160)
교육부는 구체적 전략으로 ‘직업교육훈련체제 유연화’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점제 도입, 무학년제 운영, 3년 수업연한 폐지 등을 제시합니다. 직업계고 교육활동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13% (23)	14.13% (40)	28.27% (80)	49.47% (140)
교육부는 구체적 전략으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을 설정하고 실행 과제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자기진단평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제고사가 직업기초역량 교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36% (18)	12.37% (35)	29.33% (83)	51.94% (147)
교육부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제공’ 방안으로 직업계고의 학과를 신 직업 분야로 학과구조조정을 계획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야의 직무를 직업계고 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4.95% (14)	11.66% (33)	24.38% (69)	59.01% (167)
교육부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 교원의 개방성 확대정책(교사자격 제도변경)을 추진합니다. 직업계고 교육의 본질에 적합한 교원 임용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30% (15)	8.13% (23)	22.61% (64)	63.96% (181)

1) 노동자의 현장 직무활동을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편성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73.15%가 반대하였다. 교육부의 안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56.54%)이 적극 동의하는 입장(6.36%)이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다.

2) 직무교육훈련체제 유연화 전략으로 시행하려는 고교학점제, 무학년제, 3년 수업연한 폐지 등에 대해서도 직업계고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는 입장이 77.74%에 달한다. 학사 운영의 혼란과 학교 운영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선부른 정책으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일상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3) 2012년 일제고사 형태로 도입된 직업기초능력평가가 매년 직업계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에 더하여 미래 사회 직업 역량의 향상을 도모한다며 고1 직업기초역량평가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81.27%의 교사들은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직업계고 일제고사가 학교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일제고사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반대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다.

4) 직업계고의 학과를 신직업 분야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81.39%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생 산업의 미래는 불확정성이 높으므로, 검증되지 않는 분야를 선불리 설정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중등 단계 직업교육에서 적합하지 않다.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는 학과 개편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서둘러 추진할 일도 아니다.

5)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 교원의 개방성 확대 정책(교사자격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86.57%가 반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기능경기대회 교사 조사결과

1. 기능대회 제도에 대한 의견

질의: 기능경기대회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필수] 선다형 문항 응답자수	비율	‘이유’ [선택] 서술형 문항 응답자수
현재 상태 유지	26명	8.3%	21명
교육적 활동으로 개선	151명	48.1%	101명
비교육적 활동임으로 폐지	137명	43.6%	117명
합계	314명	100	

2. [현재 상태 유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선택 서술식)

* 응답 21명 이유 : 교육부는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는 모두 공기업 특채 대상자로 선정하는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 선택서술식 :

- 자격취득, 취업, 대학입시, 세계대회 출전 자격 등등 얻기 위해 지금과 같은 상태의 대회가 필요함.
- 전문인력양성과 학생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함.
- 진로와 취업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함.

3. [교육적 활동으로 개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선택 서술식)

* 응답 101명 : 3년 이내 교육부는 기능경기대회를 학습결과 확인할 수 있는 경쟁이 없는 교육활동으로 전환하라.

* 선택서술식 :

- 일부 기능반 학생에 집중된 기능훈련은 일반 학생이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게 되고 전체적으로 직업교육 성취결과를 낮게 만드는 원인임.
- 기본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능연마로 학교 교육을 변화해야 하기 위해서 기능대회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함.
- 교사 가산점, 포상 및 차별적 재정 지원 정책, 시도간 과열 경쟁 장치,

해외 연수와 같은 입상자 혜택 등과 같이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전근 대적 관행 폐지

-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 활동을 보장 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직종 폐지, 단독 출전 학생인 경우 출전자 부풀 리가 심하는 직종 폐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종도 일부 학생만 혜택을 주는 등 비합리적인 면을 개선해야 함.

4. [비교육적 활동임으로 폐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선택 서술식)

* 응답 117명 : 정부는 학교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기능대회를 전면 폐지하여 직업교육 정성화에 나서라.

* 선택 서술식

- 교사의 실적을 쌓기 위한 활동으로 전락하였으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대회 준비에만 3년 내내 몰두해야 하여 심적 육체적으로도 고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입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순위권에 오른 학생들 사이에서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경우에는 기능대회기간에 담당 교사가 심사위원들에 청탁하여(술자리 마련) 잘 보여야 평가 점수를 더 잘 쳐주어 결정적인 순위를 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즉 점수 조작이 가능한 구조임).
- 직업계고 대부분의 기능반 운영이 학생들이 수업을 하루 종일 듣지 않고 기능대회 준비를 하거나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준비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지치기도 합니다.
- 교사들 또한 같이 남아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퇴근 후의 삶이 거의 없고 방학도 거의 없습니다. 기능대회는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대회이고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과는 다른 별개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기능반을 없애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능대회에서 상을 받아 왔던 학교에서는 전통을 고수하고 여러 가지 이점(기능반 예산, 승진 점수, 기능상 부상 등)을 계속 얻기 위해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기능반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에 맞지 않고 학교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학생들이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상태의 기능경기대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기능대회 입상자는 취업과 연계되고 대기업에서 지도가 이루어지며 기능 전수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교들이 기능대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상 결과를 홍보하며 학교 홍보의 역할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 활동으로서 아닌 각종 대회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능대회도 고교수준에서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에 비해 기능대회 입상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 정도가 미미하여 학생들도 기능생으로 적을 두고 있으면서 대회를 준비하는 데 불만이 많고, 추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전폐하다시피하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매달려야 하므로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스란히 피해의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 수업 교사는 수업에 안 들어와도 결과 체크 못 합니다. 수행평가 안쳐도 최하점 못 줍니다. 일반생이 기능생 성적이 높은 이유로 반발하면 설명, 회유해가면서 기능생 성적을 줍니다. 담임교사는 학기초 며칠만 학생보고 1년 동안 못 봅니다. 기능생은 일반생과 어울리지도 못 합니다.
- 기능대회 참여 학생들은 3년 동안 교실수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돌아가야 할 학교예산이 이들 소수의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형평성이 어긋나며 식사우선권등 모든 편의를 보아줌으로서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 비교육적 상황이 초래되고 이들의 기능대회 입상과 유명기업체 입사는 개인의 성공에 국한 되는 것이지 직업계고등학교 교육정상화와는 무관하다.
-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모두 빼고 진행하고 있는 현 실정의 기능대회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다.
- 다수의 학생이 보편적인 기능을 익혀 취업하는 것이 시대에 맞습니다..소수에게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탄 메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요? 전국 대회 금메달을 따도 취업처를 못 찾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냥 정규과정에서 잘하면 우수한 학생입니다.
- 원래 취지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교육과정이 관련없는 종목이 많고 학교교육 내용이 없는 종목도 선택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기능생의 장기적 훈련으로 경비를 왜곡된 형태로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다

하므로 일반 학생들의 실험실습 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직업계고는 이명박정부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 동일계열의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도 학교마다 특화된 학과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현재 실시하는 농공계열의 기능대회와 상업계열의 경진대회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정부 때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 컴퓨터 관련과를 모두 폐지하여 교육과정에 없는데도 여전히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에 없는 부문의 경진대회를 참가하려면 학생의 기초지식이 없으므로 지도교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평일 방과후 시간 지도로는 부족하여 주말 또는 합숙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부에서 수상한 상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학생 본인에게도 뿌듯함 외에 남는 자산이 없어 지원하는 학생도 적습니다. 그래서 경쟁시스템인 기능대회, 경진대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전교생의 교육보다 한 두명의 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을 목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1~2명을 위한 담당강사초빙, 재료비 등 또한 참가 학생들은 실습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연습시간을 허용해야하는 학교 분위기로 전문교과가 아닌 일반교과는 수업결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반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여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 비정상적 교육과정, 열등감과 상대적인 패배감을 야기하는 학생문화 등 기능경기대회는 모든 학생이 주인이 되어야하는 학교에서는 비교육적 활동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학생과 교사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심사위원 로비, 과제선정 로비 등으로 금품, 향응이 판을 치고 학교에서는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 꼼수를 쓰고, 그 돈을 심사위원 등 관련자들이 즐깁니다. 미리 돈(로비) 쓰고 입상한 기능생에게 값으라 하기도 합니다. 해당학교 졸업생이 심사위원이면 충성을 다해 우기기라도 해서 자신의 모교를 입상시키려 합니다. 심사위원 선정부터 자신의 학교를 도와줄 사람이 위임되도록 로비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요.

토 론 1

**우리나라 직업교육 교육과정 문제와
개선 방안**

이 수 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문]

우리나라 직업교육 교육과정 문제와 개선 방안

이 수 정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I. 시작하며

현대 사회에서 일과 직업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직업교육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1899년 상공학교의 설립을 한국 직업교육의 효시라고 본다면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의 발제자의 발표인 ‘특성화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이 바라본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어제와 오늘의 직업교육을 점검하고 내일의 직업교육의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있는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되어 영광이며, 감사드립니다.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토론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II. 학생, 그리고 교사가 바라본 직업교육의 문제점, 개선 방안

1. 특성화고 학생이 바라본 현재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첫번째 발제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이 인지하는 학교 특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진로지도 등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요구 등에 대한 양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표들이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특성화고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에게 전달된 원고가 본 조사결과의 일부만을 발췌한 내용(초

안)이라 어떤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를 하셨는지, 본 연구를 통한 직업계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아 토론자로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이므로 조사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❶ 직업계고가 아닌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이유, ❷ 응답자(학생)의 계열을 공업, 상업정보, 농업/기타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러한 분류가 본 설문조사 결과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업계고등학교는 17개 교과군으로 구성(표 4 참조) 되어있으며, 이는 1차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직업교육의 주요 분야인 5개 계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9.4.1)기준 특성화고 학교수는 공업(41.6%), 상업정보(38%), 가사·실업(11.2%), 농생명(7.7%), 수산·해운(1.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가사실업계열 학과(음식조리, 미용관광레저 등)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증가하여 199년 108개 학과 → 2019년 현재 1453개 학과로 전체 학과의 50%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발제자가 구분한 계열의 구분은 설문결과의 해석 뿐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교(학과)에 대한 소속감, 진로 계획 관련된 자존감, 교사들의 전공 및 정체성 측면에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 자료 : 김성남·김남희(202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직업계고 온라인 개학 대응 동향 및 주요 이슈」, p3 <표 2> 직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주요 현황

2. 직업계고 교사가 바라본 현재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교육과 노동이 결합되는 교육과정이 공교육에서 구현되고 있는가? 질문과 함께 ’ 1.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2. 교육과 산업의 연계, 3. 교육과 노동의 결합: 2022 개정 교육과정 제안 ’ 등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첫째, 발제자께서 현장 교사로서 그 동안 여러 정책, 제도의 변화를 겪으면서 체험한 애로사항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동안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적 요구, 역사적 맥락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해외의 사례 등을 통해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며, 4차 산업의 등장으로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직

업계고에서의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삶과 통합되어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가 되도록 ‘역량중심 교육과정 ‘기반의 교과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Ⅲ. 학생, 교사가 만족하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두 분의 발제문에 토론자로서 공감하며, 앞으로 학생,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직업교육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과 “직업”의 ‘보편성’ 가치를 조명하고, 일반교육, 직업교육의 양분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는 삶과 함께하는 직업교육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문에서 논의된 바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과 ‘직업’에 대해 어떻게 바라다보고 있는지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에 대해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혹, 우리 스스로가 일과 직업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고, 일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는 존재인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일, 직업을 중세 이전의 ‘일’인 부자유와 고통이라는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인간의 본질을 규정해 온 말은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즉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규정하였는데, 근대사회 이후에 등장한 노동하는 존재로서 인간, 즉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하는 호모 하보란스(homo laborans)이다. •프랑스어로 ‘일(travail)’의 라틴어 어원은 고된 작업을 통해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유롭지 못한 강제적인 것, 인간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중세까지는 ‘일’은 부자유와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근대 이후 일과 직업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일 부분이 되었다.
- 이후 직업, 직업적 활동으로서의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 직업을 통해서 나타나며 일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즉, 일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일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은 삶에서 각자의 목적을 지향하는 삶의 의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노동을 통한 자유’가 삶의 목표가 되었고,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노동의 가치도 인간의 삶 깊숙이 내면화되었다.

- 자료 : 임규정(2016). 「철학교육에 있어 직업교육」, p196~197 일부 내용 발췌 인용

둘째

특성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는 직업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발제문에서 확인하였듯이 ❶ **학생들은 특성화고 진학의 이유로 ‘취업(53.5%)’ 이라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희망 이유: 선취업 후진학 계획(29.9%)[취업 후 대학 진학 계획 있음(47.3%)], 하고자 하는 일이 고졸도 가능(18.9%),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17.7%)]

• 이는 직업계고 교사(1,5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와 미래 직업계고 교육 목표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취업 중심’이 각각 평균 4.02점(긍정응답률 76.5%), 평균 4.15점(긍정응답률 8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박동열·류지은(2021). 「직업계고 인재상과 교육 목표에 대한 교사 인식」, 『KRIVET Issue Brief』 204호, p2

❷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의지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권리 보장 정도(3.48)라고 인식**[이유 : 학교에서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아서(47.8%), 학생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34.8%)], 이와 함께 학교 생활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불만족의 이유: 학교생활 규정 및 규칙 엄격(30.7%), 규칙이 학생들 세대생활, 문화를 반영하지 못함(19.6%)]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는 단지 특성화고등학교만의 이슈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

❸ **학교 수업과 관련하여 보통교과 수업 만족도(3.68)**[불만족 이유 : 교사의 관련 전문성 부족(25.8%),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20.7%), 전공과의 연계성이 낮아서(15.5%),) **전문교과 수업만족도(3.78)**[불만족 이유 : 수업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28.9%), 교사의 관련 전문성 부족(28.9%), 수업 내용이 어려워(15.6%)]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통교과, 전문교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학생의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❹ **MZ 세대를 이해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등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 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종합적·중장기적 계획을 수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발제문에서 학생들이 ❶ 자신의 진로를 미결정하고 있는 비율(6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유 : 자신의 진로직업 적성이 무엇인지 몰라서(40.3%),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아서(22.3%), 학업능력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11.5%)]입니다. 허영준 외(2021)에서도 최근 20년간(1999~2019)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무직 및 미상인 비율이 1999년 9.8%에서 2019년 현재는 25.1%로 나타나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로가 취업과 대학(2개 유형) → 진학, 취업, 무직·무상(3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업계고는 물론 동시에 초·중·고등학교 전 교사는 물론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가 진로·직업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와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❷ 희망과목 개설 정도(3.31)와 같이 다양한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개설 과목 : 예술, 체육 관련(26.4%), 제2외국어, 전공관련(각각 16.4%), 타학과 전공 희망정도(3.25) [희망하지 않는 이유: 타학과 전공 학습 필요성 없음(35.6%), 현재 전공 심화학습 위해(32.5%)] [희망하는 이유: 다양한 전공에 대한 호기심 있어서(57.2%), 복수전공을 하고 싶어서(28.8%)]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역량 함양, 학습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4차 산업의 등장으로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상황에서 전이가능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해외의 사례 등을 통해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며 즉, 전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직업교육관에서 ‘새로운 직업교육관’ (new vocationalism)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 ‘기반의 교과 교육에서

내용의 선정과 구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직업계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직업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 또한 중요한 역량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중호 외, 2019).

[국외 직업교육 사례] 국가별 직업교육 교육과정 관련 핵심역량

독일	전문 역량: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지, 능력		개인적 역량 : 개별성격으로서 의지, 능력	사회적 역량 : 사회적 관계유지, 살아가는 능력	방법론 및 학습 역량(메타학습)
	지식	기술 :			
	심화, 폭	도구 및 시스템 사용 기술, 평가 능력	독립/ 책임, 성찰 및 학습 기술	팀, 리더십 기술,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 차원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
핀란드	개인역량개발 계획(HOKS) :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기술, 수학과 사회역량, 사회와 일터생활기술 등 중시				
캐나다	Understand (빅아이디어 이해하기)		Do (교육과정 역량 행하기)	Know (학습 내용이해하기)	

- 자료 : 이수정 외(2021). 『 직업계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미발간 정책보고서 일부 내용 발췌

최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관이 변화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업의 잦은 이동과 직업 및 직무의 특성이 변화하는 경제 체제에 따라 학생이 특정 직업을 위해 훈련되기보다는 직업의 유연성(job flexi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직업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Lewis, 1998). 이러한 능력이 강조되는 것은 특정 직업을 위한 구체적인 기능보다는 여러 직업적 상황에 전이 가능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능력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길러질 필요가 있게 된다(Bengtsson, 1993: 146).

- 자료 : 이수정 외(2021). 『 직업계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미발간 정책보고서의 백남진의 원고 인용

다섯째 학생, 교사가 만족하는 직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제문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여러 정책의 중심에 학생, 교사가 있었는지,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지역의 공동체(교사, 행정가, 학부모, 정책가 등)가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상호작용을 하면서 책무성을 부여해왔는지 책무성을 부여해왔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의미있는 교육과정 개정, 실현가능한 직업교육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2021.4)’ 계획을 통해 학생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특별운영위원회’ 신설 등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교육은 무엇보다 주, 지역사회와 교육자 및 학생들의 관심사이다. 주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고, 균형잡힌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교구는 학생들이 공평하고, 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역공동체에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시민 문화에 자리를 차지하고 사회 개선에 매우 주용한 사회적 삶, 경제적 삶, 정치적 삶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 자료 : 가신현 외(2014). 『좋은정책, 좋은학교』의 p350~352 일부 내용 발췌 인용

여섯째

범정부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국가 진로 및 직업 교육 정책 수립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구가 및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문의 내용과 같이 그 동안 직업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도 전데 사라진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장치와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동안 직업교육은 주로 교육, 학교 정책 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과학기술인력, 저소득층 복지, 산업체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정책, 복지정책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윤인경, 2020)

그리고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의 경우 기초연구나 현장 실태조사 등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과정 개발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졸속으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교과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체계적, 주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데 비해 직업교육과 관련된 전문교과의 경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교육부 정책과제나 사업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과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시부터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2020 도쿄 올림픽이 폐막하였는데, 많은 국민들과 전세계가 10대들이 승패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신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기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강점은 바로 미래세대에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어 세계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K- 직업교육 통해 미래세대가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생애전반에 필요한 진로·직업교육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학교와 기업(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학교와 고용이 연계되고 산업체와 사회가 협력하여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 가신현 외(2014). 『좋은 정책, 좋은 학교』, 아카데미프레스.
- 김성남·김남희(2021).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직업계고 온라인 개학 대응 동향 및 주요 이슈」, 『Issue Paper』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열·류지은(2021). 「직업계고 인재상과 교육 목표에 대한 교사 인식」, 『KRIVET Issue Brief』 204호(2021.1.2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인경(2020). 「미래 세대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THE HRD REVIEW』, 2020년 6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수정 외(2021). 『직업계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미발간 정책 보고서
- 임규정(2016). 「철학교육에 있어서 직업교육」, 『철학논총』, 86, pp.193-216.
- 전종호 외(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직업계고 디지털역량 교육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영준 외(2021). 『2020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_1. 중등직업교육 인력양성 효율화 모색을 위한 직업계고 학과변동 추이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 론 2

**직업계고 학생이 바라본 직업교육
교육과정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진 민 서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회에 학생 패널로 참가하게 된 삼일공업고등학교 진민서라고 합니다.

○ **취업을 위한 전문 교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 직업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전문 교과나 보통 교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직업계고를 선택한 친구들은 전문 분야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통교과보다는 전문 교과의 수업을 더욱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받길 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 현재 전공에 대한 심화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전문 교과의 수업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일공고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전공교과를 배울 때 실습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다보니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구현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을 받을 때 오랜 시간 수업을 받아도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전공 교과를 수강할 때 저와 같은 느낌을 느껴서 방과후에 남아서 보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남아서 수업을 듣게되면 학생들이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학교에서 충분한 수업 시간을 가지고 기술을 익히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학생들만이 아닌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타학과 전공 학습기회가 늘어났으면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타학과 전공을 학습하길 희망하는 정도가 평균 3.25점입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을 보면 학과의 이름을 보고 과를 선택해서 왔는데 생각했었던 전공 과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흥미를 잃고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타학과의 전공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 과목들을 배우면서 쌓은 지식으로 자신의 교과목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고 집중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2개의 전공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취업을 할 때에도 기록이 남게 된다면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 론 3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육성 프로그램 현황 및 현장실습 개선 방안

(주) 아 진 산 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육성 프로그램

To be the best in the world!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AJIN



| 특성화고 취업 육성 프로그램

1. 특성화고 산학협력 현황

2.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국제훈련

3. 신취업 추진력 프로그램

4.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5. 관리자 권한 프로그램

인형상속

- ① 2011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협약(영국교육청) 및 실시
- ② 2011~2021 글로벌 현장학습 실적 발표 : **800명(11년간)**
 ↳ 총 24개 특성화고교 참여
- ③ 2012~2015학년도 **계명문화대학 글로벌학과** 과정 실시
 ↳ 입학인원 : 117명, 졸업인원 : 85명(취업률 : 84%)
- ④ 2016~현재 **계명문화대학 글로벌학과** 과정 진행 중
 ↳ 입학인원 : 174명, 졸업인원 : 101명
- ⑤ **글로벌학과** 졸업 후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
 ↳ 우수인원 - 졸업생 : 78명, 부가 : 44명, 복부유 : 15명
- ⑥ 2016~현재 **대구대학교 4년제 취업 및 훈련(인형상)**
 ↳ 졸업인원 : 17명
- ⑦ 2021.8.22 장기특성 직지훈련 최종 **관리직 인형상속(2명)**

1 | 특성화고 산학협력 (MOU) 현황(경북)

1. 협약일자 : 2009년 - 현재
2. 협약학교 : 경북기계공업고, 금오공고, 포항제철고 등 13개 특성화고



지역내 특성화고의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의 우수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실업난을 해소

101년을 생각하는 과목과 부동 점수기

2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2011년부터 경북교육청-이진산업(주) 특성화고생 채용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10년간 지속하고 있는 사업

차수	기간	인원	국가	주최	내용	비고
1차	2011.09.19 - 2011.12.02	18명	미국	경북교육청	-현장학습 -이학연수 -취업연계	
2차	2012.10.17 - 2013.01.10	40명				
3차	2013.12.18 - 2014.02.16	30명				
4차	2014.10.02 - 2014.12.23	30명				
5차	2015.10.21 - 2015.12.23	25명				
6차	2016.11.28 - 2017.1.24	30명	143명	이진산업(주)		
7차	2017.9.20 - 2017.12.20	30명				
8차	2018.10.12 - 2019.1.5	30명	중국			
9차	2020.11.1 - 2020.11.30	35명				
총합 : 268명						
10차	2021(35명 선발전(6차기))	35명	국내			



■ 입학재활장려교육생-이진(USA) (2012년)

■ 선분보도 장편(2011)

■ 우수기업 교과부 장관 표창 수상(2011년)

■ 해외현장학습(미국)



■ 이학연수 (중국)



■ 문화체험 (2016년)



■ 경북교육청 현장학습 기업방문(2017년)



■ 글로벌 현장학습생 선발연립(2019년)

101년을 생각하는 과목과 부동 점수기

2-1 | 도제훈련(경북기계금속고)

도제훈련을 통해 우수학생 조기 선발 및 학교학업과 회사실습을 병행하여 조기적용

구분	학교	인원	분야	배고
1기 (2015년)	경북기계금속고	4	프레스금형제작	
2기 (2016년)		4	프레스금형제작	
3기 (2017년)		4	프레스금형제작	
4기 (2018년)		4	프레스금형제작 용접반	
5기 (2019년)		4(신입반)	프레스금형제작 용접반	
총합 : 20명				

2,3학년
도제훈련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전문학사
입학

도제훈련 이후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연계하여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있음.

3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3 |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 ▷ 학과명 : 영진전문대 아진기술경영반
- ▷ 운영방식 : 주간 근무, 야간수업 진행.
- ▷ 과 명 : 전문학사과정 (2년제)
- ▷ 특 전 : 4년제 야간대학 편입지원, 관리직 전환배치 지원
- ▷ 기대효과 : **젊은 기능인재 육성**

년도	학생수(명)	졸업생	배고
2012	30	30	계명문화대학
2013	30	19	
2014	27	23	
2015	30	26	
2016	30	28	영진전문대학
2017	30	28	
2018	22	19	
2019	28	26	
2020	29	-	대학중
2021	35	-	대학중
합계	291명	198명	



4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3-1 | 학기 중 프로그램

해외봉사활동	학부모간담회	워크샵	추계체육대회	경기산행
1회/년	1회/년	1회/년	1회/년	4회/년
-국가 : 라오스 -내용 : 해외봉사활동	-학부모 초청 -회사견학 -대표이사 간담회	-유명강사 특강 -레크리에이션 -외부활동	-재학/졸업생 회합 -관련학교 교사초청 -체육행사 진행	-분기1회 산행 -선물지급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4 | 특성화고생 (군복무자) 지원 프로그램

실시 일자	2010. 3월 - 현재
목적	특성화고 졸업생 경력단절(군복무) 해소와 장기근속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인정 ② 군복무기간 중 상여금 지급 ③ 군복무 전, 후 1주일 특별휴가 부여 ④ 군복무 후 복귀시 임금인상 ⑤ 계약학과 졸업후 근무성적우수자 4년제 대학교 편입기의 제공 ⑥ 대학졸업 후 근무성적 우수자에 한해 관리직 전환배치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2. 지원 자격
 3. 지원 방법
 4. 지원 절차
 5. 지원 혜택
 6. 기타 사항

5 | 관리직 (전환) 프로그램



- ☞ 당사 장기육성정책 - 급부발 현장학습을 시작으로 4년제 편입까지 인형용, 우수자에 한하여 관리직 전환배치 계획
- ☞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취득이수자 중 희망인원 대상으로 근무/면접평가 등 최종 관리직 전환 대표이사승인(결정)

7

101년을 생각하는 과대학 부동 진흥기

5 | 관리직 (전환) 현황

구분	대상자		기전관리직 전환 - 21.06.22	비고
	안성진(사원)	김영진(사원)		
성명/직위				
출신고교	경북기계공업고 교정차량과	경북기계공업고 교정차량과		
최종학력	전문대졸(계명문화대) - 17.3.졸 대학(대구대) - 22.2.졸업예정	전문대졸(영진전문대) - 18.2.졸		
소속	아전산업(주) 본사	아전산업(주) 본사		
부서	주집안	주집안		
입사일	15.02.23	15.12.07		
근속연수	6년4개월	5년7개월		

7

101년을 생각하는 과대학 부동 진흥기



“ 2020년 세계 1위 전문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고 추월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오늘도 불어 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importance: the human and environment, will continuously
Put effort to become a first class global enterprise.

Thank you 

To Be the
BEST In the
World!

토 론 4

202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방향

윤 강 우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

202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방향

□ 추진 개요

2020년 마이스터고부터 시작된 직업계고 학점제의 도입과 NCS 교육과정의 지속 적용,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직업교육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1년 주요사항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개정 고시를 목표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금년도 국고 3.2억원을 확보하여 총 8개 과제에 걸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주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능연과 직업교육 관련 주요 대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정책연구 과제]

	연구주제	연구책임자		연구비 (백만원)
		성명	소속	
총론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요구 분석 연구	김지영	직능연	45
	직업계고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박동열	직능연	45
	직업계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이수정	직능연	45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김남희	직능연	45
	직업계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최수정	서울대	30
각론	직업계고 NCS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송낙현	충남대	45
	NCS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I	정진철	서울대	35
	NCS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II	이병욱	충남대	30
합계				320

정책연구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7월 28일에는 제1차 교육과정 개발 포럼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향후 '21년 9월 제2차 교육과정 개발 포럼을 통해 연구 주요내용을 종합하여 '21년 10월에 교육과정정책과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에는 교과별 교육과정이 개발될 예정이다.

□ 총론 개정 방향

1. 인간상 추가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일, 진로,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과교육, 중학교에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기술 가정, 고등학교 단계에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전문교과 등을 고려하고, '일-학습-삶의 연계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의 네 가지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일, 진로,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담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22 개정 교육과정(안)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1. 추구하는 인간상	1. 추구하는 인간상
<p>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p>	<p>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p>	<p>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p>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p>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p> <p>마. 일, 진로,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역량있는 사람 (추가 신설)</p>

그리고,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의 전제가 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권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 교육과정 편제표의 개정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 따라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하고, 창체와 교과에서 각각 6

학점을 감축하되 보통교과 필수이수단위는 66단위를 유지하고, 전문교과는 86단위로 유지하며 자율편성단위에서 6학점을 감축할 수 있다. 한국사를 제외한 공통과목별 이수단위를 삭제하고 영역별 이수 단위만 표기하여 공통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필수이수학점을 66학점으로 유지하여 기초학습능력의 신장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		
			영어	영어		
			한국사	한국사(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12	
			과학	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14	
			예술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전문교과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참고 : 2015 개정 교육과정(직업계고 학점제 수정안)]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교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전문교과	17개 교과(군) 등			86		
소계				174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구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중 직업계고 학점제 적용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운영, 현장실습 관련 조항의 재구성,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화, 국가와 교육청의 책무성에 대한 강화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공통적인 내용(학생의 과목선택권, 성취평가제의 확대, 미이수 방지교육의 강화 등)은 공통사항으로 담아낼 것이므로 중복적인 언급을 할 필요는 없으나, 공통사항에 직업계고의 특성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세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4.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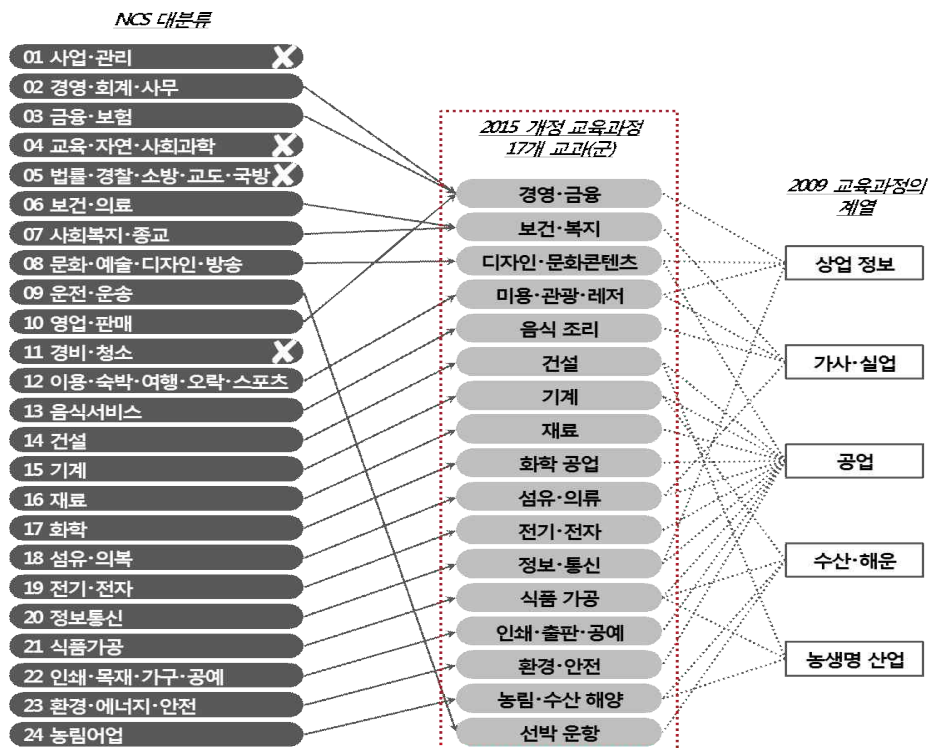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은 직업교육에 심각한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를 유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격수업의 한계와 성과를 진단하여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 원격수업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체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경험의 학습 인정 등을 통한 학습경험의 확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낮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각론 개정 방향

1. 전문교과 교과(군)의 재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NCS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기존 24개 산업분류 체계 중 직업계고 수준에 맞는 영역만을 별도로 재구성하여 17개 교과(군)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선택되지 않은 실무과목 또는 능력단위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다양한 학과 개편을 통해 기존에 선택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는 등 17개 교과(군) 체제에 대한 재구성을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를 통해 NCS 대분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24개 교과(군)으로 구성하거나, 18~23개의 영역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 전문공통과목의 재구성

기존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영역은 일과 직업생활, 기업과 산업 활동,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학습, 취업과 창업, 근로관계와 산업 안전, 직업윤리와 직업사회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소양으로 세분화하여 과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직업세계 기초소양	관련 보통교과(2015 교육과정)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기술.가정, 보건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발명(창업)과 지식재산 금융경제	지식재산일반, 창의 경영, 기술.가정, 실용경제 실용경제
정보기술(AI, IT, SW)	정보

또한 5개의 전문공통교과 중 2~3개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 직탐 과목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한데, 노동과 산업안전보건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4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참고 : 직업탐구영역 선택과목]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계열	필수 이수 과목(특성화고)	편제 교과(군)
농생명 산업 계열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림·수산 해양
공업 계열	공업 일반*, 기초 제도	건설
상업 정보 계열	상업 경제*, 회계 원리	경영·금융
수산·해운 계열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농림·수산 해양
가사·실업 계열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보건·복지

3. 전문교과 편제의 재구조화

<A. 현행 과목 구조>

<B. 개편(안)>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향상, 학문의 기본이해 내용 과목
	일반선택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교과별 학문 내 분화된 주요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전문	전문교과 I (특목고)	전문	진로선택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과정) 및 진로관련 과목
	전문교과II(특성화고) - 전문공통 - 기초과목 - 실무과목		㉠'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초소양 - 노동, 미디어, 지식재산, 금융, 정보기술
			㉡'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 공업일반, 상업경제, 농업이해 등, 보통교과 성격의 직업 기초 과목
		㉢'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과목 - NCS 24개 대분류 체제 재구성	

전문교과는 기존의 전문공통, 기초,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 과목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일반 과목은 기존의 전문기초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이론 및 입문 과목과 함께 NCS 능력단위가 아닌 내용으로 재구성한 과목을 말한다. 이는 기존 NCS 교육과정이 산업계 기반으로 구성되어 학교의 실습 환경과 맞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과정평가형 자격체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기존과 동일하게 NCS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결국 학과별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선택권을 반영하여 NCS 또는 非NCS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각론 편제표 개정안(식품가공 예시)]

전문 공통	과목군					
	교과(군)	기준 학과	전공일반		전공실무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발명과 지식재산 금융교육 정보기술기초 미디어 문해	경영·금융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NCS 세분류 또는 능력단위	
	보건·복지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디자인·문화콘텐츠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관광·레저	미용과, 관광·레저과				
	음식 조리	조리·식음료과				
	건설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재료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 공업	화학공업과				
	섬유·의류	섬유과, 의류과				
	전기·전자	전기과, 전자과				
	정보·통신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식품 가공	식품가공과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식품 분석 식품 저장 유통 식품 품질관리 건강기호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농산식품가공I(곡류, 두류) 농산식품가공II(과채, 기타) 수산식품가공 제과 제빵		
	인쇄·출판·공예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안전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림·수산 해양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선박 운항	항해과, 기관과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과 개발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의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직업 기초능력에 대한 평가를 1학년과 3학년에 실시하고 있으나,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결고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보통교과 교사는 직업기초능력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을 지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전문교과 교사는 관련 전문교과에 반영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의 내용요소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실용 국어, 실용 영어, 실용 수학 과목이 있으나, 직업적 맥락이 부족하고 공통과목의 대체과목으로서 직업계고 학생이 학습하기에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통교과 영역 또는 전문교과 영역에 ‘직업기초교과(군)’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직업기초교과(군)’에는 직업과 의사소통, 직업과 수리활용, 직업과 영어, 직업과 문제해결 등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역을 과목화하고자 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직업기초 교과목의 편성(1안)]

<A. 현행 과목 구조>		<B. 개편(안)>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향상, 학문의 기본이해 내용 과목 (학생수준에 따른 대체이수과목포함)
	일반선택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교과별 학문 내 분화된 주요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선택과목 융합선택 진로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과정) 및 진로관련 과목
전문	전문교과ⅡⅠ(특목고)	전문	㉔'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초소양 -노동, 미디어, 지식재산, 금융, 정보기술
	전문교과ⅡⅡ(특성화고) -전문공통 -기초과목 -실무과목		㉕'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 공업일반, 상업경제, 농업이해 등 - 보통교과 성격의 직업 기초 과목(직업과 의사소통, 직업과 수리활용, 직업과 영어, 직업과 문제해결 등)
			㉖'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과목 - NCS 24개 대분류 체제 재구성

출처 : 교육부, (2020.1.3.15). 「미래 산업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 재구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직업기초 교과목의 편성(2안)]

<A. 현행 과목 구조>		<B. 개편(안)>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향상, 학문의 기본이해 내용 과목 (학생수준에 따른 대체이수과목포함)
	일반선택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교과별 학문 내 분화된 주요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선택과목 융합선택 진로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과정) 및 진로관련 과목
전문	전문교과ⅡⅠ(특목고)	전문	㉔'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초소양 -노동, 미디어, 지식재산, 금융, 정보기술 - 보통교과 성격의 직업 기초 과목(직업과 의사소통, 직업과 수리활용, 직업과 영어, 직업과 문제해결 등)
	전문교과ⅡⅡ(특성화고) -전문공통 -기초과목 -실무과목		㉕'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 공업일반, 상업경제, 농업이해 등
			㉖'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과목 - NCS 24개 대분류 체제 재구성

출처 : 교육부, (2020.1.3.15). 「미래 산업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 재구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직업기초 교과목의 편성(3안)]

<A. 현행 과목 구조>		<B. 개편(안)>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향상, 학문의 기본이해 내용 과목 (학생수준에 따른 대체이수과목포함)
	일반선택과목		일반선택	교과별 학문 내 분화된 주요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 <u>보통교과 성격의 직업 기초 과목(직업과 의사소통, 직업과 수리활용, 직업과 영어, 직업과 문제해결 등)</u>
전문	전문교과ⅡⅠ (특목고)	전문	①'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초소양 - 노동, 미디어, 지식재산, 금융, 정보기술
	전문교과ⅡⅡ (특성화고) - 전문공통 - 기초과목 - 실무과목		②'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 공업일반, 상업경제, 농업이해 등
			③'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과목 - NCS 24개 대분류 체제 재구성

출처 : 출처 : 교육부, (2020.1.3.15). 「미래 산업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 재구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신설 보통교과(군)의 편성 및 운영(안)의 장단점]

편성 및 운영(안)	1안	2안	3안
장점	-직업교육의 맥락을 포함한 직업계고 맞춤형 교과 제공 -직업기초교과군 편성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	-직업교육의 맥락을 포함한 직업계고 맞춤형 교과 제공 -직업계고 학생 모두가 공통으로 직업기초교과군을 이수 가능	-직업기초 과목을 통해 보통교과 이수 단위 대체 가능 -진학을 위한 내신 산출 용이
단점	-전공실무 교과목의 이수단위와 시수 배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보통교과목의 선택과목과 중복된 내용을 편성할 수 있음.		-보통교과목 내에 직업교육 및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내용 반영이 어려움.

‘직업기초교과(군)’을 보통교과에 두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통교과 교원이, 전문교과에 두는 경우 전문교과 교원이 지도해야 하므로, 만약 전문교과 교원이 담당하는 경우 교원의 지도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직업기초교과(군)’을 공통과목의 대체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